

각 민족과 국가, 개인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
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빛을 받고도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어리석은 자들을 꾸짖어 주
시라 하여 복음으로 다시 이끄러 낼 수 있
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며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주 예수
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이 이것들
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민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너
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
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디모데전서 6장 11-12절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gmail.com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www.chpress.net

주후 2018년 9월 8일 (토) 제 1697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명목상 크리스천들을 다시 하나님 품으로!

CT, 로잔운동의 명목상크리스천들 지구촌 전도대상 진행과정 소개

서유럽에서 전도의 대상은 자신을 무신자로 여기는 불신자나 이
민자로 들어온 무슬림이 아니라, 자신을 크리스천으로 여기는 "명
목상" 크리스천이다.

"명목상" 크리스천의 증가는 이제 서유럽뿐만 아니라 미국, 한국
등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여기에 미국에서는 종교적 넌스
(Nones)까지, 이름뿐인 크리스천의 증가로 전도의 영역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바나리서치, 퓨리서치 그리고 라이프웨이
등에서 '명목상' 크리스천 증가에 대한 설문 결과들이 연이어 발
표되고 있다. 그만큼 전통적인 기독교 세계관에 멀어진 변두리

또는 주변화 된 크리스천이었으나 이제는 교회에 나가지 않는 크
리스천에 대한 접근 방법에 대한 모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
다.

따라서 크리스처니티투데이(CT)는 서유럽 명목상 크리스천들
을 다시 교회공동체 안으로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보
여준다(Europe's Big Mission Field: Nominals: How do you
persuade someone who already thinks they're a Christian to
become one?)

명목상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이름뿐
인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이다. 주로 기독교
전통이 있는 나라, 민족, 단체, 가문에서 생
의 통과례로서 유아 세례, 결혼식, 장례식
할 때만 교회에 나오고, 평소에는 교회 예
배에 거의 나오지도 않으며, 교회 활동에도
거의 참여하지 않는 크리스천들이 일반적
으로 여기에 해당된다.

이들이 명목상 크리스천들로서 살아가는
모습은 다양하다. 이들은 어떤 모양으로든
지 기독교와 접촉을 가진 사람들이며, 스스
로 크리스천이라고 부르며, 또 그렇게 불리
운다. 그러나 순전한 크리스천 신자로서 가
져야 할 기본적인 세 가지 필수요소 1.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라고 고
백하는 신앙고백, 2. 규칙적인 교회 예배 출
석, 3. 기독교 신앙 활동(선교, 봉사,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삶, 이런 것들은 결여
돼있는, 그야말로 명목상의 크리스천들이
다.

퓨리서치의 최근 설문 조사 결과(Being
Christian in Western Europe: The
majority of Europe's Christians are non-
practicing, but they differ from
religiously unaffiliated people in their
views on God, attitudes toward Muslims
and immigrants, and opinions about
religion's role in society)에 따르면, 무려
46%가 명목상 크리스천들이며, 18%만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24%는 종교
와 무관하게 살고 있고, 5%는 다른 신앙들
을 가지고 있다.

명목상 크리스천의 문제는 이미 초대교
회에서도 심각하게 언급되고 있음을 우리



서유럽에서 전도대상자는 자신을 크리스천으로 여기는 '명목상' 크리스천들이다.

는 성경에서 읽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행치 않는 자
들"(눅6:46),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
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딤후3:5),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계3:1이하)
등이 그것이다.

1998년 12월 로잔대회(LCWE)에서 다룬
"노미널리즘에 대한 연구 종합 보고서"를
보면, 전 세계 기독교인 가운데 약 44%가
명목상 크리스천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명목상 크리스천의 증가 현상은 전 세계적
인 현상이다. 이것은 이제 서구 기독교세계
만의 문제가 아니며, 자유주의적 신학노선
을 지닌 교파에만 제한되지 않고, 한국교회
에서도 볼 수 있는 영적 약성 바이러스 현
상이다.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로잔운동측은
지난 8월, 지구촌 크리스천들에게 "영적 탕
자들이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
록 기도하자"고 호소했다(A Global Call to
Engage Nominal Christians: Resourcing
the global church to understand nominal
Christianity, that the missing 'Christians'
might come home).

전 세계에서 모인 신학자 40명, 선교사
들, 사회학자들 그리고 평신도들이 명목상
크리스천들을 다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
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
서, 실제적인 방안들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모였고, 8월에 지구촌 크리스천들
에게 호소하게 된 것이다.

(3면으로 계속)

사람과 사람 연결하는 '소통의 달인' 돼야한다!

리더십저널, PA 와튼스쿨 스튜어드 다이아몬드
교수의 커뮤니케이션 5대 원리 소개

많은 연구에 따르면 직장에서 발생하는 실수나 사고의 70%는 잘못된 커뮤니
케이션으로 인해 발생한다. 큰 조직이나 작은 조직이나 구성원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요인은 야근, 낮은 연봉, 뒤편 복지후생 등의 문제도 있었지만 가장 큰 원
인은 '인간관계'다.

- 1.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는다 선에서 알아서 스트레스 해소하자.
2. 요점 정리한 글을 잘 쓴다

13년 연속 와튼스쿨 협상 과목의 최
고인기 교수인 '스튜어드 다이아몬드'
는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있어서 절
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아야 한다
고 조언한다.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원
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다. 당신도 상대
와 마찬가지로 비이성적인 행동을 했
기 때문이다. 특히 회의를 이끌어가거
나 자리에서 와서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
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글로 전달하
는 능력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한다.
기획자나 마케터 등 프레젠테이션이
나 기획서를 작성할 일이 많은 직군은
특히 작문능력이 중요하네, 여기서 작
문능력은 유려한 글솜씨가 아니라 핵
심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을 말
한다. (3면으로 계속)

"심리와 의증 파악이 가장 어렵지만
이중잣대 소유자는 심리파악 안 돼"

나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
다면 부정적인 감정을 절대적으로 배
제하는 것이 원활한 합의를 끌어낼 것
이다.

어려운 일이지만 스트레스 받는 상
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에 주변 사
람이 분명 존경(respect)을 보낼 것이
다. 자신에게 부메랑이 돌아오지 않는
(3면으로 계속)



시론
은회권 목사

2면



한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손상용 목사

7면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장 이취임사

16면

World Mission University advertisement with contact info and logo.

Best Saver advertisement for books and religious materials.

The Christian Book Center advertisement for religious books.

Bible Store advertisement for religious books and materials.

Pastor Appreciation Day advertisement with large text and images of gifts.

# 미국은 지금 매케인 소천으로 가슴앓이 중!

## 미 언론, 진정한 보수주의자로 존경받던 그의 삶과 신앙 집중 조명

지금 미국은 존 매케인 상원의원(애리조나)을 추모하고 있다. 지난 달 25일 뇌종양으로 애리조나 주 자택에서 81세 나이로 숨을 거둔 그는 정치적 진영을 떠나 '진정한 보수주의자'로 불리며 존경을 받았다. 그는 해군 소속 전투기 조종사로 베트남전에 참전했다. 당시 작전 중 비행기가 격추돼 포로 생활을 시작했다. 당시 받은 고문의 후유증으로 평생 한쪽 다리를 절게 됐다. 그 장애는

평생 매케인에게 좌절과 절망을 가져다주기보다는 오히려 겸손과 희망을 소유하게 하는 축복이었다. 매케인 의원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면에는 기독교 신앙이 기반이 됐다. 정치인 매케인 이전에 그는 신앙인이었다(John McCain and religion: Senator was raised Episcopal, attended Baptist church).

많은 사람들이 월남전에서 포로로서 보여준 매케인의 영웅적 행동, 나라 사랑과 정치적 헌신 그리고 가족과 친구들에 대한 사랑에 관해 이야기한다. 워싱턴의 오랜 동료들은 개인사를 회상하며, 매케인의 생애와 유산에 존경을 표한다. 매케인은 버지니아 주의 성공회 고등학교에 다녔으며, 그곳에서 매일 아침과 주일 저녁에 예배를 드렸다. 그곳에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으며,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 법을 배웠다.



정치인이었다. 공화당 소속이었지만 보수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하는 표발인 '바이블 벨트'를 향해서도 비판 발언을 하는 등 소신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첫 대선 때 보수 기독교계의 유명 인사였던 팻 로버트슨 목사가 연일 혐오와 배제를 일삼는 발언을 계속하자 이를 신랄하게 비판한 바 있다. 또, 대항교회인 코너스톤교회의 존 해기 목사가 "당시 나치가 유대인들을 유럽에서 학살하고 추방한 것을 우리가 보기에는 이

## 월남전 포로로서 영웅적 행동, 나라 사랑과 정치적 헌신 보여 5년반 수용소생활 중 신앙 견고해져...베트남과 관계개선 노력

그러나 하노이에서 그의 비행기가 추락했을 때 그의 신앙은 보다 영적으로 성장기를 맞게 된다. 그는 5년 반 동안 전쟁 포로로 지내야 했고, 그 중 2년간 독방에 감금됐다. 그는 당시 "자유로울 때보다 더 자주 더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기록했다.

독방에서 나온 뒤, 성경 반입이 허락되지 않아 매케인은 성경 구절들을 기억해내며 동료들과 성경공부를 했다. 평소에는 그냥 지나쳐왔던 크리스마스에 존 매케인은 그 의미를 곰곰이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졌다.

베트남 포로 생활 시절에 있었던 일이다. 그는 모든 희망이 단절돼있던 수용소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았다.

외부에 있었다면, 아니 미국에 있었다면 가족 또는 친구들과 즐거운 한때를 보낼 시기인데, 수용소 안에서 맞는 크리스마스는 매케인에게 사색의 시간을 갖게 했다.

그는 다른 포로들과 함께 신앙 성경에 나오는 예수의 탄생 이야기를 함께 읽기 시작했다.

매케인은 "그때 성경을 읽으면서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었다"며 "크리스마스에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고 다른 포로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한 감격의 눈물이었다"고 회고한 바 있다.

그는 생전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자옥 같던 지하 감방에서 오랜 포로생활로 인한 외로움을 견뎌낼 수 있었던 건 오직 기독교 신앙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매케인이 수용소 벽에 누군가 써놓았던 글귀(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는다)를 보면서 하루하루 기도하며 고통을 이겨냈던 일화는 유명하다.

매케인은 수용소 안에서 극심한 고문에 시달렸었다.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피해로 마음 속에 쓴 뿌리가 있음에도, 베트남이라는 국가에 적대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정치인이 돼서는 평소 베트남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애썼다. 이면에는 '원수도 사랑하라'는 성경 구절이 그를 붙잡았기 때문이다. VNA와 VN익스프레스 등 베트남 국영매체들도 매케인의 별세소식과 함께 그의 이 같은 역할을 상세히 소개하면서 친구, 화해의 인물 등으로 묘사했다. 또, 주베트

남 미국대사관은 베트남 수도 하노이의 한 건물에서 매케인을 위한 조의를 쓸 수 있도록 장소도 마련했는데 이는 그만큼 그가 전후 미국과 베트남 관계를 위해 얼마나 공헌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는 늘 공공연하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건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해 왔다. 신디와 재혼한 뒤, 부부는 노스피닉스침례교회에 나갔으며,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메시지는 그의 삶과 신앙의 중심이 됐다.

2008년 대선 기간 중에 릭 워렌 목사가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몰았을 때, 매케인은 "내가 구원받았고 용서받았다는 걸 의미한다"고 대답했다.

매케인은 미국 대권에도 두 번이나 노선했지만 그는 할 말은 하는

해할 수 없지만 모든 건 신의 뜻 안에 있다"고 설교하자 이 발언을 강력하게 성토했던 바 있다. 자칫 보수 교계 유권자가 이탈해 표를 잃을 수 있음에도 이를 의식하지 않고 소신 발언을 한 것이다. 이러한 행보 때문에 매케인은 평소 공화당 내에서도 '독불장군(maverick)'로 불리기도 했다.

그는 보수적 가치를 중시하면서도 옳지 않다고 생각되는 일에 대해서는 늘 반대했다. 극 보수 기독교계의 타협 없는 독선적 인식에 대해서도 "그들은 불관용의 대표적인 사람들"이라며 편협한 근본주의 기독교계에 일침을 가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보수 기독교계에서는 한때 매케인을 못 미답계 여기기도 했다.

(3면으로 계속)



### 시론

##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은희곤 목사 (참사랑교회)

성 상대하지 못하고 도망쳐야 했습니다.

이후 헤라클레스는 전쟁과 지혜의 여신 아테나를 찾아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괴물의 정체가 무엇인지 물어보았습니다. 아테나는 헤라클레스에게 대답했습니다. "그 괴물은 맞설수록 더욱 강해지는 괴물입니다. 그 괴물을 상대하는 방법은 맞서지 말고, 싸우지도 말고, 못 본 척 놔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점점 작아져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 괴물의 이름은 '다툼'입니다"(인터넷 퍼옴).

그렇습니다. 우리도 살다보면 이런 저런 일들을 다 겪게 됩니다. 조금 지나 뒤돌아보면 나 자신을 스스로 칭찬할 수 있는 일들도 있지만, "내가 정말 왜 그랬나" 하는 후회가 밀려오는 일들도 많습니다. 특히 자존심이나 욕하고 치밀어 오르는 성질 때문에 아주 쉽게 해결할 수도 있었던 일들이 아주 큰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어디 여기서 끝났을까? 그 다름 때문에 결국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소원해지다가 어떤 말, 일, 사건들이 계기가 되어 결국 서로를 불신하게 되고 미움과 증오가 자리 잡게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이런 일들의 결과는 어찌될까? 우리들에게 이런 문제가 닥치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우리는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사람은 질문하고 성경은 대답합니다. 사람이 대답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이 대답하고, 그 대답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서로가 처한 환경과 경험들이 무척이나 다르기에 거기에 의문과 대립과 분열이 나타납니다. 사단이 저 한구석에서 씩 웃으며 쳐다봅니다. 사단은 다툼과 분열을 일으켜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령은 사람으로 하나가 되도록 도와 교회를 세웁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경이 대답하는 것을 믿고, 깨닫고, 그 길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엡 4:3)이 신앙입니다. 성경 말씀으로만 우리는 모두 하나가 될 수 있기에 사단과 마귀는 온갖 시험과 유혹으로 이를 나에게서, 가족과 교회로부터 빼앗으려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영적 자각을 갖고 "성경, 말씀"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다툼의 원인과 결과와 해결방법도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성경은 다툼을 일으키는 원인을 미움(잠10:12), 교만(잠13:10), 미련(잠20:3), 자기와 상관없는 간섭(잠26:17), 욕심(잠28:25), 분노(잠29:22),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딤후2:23), 경건은 이익의 방도로 생각(딤후6:5), 정욕(약4:1) 등등이라고 합니다. 또한 성경은 다툼이 일어날 때 그 다툼이 시비를 일으키고(잠26:21), 온갖 혼란과 악한 일이 일어난다(약3:16)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성경은, 사랑(잠10:12), 권면을 듣는 지혜(잠13:10), 제비뽑기(잠18:18), 멀리하는 것(잠20:3),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빌2:3), 피하라(딤후3:9) 등등으로 권면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다툼 중 한 장면을 봅니다. 하나님이 아브람과 롯을 축복하사 가족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목자들이 우물을 두고 다투게 됩니다. 다툼이 있자 아브람이 롯에게 말합니다. 다툼을 피하는 성경적 방법입니다. "...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니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롯이 아버지 같은 아브람에게 마땅히 "아니되었나이다 삼촌이 땅을 먼저 택하소서!" 해야 했었는데, 그만 욕심이 눈을 가려 덤덤 가장 비속하게 보이는 땅을 택하여 떠나고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합니다. 그러나 롯이 택한 소돔과 고모라 땅은 유행과 불로 멸망당하였고(창19:25), 아브람은 질투나 날 정도의 굉장한 축복, "...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갈게 하리니 ...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창13장). 땅이 축복이 아닙니다. 그 땅에 누가 사느냐? 즉 "하나님의 사람이 축복"입니다.

요즘은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짜증이 배가 되고, 땀이 툭 건드리면 터질 거 같은 이때에 다툼이 많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 이때를 오히려 성경 말씀대로 겸손과 양보로 다툼을 피하고 사랑을 세워나가는 훈련의 기간으로 삼으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이 축복의 땅입니다.

pastor.eun@gmail.com

**미주크리스천신문** ■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춘  
The Korean Christian Press ■ 편집국장: 유원정

<p><b>· L.A. Office</b>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Tel:(323)665-0009(대 표) (323)665-9025(광고국) Fax:(323)665-0058(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E-mail: lachpress@gmail.com</p>	<p><b>· N.Y. Office</b>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대표) (718)886-4424(편집국) Fax:(718)886-0074(대표) E-mail: nychpress@gmail.com</p>
---	--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 2018년 시카고 뉴라이프교회 장학생 모집

"하나님과 이웃과 세계를 섬기는 예수의 사랑 공동체"라는 비전을 가지고 창립된 본 교회는 아래와 같이 제 17회 뉴라이프교회 장학생을 모집 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응모자격** 미주에 거주하는 한인 및 소수 민족으로써 재정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며 다음의 자격조건을 갖춘자.  
- 현재 신학교나 대학(원)에서 신학을 전공하고 있는 재학생. 또는  
- 목회자 및 선교사 자녀로서 대학이나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 현재 재학중인 학교에서 대학원과정은 최소 8학점, 학사과정은 최소 15학점이상 이수하고 평균GPA가 B이상이어야 함.

**선발인원** 15명: 각 \$1,500

**제출서류** 1. 신청서(본교의 소경양식) - 신청서는 본 교회 홈페이지(www.NLChicago.org)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신앙 간증문 및 비전(2페이지 이하)  
3. 추천서 2부. 담임목사, 지도목사 혹은 지도교수  
4. 성적 증명서

**응모마감** 2018년 10월 31일  
**수여자 발표** 2018년 12월 17일, 본 교회 홈페이지에서 발표됩니다.  
**신청서류 보낼곳** New Life Church of Chicago Scholarship Committee  
1200 W. Northwest Hwy., Palatine, IL 60067

본 장학생 모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먼저 본 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고, 이메일(scholarship@nlchicago.org)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뉴라이프교회** 담임 장준원 목사  
New Life Church  
1200 W. Northwest Hwy., Palatine, IL 60067 T.847-359-5200 F.847-359-8409  
www.NLChicago.org  
newlifechicago@yahoo.com

## 영혼 구원의 열정과 소명을 가지고 선교에 헌신해 주실 선교사를 모집합니다

선 교 지 : Chiapas Mexico.  
인 원 : 0 명  
사역 내용 : 신학교 사역, 개척된 교회 사역, 아동 사역.  
자 격 : 보수 신학 출신 목사.  
언 어 : 스페니쉬 가능한분.  
제출 서류 : 이력서(가족 소개 포함), 신학교 졸업 증명서, 목사 안수증 추천서, 선교 소명서, 기타.  
제출 기간 : 2018년 11월 15일까지.  
참 고 : 제출된 서류는 반환치 않음을 양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출 처 : WORLD ARK MISSION INC.  
10541 Pinion Trail  
Escondido, CA 92026 U.S.A  
e-mail : Wam.chiapas@gmail.com

# 선교사를 모집합니다

### 명목상 크리스천들을 다시 하나님 품으로!

(1면에서 계속)

오늘날 명목상 크리스천의 모습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주위에 실재하고 있다. 로잔위원회의 보고서(1998년)에 따르면 13가지의 모습으로 오늘날 전 세계 명목상 크리스천들의 모습을 분석하고 있다.

①인종적-종교적 정체감으로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 ②제 2세대 기독교인들 ③의식주의자들 ④혼합주의자들, 즉 기독교를 받아들인 동시에, 다른 종교, 다른 세계관의 영성, 도덕적 가치 등도 수용하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⑤ 시들 어버린 자들(disillusioned), 즉 교회 다니면서도 기독교가 증거하는 바 몸의 부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 천국과 영생에 대한 기대를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기독교 진리가 증거하는 소망과 비전을 공유하지 못한 이들도 있다.

⑥탈진된 사람들, 즉 교회 직원으로서, 기독교 기관의 직원으로서 어떤 의무로서만 기독교 일을 하는 사람들, 개인적인 신앙고백도 없으며, 주님을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마음 없이 일반 직장인처럼 기독교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

⑦두 갈래로 나누어진 사람들(bifurcated), 즉, 삶의 우선순위를 기독교적으로 확립하지 못한 채, 세상풍조에 이끌려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다. 주일 교회 안에서는 기독교인,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직장에서는 기독교인이라는 의식 없이 살아간다.

⑧취미생활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 평소에 취미생활 하듯 매일 아침 악수터에 올라오듯이 자자주주 교회 출석하지만 자신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일에 어려움이 생기면 교회출석을 그만두는 사람들이다. ⑨불순종하는 사람들.

⑩개화교인들. 이들은 교회 출석은 하지 않지만 성경의 가르침에서 나온 민주주의, 남녀평등, 근면한 생활, 합리적인 생활 등 기독교의 가치와 생활원리에 경의를 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그 것들을 지지하고 확산시키는 일에 많은 공헌을 했다.

⑪사회적으로 적당한 거리를 견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socially distanced). 아리마대 사람 요셉, 산헤드린 공회원 니고데모와 같은 이들이다. 멀찍이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다.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유명인사들, 부자들, 학자들 중에서 이런 태도를 취하는 이들이 많다.

⑫소외된 기독교인들. 교회 안

에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잘 적응을 하지 못한 기독교인들이 있다. 시골교회에서는 적극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다. 그러나 대도시 교회에서는 잘 적응하지 못해 소극적인 모습으로 전락한 경우다. 동일집단인 군대에서 환경의 변화로 문화적 사회적 소외감을 느낀 나머지 교회출석을 그만둔 기독교인들이 있다.

⑬상처받은 기독교인들. 교인들 상호간에 무례한 언행으로, 오히려 인해 마음에 상처를 받고 교회 출석을 중단한 자들이다. 그 밖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역적인 차별성, 학벌중심적인 편견, 경제적, 사회적 지위에 따른 차별대우 등으로 인해 상처받은 영혼들이 교회출석을 중단하는 경우들이 있다.

⑭신앙생활은 단순하지 않다. 인격적인 생활이며, 영적인 생활이기 때문이다. 전도나 선교도 간단하지 않다. 한번 전도하고, 거리에 소리 높여 예수를 전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의 씨앗이 영혼 안에 심겨져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자라나는 증거가 동반되

지 않는 한,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단순한 고백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성경이 말하는 이상적인 기독교인의 모습은 자신의 삶의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고, 매일 말씀을 실천해 점진적으로 첫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예배하는 모습 둘째, 지역교회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과 교제하는 모습 셋째,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실천해 나가는 모습이 성장해가는 크리스천이다.

이러한 이상적인 모습과 비교해볼 때 100%는 아니라 할지라도 거의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노미널리즘의 모습을 다소간 지니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일은 일평생 계속 수행해 나가야 할 과제이기 때문이다. 또한 자발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롬8:29, 베후1:3-11)이 진정한 크리스천이다.

결론으로, 로잔운동 측은 명목상 크리스천 현상과 원인 그리고 접근 방안들을 새롭게 업데이트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는 동안 우리는 기도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고 성숙한 향기를 주변에서 서서거리는 명목상 크리스천들에게 내뿜어야 한다.

### 채플린 임상목회 (20)

### 죽음에 대비한 의사결정



박동서 목사 (Texas Health Presbyterian 병원 채플린)

아침에 출근하면서 저녁엔 집에 돌아오지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직장인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자식들과 손주들과 함께 환갑, 칠순, 팔순 생일잔치를 하면서 내일도 저 사랑하는 자손들을 볼 수 있을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분주한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면서 과연 내일 아침에 호흡하며 살아있을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병원 응급실에 실려 오는 위독한 환자들 90% 이상은 자신에게 이런 갑작스러운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고는 상상조차도 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죽음의 순간이 찾아 왔을 때를 대비해서 배우자나 자녀들, 중요한 의료/장례 결정을 위임할 대리인에게 아무것도 언급하지 않은 채 애타게 쓰러 들어옵니다.

사전 의료 의향서(Advance Healthcare Directive)에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치료 방법에 대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닥쳐왔을 때를 대비해서 의료결정 대리인(Medical Decision Agent)을 지정해 놓거나, 적어도 위기 상황에서 심폐소생술(CPR)이나 기도삽관(Intubation)과 같은 생명 연장 조치를 하지 말라는 의사를 미리 밝혀놓는 환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80% 이상의 환자들이 이에 대해 무지하거나 미루어놓다가 갑자기 부딪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젊고 건강한 교통사고 환자들 중에 도저히 소생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나 임종을 앞둔 말기암 환자들에게는 환자 자신이나 그 가족에게 장기 기증의 의사를 조심스럽게 타진하는 것이 당연한 절차인데, 환자 자신이 유언으로 남기거나 생전에 가족들과 상의하여 결정한 바 없으면, 유가족들이 장기 기증을 원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장례에 관한 현실적인 준비도 반드시 사전에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얼마전 비교적 생활이 어려워 카운티에서 운영되고 있는 저렴한 요양원에서 지내다가 응급실에 실려온 60대 중반의 여자 환자가 있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환자를 살려보려 애썼지만, 당뇨 및 심혈관 질환으로 여러 차례 입원했던 병력도 있고 워낙 체력이 떨어져 결국 운명하고 말았습니다. 한 시간이 지나 두 여동생이 연락되어 찾아왔고, 두 아들은 술에 취해 연락이 안되다가 네 시간이나 후에 나타났습니다. 모두 웰페어 수혜자들이었고, 환자의 죽음에 대해 아무 준비도 없었고, 심지어 본인마저 아무런 대비가 없다가 병원 응급실에서 마지막을 맞고 말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신속하게 시신을 가족이 지정하는 장의사로 이송시켜야 하는데 화장을 할지 매장할지조차 아무도 결정을 하지 못하고 경제적인 능력도 없어 보였습니다.

기독교인이었던 환자와 가족들을 위해 마지막 환송 예배를 응급실에서 드려주고 난 후, 채플린인 저는 지역 장의사 명단과 비용이 적힌 자료를 보여주면서 가족들이 결정하도록 조언을 하였습니다. 두 아들과 동생들은 의견이 맞지 않아 저렴한(화장만 해주는 곳: 700달러 정도, 화장과 장례식을 모두 해주는 곳: 5000달러 정도) 화장을 하자는 쪽과 시신을 절대 화장하게 할 수는 없다는 주장을 하며 매장(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최소 15,000달러 정도)해야 한다는 쪽으로 나뉘어 서너 시간을 논쟁을 벌였습니다. 시신 보관실을 두지 않는 종합병원은 보통 최대 3-4시간 안에는 시신을 장의사가 픽업해 가도록 하는 규정 때문에 결국 병원이 지정한 인근 장의사로 일단 시신을 옮겨놓고 추후 가족들이 원하는 장의사로 재이송하기로 하였습니다. 재정적인 능력이 없는 가족들은 그 다음 날 결국 화장하기로 결정을 하였고 장의사의 시신 픽업 및 하루 보관에 화장(Cremation) 자체 비용보다도 더 많은 돈을 지출해야만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죽음을 대비한 영적인 준비는 말할 것도 없이 중요하겠지만 자신의 죽음에 대한 실제적인 준비는 미리 해놓아야 유가족들에게도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일에 있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천년만년 살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에 빠져서 우리가 살던 세상과 가족들과의 아름다운 이별에 따른 준비에 소홀 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가족에게 두 번 아픔을 겪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Texas Health Presbyterian 병원 채플린)

tdspark@gmail.com

### 사람과 사람 연결하는 '소통의 달인' 돼야한다!

(1면에서 계속)

3. 원하는 것에 집중한다

원하는 것을 얻는 협상 모델의 첫 번째 전략은 '목표에 집중하라'이다.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문제 상황과 현재 가능한 카드들을 비교해서 가장 적합한 액션을 취하는 것이 최선이었지만, 종종 누구의 잘못인지 누가 책임을 지고 해결할 것인지 등 잘잘못을 따지다가 리소스(resource)와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생긴다.

연구에 따르면 뛰어난 협상가는 평범한 협상가보다 공통 사항과 목표에 대한 발언을 4배 가까이

한다고 한다.

반대로 평범한 협상가는 거슬리는 발언, 불공정한 지적, 비난을 뛰어난 협상가보다 5배 이상 말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프로젝트나 업무나 결국은 팀과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인데, 지난 메시지들을 뒤져가며 누가 실수를 했는지에 대한 증거를 찾는 데 리소스를 낭비하기보다 원래의 목표와 해결책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4. 맥락적 사고를 갖고 유연하게 대처하자

어쩌면 모든 분야를 막론하고 전반적으로 모순되는 생각을 매우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

2명 이상의 개인이나 조직이 업무를 진행할 때 모든 이해관계가 완벽하게 떨어지거나 불가능에 가깝다. 개인 또는 각 조직의 이익과 리소스 등을 위해 결국 어느 정도는 타협해야 하는 순간이 오는데, 이런 상황에서 가장 스트레스가 심하게 온다. 내가 결정 권한이 없어도 짜증나고, 있어도 부담스럽다.

하지만 직장 생활을 하는 이상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고 맥락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때로는 다음을 기약하며

양보해야 하는 순간도 있고, 때로는 강력하게 의견을 어필하는 것도 필요하다.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쓰는 사람을 위해 '실리반 선생님'이 돼야 할 때도 있을 것이다.

기억하자. 이슈는 계속해서 일어난다. 때면 이런 상황마다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한 걸 더 힘들어질 것이다.

5. 결국, 사람이다

직장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가장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7면으로 계속)

(2면에서 계속)

아니 못 미더운 것을 떠나 거의 매케인에 대한 혐오를 표출할 정도였다.

미국 최대 보수 기독교의 라디오 방송인 '포커스 온 더 패밀리'의 제임스 톱슨 목사 역시 "절대로 매케인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표한 바 있다.

그는 지난 2008년 대선 당시 아버지의 날 연설에서 본인의 기독교적 신앙관을 보다 선명하게 드러낸 바 있다.

매케인은 당시 연설에서 오늘날 미국의 아버지들을 격려하면서 "군건한 반석 위에 우리의 집을 짓

자"며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바 있다.

매케인은 평소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폭격과 예의를 중시한 인물이었다.

그는 지난 2008년 11월 대선 패배 연설을 하면서 당선자였던 오바마 대통령에게 "수많은 미국인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었다"며 오바마를 칭찬하기도 했다.

매케인은 과거 CNN과의 인터뷰에서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라는 질문에 "항상 옳지도 않았고, 실수도 있었겠지만 나라를 위해 헌신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답한 바 있다. 그만큼

자신의 부족함 역시 인정했던 인물이다.

그가 마지막으로 낸 회고록의 제목은 '쉽 없는 파도(The Restless Wave)'. 그는 뇌종양 판정을 받고 나서 회고록에 마지막 고인을 남긴다.

"오늘날 시대는 겸손의 결핍이 심각하다. 겸손은 먼저 자신을 알고 이해하는 데서 시작된다."

책 제목처럼 매케인의 늘 파도가 몰아치는 인생이었다. 그러면서도 겸손을 잃지 않고 늘 소신을 지키며 중심을 잡을 수 있었던 데는 그 안에 기독교적 가치가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가

능한 일이었다.

매케인은 자신의 장례식에서 아들 앤드류에게 바울의 간증을 읽어달라고 유언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딤후4:6-8).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의 새로운 물결

#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학위과정:

성경사역학철학박사 PhD / 목회학박사 DMin / 교육목회학박사 DEdMin / 목회학석사 MDiv

선교목회학 DMin in Missions

설교목회학 DMin in Expository Preaching

미남침례교단 6대 신학대학원 | 탁월한 교수진 | 저렴한 등록금 | 한국부 517명 재학 | HLC & ATS 정식인가 | 상시입학 | 100% 한국어 강의 | I-20 발행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한국부 사무실

최세롬 사모 816-414-3754; ks@mbts.edu; www.mbts.edu



### 신앙칼럼



강준수 목사  
(라스베가스 안디옥교회)

### 신뢰할만한 사람

각 국가의 경제를 놓고 그 신용을 평가하는 그런 국제기구가 있는데 신용평가, 신용등급, 신용지수 이런 말을 한다. '무디스' 같은 국제적인 기구들이 있어서 세계 여러 나라의 경제, 신용을 평가한다. 그들은 그 국가의 정치, 경제적 상황을 면밀하게 조사 분석해서 신용등급을 정하는데, 19단계로 정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22단계로 나누어 등급을 정하기도 한다. 말하자면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있으면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다' 아니면 아예 '믿을 수 없다'는 등 그 신용 등급을 올렸다 낮추었다

한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는가?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 하는 이 국가의 신용등급이 좋아야 다른 국가들이 믿고 투자를 하고 거래를 하려고 오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 국가 뿐 아니라, 한 사람도 믿을 수 있느냐? 믿을 수 없느냐? 하는 마음의 거리, 이 신뢰성의 문제는 참으로 중요하다. 왜냐면 개인에게도 신용등급을 물어 그에 따라 신뢰해주는 세상을 살기 때문이다. 우리는 믿음과 사랑을 별도로 생각할 때가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왜냐면 신뢰와 사랑은 언제나 함께 간다. 서로

믿는 만큼 사랑하게 되기 때문이다. 상대방을 신뢰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는 말은 마음에도 없는 일방적인 구호일 뿐이지 상호 인격적 관계는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믿고 있는지 생각해보았는가? 전에 우리 교회를 함께 섬기시던 부목사님 아들이 어렸을 때 우리 집에 와서 자겠다고 엄마한테 뺨이뺨이 하고 왔다. 제 집에 와서 제 침대에서 함께 잤는데 밤중에 깨 가지고 엄마한테 가야한다고 큰 소리를 지르고 울어서 아주 애를 먹었다. 그 다음에 교회에서 만났는데 또 "목사님 댁에 갈래요" 그러다. 그래서 내가 "너는 그렇게 목사님이라 자다고 해놓고선 자다가 일어나서 밤중에 우니까, 이젠 안 된다. 너를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하는 말이 "나도 나를 못 믿어요" 그러다.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을 믿을 수 있는가!

내 결심도 내가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의 결심을 믿겠는가? 그 뿐 아니라 내 감정을 믿을 수 있는가? 내 감정을 내가 얼마나 다스릴 수 있느냐 하는 거다. 이 신뢰성, 신용지수는 오랜 축적된 경력 속에 신용(Credit)이 쌓여야 된다. 우리 한국 사람들 처음 미국에 와서 4만 불을 일시불로 확 내고 새

차를 산다. 그러나 차를 그렇게 사면 그 사람 신용은 없다. 오히려 론(Loan)을 얻어 사서 3-4년을 꼬박 꼬박 정확한 날짜에 내고 나면 경력이 Credit이 돼서 소위 신용 지수가 올라간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담보 없이도 전혀 모르는 은행에서도 돈을 빌려준다. 말하자면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일시불로 돈을 꼭 내는 이 부자 집 아들은 믿을 수 없지만 정직하게 몇 년 동안을 페이먼트(Payment)하는 사람은 믿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신용을 쌓아 가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보면 신용지수라는 것은 그러니까 돈만으로 평가해주는 시스템이 아니고 오랜 경력의 문제이다. 결국 돈이 문제가 아니요, 그 인격의 문제다. 우리는 지금 사람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 이 신용지수를 놓고 고민한다. 바로 우리의 인격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제 친구 목사님이 중매를 하기는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나이 차이도 많고 여러 면에서 이 아가씨 하고 맞지를 않더라. 그런데도 두 사람은 서로 결혼하겠다고 그러는 것이다. 그래서 아가씨의 부모님 허락을 해주실까 걱정을 했더니 그 아가씨가 생강생글 웃으면서 "걱정 마세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더니 며칠 뒤에 부모님 허락을 받아왔더라. 그래서 "아니 아버지가 신앙감을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허락을 해주셨느냐?"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너는 이때까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일이 없다. 그런 내가 어련히 많이 생각했잖나! 기도도 하고 많이 생각하고 결정했을 텐데 나는 너를 믿는다" 그러더라. 이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인가!

여러분은 자식을 얼마나 믿는가? 한 평생 키워 가르쳐 놓고도 결정적인 시간에는 "내가 널 어떻게 믿어?" 그러다. 전적으로 믿고 있다는 것을 자식들이 알면, 그 믿음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더 진실 되게 행할 수도 있는데 하나도 안 믿어주는 거다. 그러니까 부모가 사랑한다고 말해도 그것도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의심과 불신이 그대로 쌓여서 점점 반항하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믿었다.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하는 베드로를 비롯해서 십자가를 질 때에 다 도망가는 이런 형편없는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믿었다. 전적으로 믿어주었다. 그 결과를 보라. 그들이 다 같이 주님을 위하여 순교한다. 사도 바울,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믿는다. 그래서

디모데를 추천할 때마다 "저를 대할 때 나를 대하듯이 대하시오, 저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말과 꼭 같소" 그런 뜻으로 말했다. 그의 자제력을 믿고, 관리능력을 믿고, 지도력과 판단능력을 믿었다. 이 신뢰, 얼마나 아름다운 사이인가?

신용은 자본이다. 돈이 자본이 아니다. 기술 노하우가 자본이 아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신용 자본이다. 우리는 가끔 어떤 물건을 놓고 "Made in China야!" 라고 말한다. 그 무슨 뜻인가! 못 믿겠다는 것이다. 짝퉁, 불량품이라는 뜻이다. 우리 크리스천을 놓고 세상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인생불량품, 짝퉁 인생 거저 크리스천이라는 말이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우리는 다시 크레딧 믿음을 세워야 된다. 인격의 크레딧, 믿음은 쌓아 올리는 일을 해나가야 한다. 믿음직한 일을 해나가야 된다. 하루하루 꾸준히 심어가는 것이다. 하루하루 서로에게 신뢰를 심어가는 사이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도 신뢰해주는 사람이 될 것이다

물론 세상도 믿고 신뢰해주는 사람이 될 것이다. 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이 되기 바란다.  
revpetergang@hotmail.com

### 푸/른/초/장

피종진 원로목사  
(남서울중앙교회)



(側近:around a person)으로 충성하도록 전거하였습시다.

바르실래의 이 같은 아름답고 현명한 "거절"은 범인(凡人:an ordinary person)으로서의 용단을 내리기 어려운 지혜로운 거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르실래의 '거절의 지혜'를 살펴보면서 수많은 유혹의 손길, 때로는 당연한 것처럼 다가오는 관례상의 파도를 어떻게 사양, 거절해야 하는지를 그 지혜로운 거절을 우리도 일평생 본받아 살면서 최후의 순간까지 승리자들

있습시다(31-35절).

그는 거부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부모 인하여 자신을 망각하는 일들이 흔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19:24).

자신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본분을 아는 사람이고, 타인에 대하여 충분한 배려를 아끼지 않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겸손의 덕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왕자의 난

정하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 때 상황으로서 최고의 공계를 베풀면서 백성된 도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나이 80세이므로 왕의 결에서 정사(政事, political affairs)를 돌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가장 적절한 이유를 겸손히 밝혔습니다. 구구한 변명도,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한 자랑도 되뇌이지 않았습시다. 다만 왕과 나라를 위한 좀 더 필요 적절한 인물이 자신이 아님을 밝히는 충직한 사람이었습니다.

2.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35절).

왕의 당연한 상급이요 예후임에도 불구하고, 더더욱 노후의 보장이 완벽한 왕의 호의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의 많은 나이로 인하여 왕에게 누(累, an evil influence)를 끼칠 뿐이라고 자신의 처지를 겸손히 수용하는 자세로 왕께 아뢰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의 호의를 받아들이는 의미에서 자기 대신에 젊고 유능한 '김함'을 천거합니다. 이는 겸손한 사람만이 행할 수 있는 모범입니다.  
(7면으로 계속)

## 거절(拒絕:A DENIAL)의 지혜 (사무엘하 19장 31-39절)

'거절'에는 엄청난 용기와 결단이 요청됩니다. 선한 것에 대하여 자신의 이해관계로 거절할 때는 기회주의자가 되고, 자신에게 불리하더라도 또는 생명의 위협까지 불사하면서도 거절할 때는 이것이 국가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애국자가 되고 순국자가 되며, 또는 자신이 믿는 신앙에 대한 포기를 거부하며 죽음을 불사할 때는 순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래(바실래), 그는 다윗이 그 아들 암살범의 반란에 의해 그 일행과 함께 예루살렘 궁을 떠나 도망하여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 랍바 사람 소비와 로데발 사람 마길과 함께 다윗의 무리들에게 최선을 다하여 식량과 편의(便宜:convenience)를 제공(삼하 17:27-29)하였고, 다윗이 암살범을 이기고 수도 예루살렘

으로 귀환할 때는 요단강 너머까지 다윗을 호위하였던 다윗의 돌도 없는 은인(恩人, a benefactor)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처럼 환난 중에 있는 왕과 그 일행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성심껏 돌보았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승리의 소식을 듣고 다윗을 찾아와 기쁜 마음으로 축하하며 영접하였던 일개 노인 바르실래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려는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아름다

운 인간관계를 나타낸 말씀입니다. 여기서 왕권이 회복된 다윗이 그 충정(衷情:one's innermost feelings)을 기리려는 마음으로 "너

는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건너가자. 내가 너를 공계(供饋:provide)하리라"(33절)고 바르실래의 여생을 책임지겠다는 제의를 합니다. 그러나 바르실래는 이같은 왕의 호의(好意:favor)를 겸손히 사양하면서 자기 대신에 아들 "김함"(왕상 2:7)을 평생 다윗왕의 현명한 측근

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라의 왕이 베푸는 극진한 보은(報恩, requital of favor)까지도 의연하게 사양할 수 있었던 바르실래의 거절의 지혜는 어디에 기인한 것일까요?

1. 자신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이

을 인하여 황급히 망명의 길에 올랐을 때 시므이와 같이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다윗과 그 일행을 저주하는 이들도 있었지만(삼하 16:5-8), 자신의 위치를 알고 자신의 본분을 아는 지혜로운 바르실래는 다윗왕이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받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실을 인

초특가 온라인 판촉물 전문기업  
핀촉상인 US  
us.87sangin.com

FREE SHIPPING!  
※현수막, 단체T셔츠 주문 환영



신속 정확 착한가격  
기독교 서적 및 일반 서적

45% OFF+tax

한국서적  
HANKOOK BOOKS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 성경책까지 부분적 금지시킬 수 있었던 AB 2943 철회!

AB 2943, Unlawful Business Practices: Sexual Orientation Change Effort는 “캘리포니아주의 사기성 동성애 전환 치료(fraudulent activities)”를 금지한다는 명목아래, 정상으로 돌아오려는 성인 동성애자들이나 정체성혼돈이 있는 성인들을 돕는 모든 기독교 상담이나 서비스, 책 구매까지도 “불법 사기성 서비스”로 처리하게 만드는 발의안으로 올 3월에 제출되어 기독교단체들의 큰 반발을 사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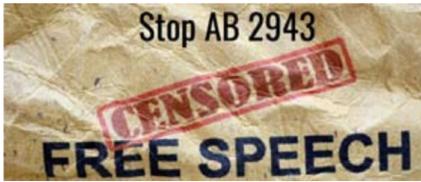
만일 이 법안이 캘리포니아에서 정식으로 통과된다면 미국 역사상 최초로 가장 사악하고 반기독교적인, 성경책의 부분(동성애 관련 부분들)과 동성애를 죄라고 하는 어떤 책, 강의, 설교 등까지도 금지시킬 수 있는 법안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발의안은 이미 캘리포니아주 민주당의 100% 지지를 안고 다음과 같이 통과된 상태였습니다.

7월 하원에서 50대10으로 통과됐고, 8월 중순에는 상원에서 25대 11로 통과됐으며, 바로 지난 8월 31일에는 수정사항이 하원에서 일제 동의하에 의회에서는 완전히 통과된 상태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동안 모든 반기독교 발의안들을 다신하여 법안으로 통과시킨 민주당 소속의 제리 브라운(Jerry Brown) 주지사가 서명할일까지 안남은 상태였는데, 수정사항이 통과된 바로 같은 날 8월 31일에 AB2943 발의안이 갑자기 철회되었습니다!

이유는, AB 2943 발의안 제출자(author)인 민주당 소속이자 실리쿰을 대표하는 하원의원인 에반 로(Evan Low, 캘리포니아 동성애 의회의원 중 한명)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우선은 AB2943을 철회(withdrawn)시켰기 때문입니다.

“The best policy is not made in a vacuum and in order to advance the strongest piece of legislation, the bill requires additional time to allow for an inclusive process not hampered by legislative deadlines. With a hopeful eye toward the future, I share with you that, despite the support the bill received in the Assembly and Senate, I will not be sending AB 2943 to the Governor this year. I am committed to continuing to



work towards creating a policy that best protects and celebrates the identities of LGBT Californians and a model for the nation to look towards.

“It is my obligation as a Legislator to make this difficult decision in the interest of finding common ground. The path towards full equality is a long journey, but a journey best traveled together. I invite you to join me.”

(직역) “최선의 정책은 비공식적인 것이 아니며, 가장 강력한 법안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안 마감일로 방해 받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인 프로세스를 허용하기 위한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나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의회와 상원 의원들의 완전한 지지에 불구하고 (우선은) AB 2943을 올해에는 주지사에게 보내지 않을 것이다.

대신 나는 LGBT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정체성을 가장 잘 보호하고 기념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국가 전체가 지향 할 모델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 계속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이번 결정은 공동관심을 위해 내릴 수밖에 없는 매우 어려운 결정이며 임박자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비록 (동성애공동체를) 위한 완전 평등을 향한 길은 긴 여정이지만, 함께 하는 여정이 가장 좋은 여행이기에 나

다. 왜냐하면 에반 로 의원의 성명서에서 읽었듯이 그는 지금 주지사에게 보내지 않을 뿐, 앞으로 더 알차고 완벽하게 LGBT를 “celebrate”할 발의안/법안을 캘리포니아만 겨냥해 만드는 게 아니라 미 전역을 목적으로 만들 아무진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도에 응답하신 주님께서 교회들과 크리스천들에게 앞으로 다가올 더 큰 수 있는 스나미 같은 공격에 준비하라는 말씀으로 받고 교회들과 성도들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자녀들을 성경적 세계관으로 더 더욱 철저히 양육시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동성애자들 대상이 아니라, 동성애취향을 정치적, 인권운동으로 이용하여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경의 진리를 바꾸며 하나님을 캘리포니아와 미국에서 몰아내려는 사악하고 교활한 영적 세력들과의 전쟁임을 기억하며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의 승리에는 AB 2943을 절대 반대하고 용감하게 나와 개인적인 간증을 해준 탈동성애 크리스천들의 공이 큼니다.

“탈동성애자”란 동성애자였다가 일반인(이성애자)으로 돌아온게 아니라 레즈비언 또는 트랜스젠더 등의 사람들인데, 한마디로 동성애 삶에서부터 탈출하여 해방(Set Free!) 된 사람들을 칭하는 단어입니다.

다음 사이트는 탈동성애(ex-gay/lesbian)자들이 6월 12일 모어 AB 2943에 절대 반대해야 하는 이유를 알리는 내용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CX0vzWf9hQ&mc\_cid=3a8eaaad0e&mc\_eid=57ca3576cf  
그 외 에반 로 의원이 취한 내용-Full Statement on AB 2943과 AB 2943 중요 내역 및 하원통과(http://tvnext.org/2018/04/ca-ab-2943-bible-ban/), 상원통과 내용(http://tvnext.org/2018/08/ca-ab-2943) 및 더 자세한 내용들과 영문링크들은 Tvnext.org에 가시면 전체 리소스(resource) 자료들과 연결링크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sarahspring2009@gmail.com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한번은 교회에서 그를 성경공부 중에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한 성범죄의 원인이 다윗이 게으르게 낮잠을 자고 욕망을 거닐다가 한 여인의 목욕하는 것을 보고 범죄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정말 맞는지요? 그리고 밧세바가 후 다윗을 유혹한 것은 아닌지요? 그밧세바의 처신에는 문제가 없는지요? 목사님의 성경적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팔로스 버디스에서 김춘경 권사

A: 에 좋은 질문입니다. 흔히 말하기를 다윗이 밧세바로 성적인 죄를 범한 그 원인을 다윗이 오후에 침상에서 뒤굴면서 게으르게 낮잠을 자기 때문이라고 어떤 설교자들이 설교하는 것을 가끔 듣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낮잠은 사실 죄의 원인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타인의 낮잠은 더위를 피하기 위한 그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신약의 사도바울도 에베소에서 선교할 때 두란노 서원을 빌려 그곳에서 전도설교를 하였는데 그 시간이 에베소 사람들이 날씨가 낮에는 너무 더워 낮잠자는 시간인 오전 11시에서 4시까지 5시간을 빌려 2년간 선교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의 삶의 풍습인 낮잠을 다윗이 한습 자고 일어난 것을 게으름이라 설교하며 그것이 죄의 원인이 된다고 말하는 것은

### 평화할 때 시험 들 수 있어...범죄는 강력히 거절해야

지나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당시 그의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이제 암몬의 수도인 람바성의 함락을 눈앞에 바라보고 있었기에 정신적으로 헤이해져 있었었습니다. 이제는 전쟁도 나름대로 자신만만하였고 옛날 사울왕에게 쫓길 때처럼 다급히 하나님을 찾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모든 것이 잘 나가고 안정된 때였습니다. 평소보다 기도 생활이 좀 식어지고 영적으로 방심한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때 다윗은 마귀의 유혹을 받아 범죄하고 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그러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뜨거운 대낮에 낮잠을 잔 후에 바람도 불고 선선해지면서 잠깐 바람도 쐬고 싶 걸 욕망을 걸었습니다. 어떤 설교자는 이것을 말하면서 다윗이 자신의 반동반동 늘면서 자기의 직책을 소홀히 하고 게을렀다고 말하는 자도 있으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랑게(Lange)라는 주경 신학자의 말처럼 그것은 아마 다윗의 일상적인 습관이었을 것입니다. 왕도 업무를 보다가 낮잠을 자고 쉴 수도 있지요. 다윗궁은 높은 시온산에 위치하고 있기에 그 인근 주민의 집 마당을 내려다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었습니다.

혹자는 밧세바가 목욕한 행위는 다윗왕을 유혹하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이었다고 추측하는 사람도 있으나 고대근동지방의 삶의 형태를 살펴보면 억측입니다.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집안마당의 우물에서 목욕하는 것이 보통이었고 그리고 지붕위에서 이웃집을 내려다보는 것은 금기사항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밧세바는 과연 무죄인가? 무죄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윗이 자기를 왕궁으로 침실로 불렀을 때 남편이 있는 여인인데도 왕이라고 너무 쉽게 몸을 허락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선군 다윗이 유혹을 받아 범죄를 저질렀지만 밧세바 역시 그 범죄에 순순히 동조함으로써 소극적인 범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가 왕이라 할지라도 “왕이 시어 나는 왕의 군사인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왕이시여 결코 이래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입니다” 하고 단호하게 생명을 걸고 거부했다면 선군 다윗의 범죄를 오히려 막는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생모집

www.rptseast.org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 학교안내

본 신학교는 미주에서 가장 큰 한인 장로교 교단이며 북미주 보수 장로교 및 개혁교회 협의회(North American Presbyterian and Reformed Council)의 정회원인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총회 신학교로 성경 영감과 절대 권위를 신조로 삼고 개혁주의 신학훈련을 통하여 복음적 목회자를 양성하는 정통적 보수 신학교입니다. 역사적인 21세기를 맞이하여 개혁운동을 통하여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고자 하는 사명감에 불타는 신실한 일꾼들을 양성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 특전

- 국내외 저명한 교수진 확보
- 성적우수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특히 목회자, 선교사적 사명감이 투철한 자에게는 선별 심사후 장학금을 지급함)
- 6만여권의 한글, 영문 신학장서를 소장한 도서관이 있음
- 목회학 석사 졸업자는 총회 목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음
- 대학원 과정을 졸업한 여전도사는 본 교단 산하와 그의 기관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음

### 2018년 가을 학기 주.야간 모집학과

대신학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부선교학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대학원	목회학 석사	3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기독교교육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선교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여교역학과	3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 제출서류

- 1 입학원서(본교 소정 양식) 1통
- 2 당회장 또는 목사 추천서 1통
- 3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 증명서 각 1통
- 4 신앙고백서 1부
- 5 명함판 사진(2"×2") 2매
- 6 입학 전형료 30불

### 원서교부 및 접수

- 1 원서 교부처 : 신학교 사무실(퀸즈장로교회 내 2층)
- 2 원서접수마감 : 2018년 8월 31일(금) 오후6시
- 3 입학 시험 : 2018년 9월 1일(토) 오전11시, 면접 오후 2시
- 4 개강 부흥회 : 2018년 9월 4일(화) - 9월 6일(목) 저녁 8시
- 5 문의처 : Admission Office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463-7163

##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장 김성국 박사

###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 인도네시아의 페칼(Pekal)



인도네시아의 주된 섬들 중에 하나인 수마트라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가장 큰 섬이다. 페칼은 북쪽 벵쿠루(Bengkulu) 지역의 남쪽 모코모코(Moko-Moko) 지역에 살고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그들은 테라망(Teramang) 강 유역에 거주

하며 이 지역은 남동쪽의 바리산(Barisan)산맥과 남서쪽의 인도양의 경계에 위치해 있다. 때때로 페칼은 페칼의 다양한 종족이 좀 더 가능한 케타훈(Ketahun) 지역의 남쪽으로 확산한 이래로 넓게는 케타훈(Ketahun)으로 언급되기도 한다. 새롭게 깔려진 트란-수마트라(Trans-sumatran) 고속도로는 서쪽 섬의 연안을 따라 연계돼 있고, 벵쿠루(Bengkulu) 시에서 파당과 남쪽 수마트라와 연결돼 있다. 페칼 지역을 여행할 때, 고속도로는 직접적으로 남쪽 모코모코(Moko-Moko) 지역의 가장 큰 도시인 이푸(Ipuh)의 심장을 가로질러 놓여

있다. 삶의 모습

주된 페칼의 일은 농부지만 건기 동안은 어부로, 우기 동안은 농작민으로 일을 한다. 그들의 일은 전통적인 수공업과 도구에 의해 사용한다. 주된 생산품은 커피와 쌀과 조콜릿과 담배, 감자, 향신료, 땅콩, 그리고 다양한 채소들을 포함한다. 많은 사람들은 시장에서 생산물을 판매한다. 바깥지역의 판매원들은 매주 오직 정해진 날에 그들의 제품을 가지고 온다. 많은 페칼 남성들은 정부 고용인, 선생, 건축업자, 군대, 기술 있고 일반적인 노동자들, 광주리 짜는 사람들, 벽돌생산자들, 소말이들, 그리고 상인들로서 고용되어 있다. 페칼의 여성들은 쌀 농사를 지으며, 고기와 새우를 말리는 일을 한다. 25%보다 적은 사람들이

초등학교 교육을 받았다. 페칼의 집은 전통적 말레이 스타일에 죽마를 올려 세웠다. 옹호와 상호교환을 위해서 마을들은 다양한 카움(Kaums) 또는 종족 그룹으로 조직되어진다. 만약 새로운 사람이 페칼 사이에서 살길 원한다면 그들이 살 곳의 사람들을 위한 카움 뿐만 아니라 다른 카움의 사람들을 위해 닭 음식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렇게 함으로서 그들은 지역 시민으로서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페칼은 그를 그의 종교적, 인종적, 교육적, 경제적 상태에도 불구하고 공평하게 다룬다. 한 새로운 사람은 반드시 카움의 문화와 전통을 따라야 하며 페칼의 구성인으로서 그의 담담해야할 부분을 해야 한다. 페칼은 다른 페칼과 함께 있을 때(일반적으로 집 또는 시장에서) 오직 그들의 유일한 말레이 언어

를 말한다. 또한 시골지역에서의 모임에서 지도자들은 사람들과 함께 나눌 때에 페칼어를 사용한다. 결혼식에서도 지역적 모임들과 문화적 모임에서 만일 페칼이 인도네시아 말을 쓰지 않는다면 그들의 언어를 쓰는 것을 선호한다.

### 신앙

페칼의 대부분 100%가 무슬림이다. 그들은 경건하고 영적인 장소들과 도구들과 관계된 마술적이고 미신적인 신앙을 경멸한다. 그들은 결혼과 환경과, 경작과, 수확과 관련된 전통적인 종교적인 의식을 열기 위해 친척들과 이웃들을 위해 물질적인 필요와 헌신적인 일꾼을 제공한다. 페칼은 비를 부르기 위해, 악령을 쫓기 위해, 부도덕한 것이 행해진 곳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무슬림 의식들을 행사한다. 그들의 부

족한 수입으로부터 그들은 일반적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기부를 하며, 자연적인 재해피해를 위해 돕는다. 그리고 모스크를 세우기 위해 경제적으로 돕는다. 그들은 마을의 필요를 돕기 위해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매우 헌신적이다. 필요로 하는 것들

페칼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그들의 문화 안에서 복음에 대한 이해다. 그러나 그들의 언어로 된 기독교적 자원들이 전혀 없다. 진리를 제외하고는 그들은 이슬람의 영적 노예로 남아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페칼은 그들과 함께 그들의 삶과 믿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많은 기독교인들이 필요하다.

# 인터넷 뉴스

## Internet News

### 열 살 이라크 소녀의 용서

크리스천포스트가 극단적인 수니파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의 잔혹한 테러보다 더 충격적인 열 살 크리스천 소녀의 감동적인 용서를 다



시 보도했다. 소녀가 보여준 용기는 우리 인류에게 필요한 건 중요하고 미움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이라는 걸 보여준다는 것이다. 매체는 최근 'IS를 용서한 어린 소녀의 결심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이라크 출신 마리아의 이야기를 전했다. 마리아의 믿기 어려운 이야기는 중동과 북아프리카 등 5개 지역에 방송되는 기독교 매체인 'SAT-7'이 2014년 내보낸 인터뷰에서 시작됐다. 매일 1500만명 이상이 SAT-7을 시청한다. 이라크 니네베 평원에 있는 기독교 도시 카라코시(Qaraqosh) 출신으로 방송 당시 열 살이었던 마리아는 IS의 잔혹한 테러로 축대밭이 된 고향을 떠나 쿠르디스탄의 어빌 지역으로 피난해 왔다. 자신과 가족이 난민이 되고 평온했던 일상이 엉망으로 변했지만 마리아는 용서를 말했다.

난민 캠프에서 카메라 앞에 선 소녀는 "전 그들에게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다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주길 기도하겠다"고 말했다. 방송 진행자가 이렇게 너와 가족을 접어서 쫓겨나도록 한 그들을 정말로 용서할 수 있느냐고 묻자 작은 소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네"라고 대답했다. 마리아는 또 마태복음 5장을 인용하며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전했다.

소녀의 인터뷰 영상은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다. 용서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 지 알리는 계기가 됐다. SAT-7의 렉스 로저스 북아메리카 대표는 "정말 놀라운 일"이라면서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용서"라고 극찬했다. 마리아의 인터뷰는 아랍어나 터키어, 페르시아어 등으로 번역돼 퍼졌다. '알아라비아' '유7' 등 아랍계 방송들도 인터뷰를 소개했다. 유7은 특히 "소녀의 말을 들은 모든 이들이 충격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로저스 대표는 "중동과 북아프리카 등에서 복음을 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역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알리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 아버지 피살, 아들 폭행실형, 딸...그들은 크리스천

아버지는 살해당했다. 딸은 결혼을 강요당했다. 가족들은 무차별 폭행당했다. 아들은 눈을 맞아 실명했다. 파키스탄에서 선량한 사람들을 겨냥한 폭력이 잇따르고 있다. 가해자는 무슬림이고 피해자는 크리스천이다.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인 국제기독교연대(International Christian Concern-ICC)는 28일 파키스탄 곳곳에서 무슬림들의 크리스천을 겨냥한 폭력사태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최근 발생한 사건들을 알렸다. 지난 2일 파키스탄 펀자브주의 라호르에서는 세 자녀의 아버지인 비키 마시가 무슬림이 쏜 총에 맞아 숨졌다. ICC에 따르면 마시는 결혼 기념 파티를 준비하려고 무슬림 친구 무하마드 알야스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가 변을 당했다. 일야스는 마시에게 경멸의 욕설을 퍼부은 뒤 '교육 좀 해야겠다'고 말했다.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벌어진 뒤 마시는 복부에 총상을 입고 사망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 16일 뒤에는 또 다른 크리스천 가

족이 봉변을 당했다. 아버지 엘빈 존은 열아홉 살 딸을 무슬림 남성과 결혼시키라는 요구를 거절했다가 온 가족이 폭행을 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10개월 전 이사를 왔다는 존은 부활절 이후 크리스천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무슬림 이웃들로부터 미움을 받았다. 존은 "무슬림 이웃들이 열아홉 살 딸 아리사를 타겟으로 삼았다"면서 "무슬림들은 길거리와 시장에서 제 딸을 쫓아다녔고 개종하면 밝은 미래가 보장된다고 말하는 등 기독교 신앙을 욕보였다"고 말했다. 존이 지역에 사는 무슬림 지도자에게 불평하자 엉뚱하게도 공격이 이어졌다.

여러 명의 무슬림들이 지난 18일 밤 11시쯤 존의 가족을 공격했다. 아들 비크람은 무슬림들에게 맞아 왼쪽 눈을 다쳐 다신 앞을 볼 수 없게 됐다. 무슬림들은 집안 살림을 다 때려 부숴다. 존 가족은 지금 집을 떠나 친척집에 피신한 상태다.

파키스탄에서 크리스천이 무슬림에게 공격받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지난 2일 펀자브주 카스르의 한 마을에서는 50여명의 무슬림들이 새로 지은 교회를 지키려는 크리스천 수심 명을 폭행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폭행사태로 열여덟 살 청년이 입술에 여덟 바늘을 꿰매는 상처를 입었고 10살 사내아이는 완골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파키스탄은 기독교 박해국으로 악명 높다. 오픈도 어선교회와 발표한 '2018 기독교 박해 순위'를 보면 파키스탄은 북한과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수단에 이어 상위 5위에 올랐다.

###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선생님 이야기

"난 오늘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기적을 안겨줄 수 있을까? 난 오늘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매일 아침 이런 고민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교사가 있다. 그녀의 작은 선행은 페이스북에서 입소문을 타더니 미 전역으로 방송됐다. 그리고 또 다른 기적 같은 일들이 이어지고 있다. 주인공은 미국 시카고에 사는 여교사 라운다 카터. 카터는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부르렴. 내가 도와줄게"라고 말하곤 했다.

카터는 어느 날 밤 페이스북에 들어갔다가 3년 전 허피고등학교에서 제자로 만났던 라레사 플러머(18)와 채팅을 하게 됐다. 플러머가 옛 선생님께 고민을 털어놓았다. 취업박람회 가야하는데 태어난 지 3주된 아이를 데리고 갈 방법이 없다고 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자니 아이의 건강이 걱정이 됐다.

"갓난아이를 안고 버스를 타게 할 수는 없었어. 내가 차로 태워줄 테니 걱정 말라고 했죠." 카터는 지난 23일 자신의 차로 플러머를 박람회장까지 태워주었다. 그리고 옛 제자가 박람회장을 돌며 일자리를 알아볼 때까지 차 안에서 제자의 갓난아이를 안고 돌았다. 그 뿐만 아니다. 플러머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지 각종 기관에 대신 문의했다.

카터는 갓난아이를 안고 있는 영상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우리 교사는요 이렇게 교실 밖에서도 학생들을 도울 수 있다고요. 제 제자는 아직 어린 10대 엄마잖아요. 그녀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볼까 해요. 교육자로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고요. 물론 저 혼자 다 해줄 수 없다는 걸 압니다."

카터는 10대 미혼모인 제자가 희망을 잃지 않길 바랐다. 선생님의 간절함이 통했을까. 카터의 영상은 페이스북에서 입소문을 타고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며칠 만에 1만명 이상이 영상을 시청했다. 감동을 받았다는 댓글이 쏟아졌다. 네티즌들은 영상을 여기저기로 퍼날랐다.

'선생님의 참된 사랑' 이야기는 CNN과 NBC방송 등을 통해 미 전역으로 알려졌다. 기쁜 일이 이어졌다. 플러머가 일자리를 얻었다. 카터는 자신의 선행이 알려진 뒤에도 언제나 다른 사람을 위해 하루하루를 살겠다고 다짐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중얼거려요. '오늘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기적을 가져다줄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이 필요한 자리에 내가 있을 수 있을까'라고 말이지. 그건 정말 아무것도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힘든 일도 아니죠. 그냥 제가 할 일을 하면 되거든요."

자신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지만 네티즌들은 카터를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다.

### 미 국무부, 북한 여행금지 1년 더 연장

미국 국무부가 자국민의 북한 여행금지 조치를 내년 8월 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로이터통신이 30일 보도했다. 1년 연장 통지는 31일 연방 관보에 공식 게재될 예정이다.



미국 정부는 북한에 17개월간 억류됐던 미국 대학생 오토 웬비어가 혼수상태로 귀국한 후 숨지자 지난 해 9월 1일부터 여행 금지조치를 내렸다. 이후 지난 6월 북-미 정상회담이 열려 양국 관계가 개선되면서 여행금지조치도 해제될 것인지가 관심거리였다.

로이터통신은 "북-미 간 긴장이 완화됐지만 미국 정부는 아직 북한에서 자국민이 체포돼 장기간 구금될 위험을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웬비어는 2016년 1월 북한을 여행하던 중 선전물을 훔치려 했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 체포돼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미국은 6차 회담 수석대표인 조지프 유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북한에 보내 웬비어의 석방을 요구했다. 북한은 유 특별대표 방북 하루만인 지난해 6월 13일 웬비어를 풀어줬다.

그러나 웬비어는 혼수상태로 귀국해 옛새만에 사망했다. 북한은 그가 보톨리누스 중독증에 걸린 뒤 수면제를 복용했다가 혼수상태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웬비어의 가족들은 지난 4월 웬비어가 사망한데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며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 캐버노 미대법관 지명자 인준청문회 첫날부터 진통

브렛 캐버노 미국 연방대법관 지명자는 4일 "개인적 견해가 아니라 오직 법률에 따라 판결하는 대법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캐버노 대법관 지명자는 이날 상원 법사위에서 열린 첫날 인준청문회에 출석해 "홀륭한 재판관은 소송 당사자나 정책에 편되지 않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중재자 같은 심판이 되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개인적 또는 정치적 선호에 따라 판결하지 않을 것"이라며 "나는 진(禱)원고도 진피고도 아닌 진법을 판사"라고 강조했다.

캐버노 지명자는 "만약 상원의 인준을 통과한다면 대법관 9명 중 1명의 팀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결하는 데 전념을 다 할 것"이라며 "항상 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2006년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에 의해 판사로 임용된 보수 법조인인 캐버노 지명자가 합류하면 연방 대법원은 보수 5명, 진보 4명으로 무게추가 '오른쪽'로 기울게 된다.

그에 대한 인준 저지 방침을 세운 민주당과 이에 맞서는 공화당은 청문회 첫날부터 날 선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청문회가 시작되자마자 자료제출 미흡을 이유로 청문회 연기를 주장했다. 민주당의 리처드 블룸펠드(코네티컷) 의원은 "필요한 자료에 대한 접근 자체가 거부됐다"면서 "우리를 인정하지 않겠다"며 청문회를 그만두겠다"고 목청을 높였다.

같은 당 에이미 클로부처(미네소타) 의원은 "다른 자료 4만2천 건은 어젯밤에야 받았다"면서 "자료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니 청문회를 연기해 달라"고 거듭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공화당 소속인 척 그레슬리(아이오와) 위원장은 "캐버노 지명자의 자질을 점검할 시간은 충분히 있고, 내 보좌진은 4만2천 건의 자료를 벌써 다 읽

었다"면서 연기 요청을 거부했다. 그러자 캐버노 지명자 인준에 반대하는 일부 방청객들은 "인준청문회가 아니라 탄핵 절차를 진행하라", "반대표를 던져라" 등 고함을 지르다 경찰에 의해 청문회장에서 퇴장당하기도 했다.

진보 진영은 캐버노 지명자가 인준될 경우 미 전역에서 낙태를 합법화한 1973년 연방 대법원의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이 뒤집힐 것을 우려하고 있다.

캐버노 지명자에 대한 청문회는 오는 7일까지 진행된다. 인준안은 상원 전체회의에서 50표 이상인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통과된다. 현재 상원 의석은 공화당 50석, 민주당(무소속 포함) 49석이어서 공화당 내 이당표가 없으면 인준안은 통과될 수 없다.

### 추문·퇴위 압박받은 교황 '침묵·기도가 나갈 길'

가톨릭 사제의 성(性) 학대를 은폐했다는 논란 속에 공개 퇴위 요구를 받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기도회와 침묵만이 유일한 길이라며 대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AP통신에 따르면 프란치스코 교황은 3일 오전 미사 강론에서 "선한 의지가 부족한 사람들, 추문을 좇는 사람들, 분열과 파멸을 따르는 사람들, 실령 그런 사람들이 가족 중에 있다 해도 기도와 침묵만이 나아갈 길이다"라고 말했다.

이탈리아 출신인 카를로 마리아 비가노 대주교는 지난달 26일 가톨릭 보수 매체에 보낸 서한에서 교황이 사제들의 성 학대 사건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을 징계하지 않았다며 사퇴를 촉구해 파문을 일으켰다.

비가노 대주교는 자신이 2013년 교황에게 시어더 매캐릭 전 미국 추기경의 잇따른 성 학대 의혹을 보고했다면서 사제의 아동 성학대에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던 교황을 사건 은폐의 공모자라고 비난했다.

워싱턴 DC 대주교를 지낸 매캐릭 전 추기경은 10대 소년과 낮은 직급의 사제들을 성적으로 학대했다는 의혹과 비가노가 거세지자 올해 7월 사직서를 냈다.

교황은 비가노 대주교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날 강론은 그의 주장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교황은 "신께서 언제 침묵하고 언제 말해야 할지를 분별할 수 있는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기를 바란다"며 "일터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이것은 삶에 모두 적용되는 원칙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NBC 방송에 따르면 가톨릭 보수파에 속하는 찰스 차콧 미국 필라델피아 대주교는 10월 3일부터 28일까지 바티칸에서 열리는 시노드(주교대의원회의)의 주제를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올해 시노드는 청년을 주제로 하고 있지만 차콧 대주교는 가톨릭 보수매체에 보낸 서한에서 교황이 청년들에 관한 문제를 다룰 신뢰를 얻지 못했다며 주교들의 삶에 관해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빌 게이츠, 4억6천만 달러 또 기부...

마이크로소프트(MS) 공동 창업자 빌 게이츠가 앞으로 5년간 미국 내 저소득층·소수계층 학생들의 대학 진학을 돕는 학교 프로그램에 4억6000만 달러(약 5100억원)를 직접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게이츠와 아내 멜린다가 설립한 자선재단 '빌 앤드 멜린다 게이츠 재단'은 학생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일선 학교에 기부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AP통신이 28일 보도했다.

재단은 빈곤지역 공립학교 및 관련 단체에 지원금을 제공하고 일부는 미국식 자율형 공립학교인 차터스쿨에 보내기로 했다. 재단은 1차로 13개주 빈곤지역에 있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19개 프로그램에 1억 달러를 지원한다.

지원금은 학습능력 향상뿐 아니라 취약계층 학생들이 정학이나 퇴학 등 위험 요인에 대응하도록 돕는 데도 쓰일 예정이다. 재단은 지원 대상자가 대학에 진학하는 과정에도 도움을 주기로 했다.

# 안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한미교회사연구소 소장)

### 58. 마주흥(1866-?)

1920년 미국 인구조사에 따르면 마주흥은 1866년경에 한국에서 태어나 30세가 되던 1905년에 가족은 한국에 두고 혼자 이주했다. 신한민보에는 마주흥이 1910년 7월에 목경(멕시코시티)에 거주했다. 처와 통신에 따르면 그는 목경(멕시코시티)에 두류하였고, 8월 17일에 처와 지방에 내류하였는데 목국(멕시코) 구역 시절원이었다.

목사가 축도하여 예배를 마쳤다. 제 2부에서 어린 학생들의 '고요한 밤'을 부를 때 산타클로스가 들어와서 각 사람에게 예를 나누어 주었다. 밤 9시에 폐회했다.

마주흥은 1929년 1월에 내지 수재 구

1929년 9월 17일 오전 9시에 미국 남감리교회 연회가 있었다. 상황 인근 버클리 백인교회인 웨트 감리교회당 응접실에서 해이 감독의 사회로 열린 연회에서 각 지방 목사 보고, 전도사 보고, 평신도 인도자 보고가 있었는데 마주흥은 리들리 교회 보고를 하였다. 1929년 출석 교인은 60여 명이였다. 당시 전도사로는 오클랜드 교회 노순태, 리들리 교회 권중흡 그리고 스타튼 교회 김필권 등 3명이 더 있었다.

본 연회는 마주흥으로 하여금 1930년에도 전도사로 계속 시무키로 했다. 그리고 리들리 교회 한석원 목사가 중가주의 달라노와 테프트에 거주하는 동포를 위임 순행하기로 한만큼 권중흡과 더불어 마주흥도 동행하면서 전도했을 것으로 본다.

1929년 10월 이승만 박사 환영회가 있었다. 그달 21일 밤 7시에 다뉴바 한인장로교회 예배당에서 리들리, 팔리어, 다뉴바에 거주하는 동포들이 모인 환영회를 연 자리에서 마주흥은 담사를 맡았다. 당시 순서는 아래와 같았다.

이 박사를 출영위원들이 인도할 때에 리들리 중학생 권형식이 주악 순서를 맡았고, 애국가를 함께 부른 후 다뉴바 교회장로 이치완이 기도하고, 리들리 중학 영

오는 일 년 동안에 많은 축복이 내려 새로운 일이 일어나기를 힘쓰자'고 강조한 후 '해외에 있는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감사를 받았으니 지금 조국에서 입을 것과 먹을 것과 있을 곳이 없이 추운 겨울에 삶의 길을 찾는 우리의 형제를 돕자'고 감격과 눈물로 역설하였다. 이후 감사절 헌금 순서가 있었고 이 헌금은 본국에 보내기로 했다.

제 3부 순서는 예배를 마친 후 마주흥의 집에서 모여 맛있는 연겟집에 기과의 간략한 연회가 있었다. 신한민보는 "우리 각 교(교회)에서 감사절을 성대히 지켜 내지에서 굶고 있는 형제를 생각하자"라는 제목을 달아 이날의 감사절을 보도했다. 이날 기부한 동포를 위한 구휼금은 총 46달러 30센트였고, 마주흥은 3달러를 기부했다.

1929년 성탄절은 24일 오후 7시 반에 성대하게 거행했다. 이날 마주흥은 성경 병독 순서를 맡았다.

권중흡 전도사의 사회 하에 권은식과 권형식이 '거룩한 밤'으로 하모니가 병창이 있고 난 뒤 찬송가 63장을 다같이 불렀고, 마주흥이 누가복음 2장 8-20절을 병독하고 이치완 전도사가 이사야서 9장 1-7절을 병독한 후 오창곤 전도사가 기도했다. 권형식이 '고요한 밤'을 독창한 후

른 후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한 목사가 축도하였다. 정서종은 송도 남문밖 메주(?) 우물골에서 태어나 고향에서 수만 리 떨어진 미국에서 영별할 때 친구들은 물론 일반 동포들도 뜨거운 동정의 눈물을 흘리지 않은 이가 없었다고 한다. 마주흥은 1달러를 부조했다.

1930년 4월에 모인 미국 남감리교회 지방회 보고에 따르면 1929년 7월부터 1930년 3월까지 리들리 구역에는 세 교회가 있었고 총 75명이 등록하였고, 출석은 50명이였다. 그해에 여자 한 명이 세례를 받았다. 총 헌금액은 966달러였고, 이 중에 한석원 목사를 위한 155달러 헌금도 포함되어 있다. 리들리한인교회가 목회자 사례비를 스스로 부담하는 삼자 운동을 실천하려고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다.

#### 목사 안수

1930년 2월 27일 마주흥이 미국 남감리교 거주 동양선교부 감독 윌리엄 A. 데비스 목사의 주례하에 목사 안수를 받았다. 한인사회에서는 목사로 알려졌지만, 그는 감독이 안수한 선교사였고, 본 동양선교부의 목사 명단에 오르지는 않았다. 그런데 그는 조만간에 하와이 한인기독교회 목사로 연빙되어 종교 사업에 종사할 계획이었다.

다음 달인 3월 16일 오후 1시30분에 데비스 목사의 사회로 리들리 예배당에서 미국 남감리교 중가주 구역의 제1계삭회에 그가 참석했고, 다음 달인 4월에 개최한 미국 남감리교회 각 구역을 총괄한 지방회에도 그가 참석했다. 이날 지방회는 마주흥이 하와이로 전도가는 일을 감사하였다. 그는 같은 달에 상황 한인교회 건축헌금으로 3달러를 헌금했다. 그와 함께 리들리 한인교회 교인들이 총 54달러 50센트를 헌금하였다.

1930년 6월 1일 상황 한인교회 낙성식에 그가 "신건축의 성단을 축하하며 일반 교우들의 건강을 비나이다"라는 내용의 축하 전보를 보냈다.

#### 하와이

그런데 하와이 호황(호놀룰루) 한인기독교회의 상황은 전혀 달랐다. 민찬호 목사가 1929년 4월 하와이 한인기독교회를 사임한 후 안시흥 목사가 임시로 강단을 맡았는데 그해 12월 22일 주일에 이용직이 부임하였다. 마주흥이 목사안수를 받고, 하와이로 전도가는 일을 감사할 때는 이용직이 본 교회를 섬기고 있었다. 1931년 8월 호놀룰루 민단 주최로 밀러 길에 있던 총단관에서 50여 명이 모여 국치기념식을 거행하였을 때 마주흥도 연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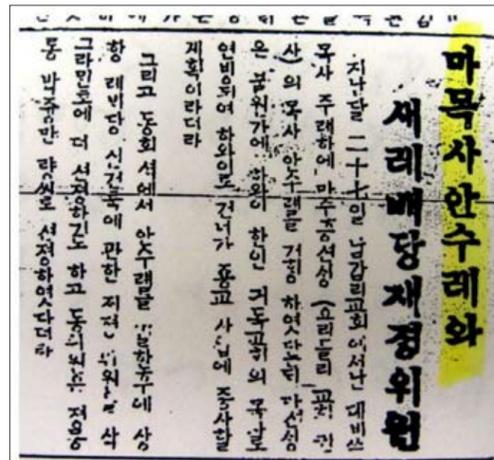
마주흥이 언제 호황으로 이주했을까? 마주흥이 상황 한인교회 낙성식에 축하 전보를 보낸 1930년 6월에서부터 국치기념식 행사가 있던 1931년 8월 사이에 호황에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1년 2개월 간 호황에서 선교 사역에 종사하였다면 어느 교회에서 하였을까?

#### 하와이 라나이 교회

호황 국치기념식 행사가 있는 지 2달이 되던 1931년 10월 마주흥은 하와이 라나이 지방 목사로 파송을 받았다. 그의 나이 65세 때다. 이 지방에는 한인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가 처음으로 한인교회를 개척하게 된다. 본 교회는 교민 지방단, 부인 구제회 등이 연합하여 마주흥 목사 환영회를 열었다. 1932년에도 라나이 교회에 그의 파송이 허락되었다. 그의 라나이 목회 기간은 약 2년간이다. 하와이 라나이 목회 후의 마주흥의 발자취를 발견하기란 쉽지 않다.

damien.sohn@gmail.com

## 멕시코 경유 1919년 북가주 도착 추정...다뉴바서 과일농사 리들리한인교회 전도사로 자비량 사역...각종 기부 구제에 앞장 1930년 목사안수 받고 65세에 하와이 라나이 지방목사로 파송



신한민보, 1930년 3월 6일

한석원 목사가 '예수의 오심'이라는 제하의 설교를 하고 기도했고, 찬송가 1장을 다같이 부른 후 한 목사가 축도했다.

이로서 1부 예배를 마치고 나서 2부에 들어 산타클로스가 어린 학생들 '고요한 밤'을 노래할 때 들어와서 각 사람에게 예를 나누어 주었다. 9시에 폐회했다.

1930년 1월 1일부터 5일까지 강사를 초청하여 다른 제목으로 설교를 맡겨 신년기도회를 개최했다. 1일 밤에는 마주흥이 '믿음과 생활'을, 2일 밤에는 다뉴바의 이살음이 '민족과 독립정신'을, 3일 밤에는 오창곤이 '은혜와 감사'를, 4일 밤에는 이치완이 '금주와 금연'을, 마지막 날인 5일 아침에는 한석원이 새해의 표어인 '예수여 오소서'를 그리고 그날 밤에는 권중흡이 '하나님의 교회'를 설교했다.

정서종이 1930년 1월 9일 오전 8시에 여관에서 향년 47세로 세상을 떠났다. 오랫동안 체병으로 신음 고통 받다가 별세를 하였는데, 마주흥 전도사가 이치완 전도사와 더불어 한석원 목사를 도와 장례식을 행했다. 많은 친구가 모여 마지막 작별의 길을 묘지에서 하였는데 순서는 아래와 같았다.

일동이 찬송가 260장을 합창한 후 한석원 목사가 예문을 낭독하고 마주흥 전도사가 3편 39편을 낭독한 후 이치완 전도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낭독하고 권형식이 특별찬송 순서에서 '하늘가는 밝은 길'을 불렀고, 한 목사가 기도하였다. 하관한 후에 묘지에 나가서 한 목사가 예문을 낭독하고 찬송가 73장을 다같이 부

제금으로 4불을 기부했는데 리들리 동포들이 낸 총액은 71달러 50센트였다.

1929년 1월 27일에 미국 남감리회 지방회가 리들리 한인교회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마주흥은 자비량 전도사로 선임되었다. 그 외에도 전도사는 오창곤과 권중흡이 더 있었다. 본 교회 목사는 한석원이었다. 그날 마주흥은 김자혜와 강천명 등과 함께 재정부 위원으로도 선정되었는데 위원장은 김 탁이었다. 그해 6월 중가주 스타튼에서 모인 미국 남감리교 구역대회에 마주흥이 참석했다.

1929년 6월 23일 주일에 리들리한인교회는 학생 중 중학교와 소학교 졸업생 축하회를 킹스 강변에서 있었는데 마주흥 전도사가 예를 수여하는 순서를 맡았다. 이날 졸업생은 리들리 중학교를 졸업하는 김동옥 (김형순의 장녀)과 김영애 (김장연의 처녀), 다뉴바 중학교를 졸업한 오메리 (오창곤의 처녀), 리들리 소학교를 졸업한 권현식 (권영복의 장녀), 윤복희 (윤병구의 처녀) 그리고 다뉴바 소학교를 졸업한 오엘나이 (오창곤의 삼남) 등 6명이였다.

축하회 순서를 통해 당시의 축하회 상황을 보게 된다. 오창곤의 사회로 찬송가 100장을 부른 후 이치완이 기도하고 권중흡이 성경 마태복음 18장 1-20절을 낭독한 후 찬송가 41장을 불렀고, 오창곤이 기도한 후 한석원 목사가 '새 인물'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찬송가 158장을 부른 후 위에서 언급한 대로 마주흥 전도사가 예를 수여했다.

예물은 본국에서 내온 탐골 공원에 있던 거북으로 만든 책 세는 것을 한 개씩 나누어 주고 그 거북에 대한 역사와 삼일절에 관계된 사실까지 설명하였다. 찬송가 1장을 부른 후 한석원 목사가 축도함으로써 졸업예배를 마쳤다. 준비해 온 한국 음식을 '수풀이 자욱하고 맑은 물이 흘러 내리는 강변에서 먹고' 오후 4시경에 각자 해산했다. 이날 축하식에 마주흥은 3달러를 기부했다.

옥이 바이올린을 연주한 후 리들리 소학교 권은식과 김에바가 '우리의 인도자'라는 환영가를 불렀다. 주석이 취지를 설명한 후 다뉴바 여학생들이 '즐거운 인생'을 합창했고, 다뉴바 목사 이살음이 환영사를 하였으며, 김덕세가 '망향가'를 독창하고, 이 박사가 연설하였다. 이후 김떼세 외 이의정이 '대한반도 사랑'을 합창하고 마주흥의 담사가 있고 난 뒤 환영회를 마쳤다. 1부 순서에 이어서 2부 다과회를 가졌다.

1929년의 추수감사절은 성대했다. 먼저 이충기가 11월 28일 오후 5시에 리들리 여관에서 큰 연회를 베풀었다. 동포 40여 명이 모인 가운데 한석원 목사의 기도 후 김형순이 보낸 터키 세 마리를 이흥섭이 장만한 터키 요리를 먹은 후 진영규와 최학선의 '유산단가'를 비롯한 여흥이 있었다.

2부 순서는 예배당에 모여 감사절 예배를 드렸다. 찬송가를 노래한 후 권중흡이 기도하였고 한석원 목사가 '감사와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였다. '올해보다

2일 밤에는 다뉴바의 이살음이 '민족과 독립정신'을, 3일 밤에는 오창곤이 '은혜와 감사'를, 4일 밤에는 이치완이 '금주와 금연'을, 마지막 날인 5일 아침에는 한석원이 새해의 표어인 '예수여 오소서'를 그리고 그날 밤에는 권중흡이 '하나님의 교회'를 설교했다.

정서종이 1930년 1월 9일 오전 8시에 여관에서 향년 47세로 세상을 떠났다. 오랫동안 체병으로 신음 고통 받다가 별세를 하였는데, 마주흥 전도사가 이치완 전도사와 더불어 한석원 목사를 도와 장례식을 행했다. 많은 친구가 모여 마지막 작별의 길을 묘지에서 하였는데 순서는 아래와 같았다.

일동이 찬송가 260장을 합창한 후 한석원 목사가 예문을 낭독하고 마주흥 전도사가 3편 39편을 낭독한 후 이치완 전도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낭독하고 권형식이 특별찬송 순서에서 '하늘가는 밝은 길'을 불렀고, 한 목사가 기도하였다. 하관한 후에 묘지에 나가서 한 목사가 예문을 낭독하고 찬송가 73장을 다같이 부

### 푸/른/초/장

#### (4면에서 계속)

이는 진정 다윗왕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최선, 최고의 총정입니다.

3.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36, 37절).

바르실래는 자신이 승리하여 환국하는 다윗을 다시 찾아온 목적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보상이나 칭찬을 들으려 온 것이 아니고, 오로지 요단을 건너는 왕을 호위하며 그 일행을 배웅하려는 것 뿐이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그리고 당시

히브리인들의 전통적 관습(창49:29-31)인 부모가 묻힌 묘지 곁에 묻히고 싶다는 조상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영원한 분향에 대한 목적이시이 분명했습니다. 즉 죽음의 길도 예비하는 미래지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목적이 수단을 신성하게 합니다(고테).

이처럼 '거절의 지혜'를 발휘한 바르실래가 받은 상금은 무엇일까요?

'김함'은 바르실래의 아들입니다(왕상 2:7). 왕과 나라를 사랑하는 성실하고 충직한 바르실래가 왕에게 자기 대신으로 자신 있게 천거할 정도라면 김함은 아버지의 좋은 점을 모두 갖추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를 수용했고, 다윗과

함께 다윗왕의 측근에서 20년에 가까운 긴 세월 정사를 도우며, 왕의 모사(謀士, a tactician)요 책사(策士, a strategist)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윗은 죽음을 앞에 두고 그동안 총지했던 '김함'과 그 형제들에 대한 보상을 각별하게 슬로몬에게 부탁했습니다(왕상 2:7). 대(代, a generation)를 이어서 삶과 신변의 보장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영광과 권세가 보장된 상황에서도 국익을 위하여, 왕의 현명한 정치를 위하여 거절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 그리고 지혜를 발휘한 바르실래의 부와 명예, 그리고 권력에 대한 '거절의 지혜'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이 됩니다. 삶의 목적이 뚜렷한 사람,

소망 중에 사는 사람은 자신의 유익보다 더 넓은, 더 큰 유익을 위한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 자기를 헌신합니다. 예셀나무를 심은 아브라함처럼(창21:37).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  
"욕심이 임대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약1:15)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욕심 없는 바르실래. 그래서 하나님 앞과 왕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모든 명예와 부귀, 권세를 뒤로 하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간 바르실래의 모범이 우리 모두의 삶의 방법과 자세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 (3면에서 계속)

우리는 로봇이 아닌 사람과 일한다. 결국 내가 커뮤니케이션하는 사람을 얼마나 잘 파악하고 이해관계를 풀어나갈 수 있는냐가 중요하다.

당연히 논리적인 사고, 창의력, 업무 능력 등은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한 필수 요소지만 가족보다 더 오랜 시간 부대끼고 시간을 보내는 동료와 상사들의 심리와 의중, 이해관계와 원하는 것 등을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할 때도 있다.

심리와 의중을 파악하는 게 가장 어렵다. 특히 이중 뜻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심리 파악 등은 통하지 않는다.

# 리더십 코멘터리 (72)

손동원 박사  
(미드웨스트대학교 교수, 리더십학자)



## 교만 바이러스

교만은 버리고 피하며 물리쳐야 할 심리 상태

교만이란 자신의 부족한 점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자신을 높여 대단하고 훌륭한 존재라고 여기는 마음의 상태를 말한다.

여기서 자신을 높인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무절제하고 불합리한 자기 존중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지나친 자기에(narcissism)와 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잠16:18)는 말씀처럼 성경은 교만에 대해 좋지 않은 개념으로 설명한다. 더 나아가 성경은 인간의 주제넘음과 자찬을 전적으로 반대하고 있으며 이를 죄로 인식하고 자신이 성취할 수 있는 이상의 자람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다. 따라서 영적리더에게 있어서 교만은 버리고 피하며 물리쳐야 할 심리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 Kempis)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서 "자신의 겸손을 고백하기 전에는 당신의 영적 생활에 커다란 진보를 절대로 가져올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신적으로 교만한 사람을 매우 긴장하게 하고, 피곤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왜냐하면 자신을 어떤 면으로든 내세우지 못해서 연결되는 사람은 많은 정신적인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기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든지 본능적으로 자신을 내세우고자 한다. 영적리더로서 인간의 본능을 억제하고 겸손하게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자신이 배운 것, 자신이 이루어 놓은 것, 자신의 명예 등 자신의 것이 자주 의식적으로 표출되려고 한다면 그것은 리더로서 문제가 있는 것이다.

교만 바이러스는 영적 장애자를 만든다

성경은 교만과 자람은 악한 자의 특징으로 분류하고 있다. 교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에게 임하는 은

혜를 막아버리고 영적으로 리더를 성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무서운 바이러스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교만 바이러스는 리더를 영적 장애자로 만들어 버린다. 알프레드 아들러(Alfred Adler)는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열등감에 대한 보상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우월감을 갈망하게 된다고 생각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부름 받은 소명자로서 살아야 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열등의식을 갖거나 교만해진 안 된다. 이 두 가지 요소는 모두 영적리더를 실족하게 만들고 결국엔 패망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라인홀드 니버(Reinhold Niebuhr)는 인간은 교만한 존재인데 인간이 갖는 교만에는 네 가지 종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 교만은, 지적인 교만이다. 배운 사람은 배운 것이 교만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모르면 모르기 때문에 겸손하지만 배우면 알기 때문에 가만히 있기가 어려운 법이다. 두 번째 교만은, 영적인 교만이다. 영적으로 뭔가를 체험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교만해 있다. 세 번째 교만은, 권력적인 교만이다. 권력을 쥔 사람, 권력이 높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교만한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네 번째 교만은, 도덕적 교만이다. 도덕적으로 비교적 깨끗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교만한 것이 일반적이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 교만을 더 말한다면 그것은 집단적 교만이 될 것이다. 인간은 어떤 집단에 속했는가

에 따라서 자신의 위치가 달라진다고 생각해서 집단적 교만을 가지게 된다. 당신은 영적리더로서 교만에 대해 점검할 점이 무엇인가?

교만 바이러스에 감염된 리더는 파멸한다

교만의 폐해는 분노이다. 사람이 교만하면 쉽게 분노하게 된다. 자신의 교만을 꺾는다든지 받아주지 않을 때는 쉽게 분노하게 되고, 아주 행편없는 사람이 되어 버린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분노의 저변에는 반드시 교만이 깔려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교만을 가지고 있으면 마음의 상처를 받기 쉽다. 교만한 사람은 늘 자신만만한 것 같고, 당당한 것 같고, 떳떳한 것 같고, 강한 것 같으나 가장 상처가 많은 사람이다. 그 상처가 위장되었을 뿐이다. 교만한 사람은 치료받기 전의 나이만 장군과 같은 사람이다. 겉모습은 화려한 훈장이 달려있고, 지위가 높은 사람으로 보이지만 겉으로 가려진 옷 속에는 병으로 썩어 내세우는 고름과 상처가 가득 찬 사람이다.

교만은 큰 짐을 짊어진 것과 같아서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리더로서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 악한 영

것이다. 리더의 마음은 노력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교만으로 향하게 되어 있다. 중력의 법칙이 땅에서 모든 것을 끌어내리듯이 우리 마음속에는 죄의 중력이 우리의 인격을 끌어당기고 있다. 교만이란 자기중심적 사고이다. 무엇이든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다. 용기 있는 리더, 학식이 높은 리더도 좋지 않지만 지금은 역사를 바꾸는 진정한 리더십을 가진 겸손한 리더가 필요한 때이다.

겸손하고 순종하는 영적 리더가 되라

리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려면 겸손해야 한다. 자신의 마음을 믿는 리더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현대문명시대에 가장 으뜸으로 사악한 오류는 영적교만이다. 교만이 무서운 것은 다른 어떤 타락보다도 구별해내기 어렵다는 점에 있다. 교만이라는 영적인 질병이 먼저 치료되기 전에는 다른 어떤 영적인 질병도 치료될 수 없다. 교만보다 더 자기당착에 빠지게 하고 찾아내기 힘든 것이 없기 때문이다.

영적 교만의 본질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지나친 확신과 그러한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것을 다 악한

## 악의 축 교만은 분노 만들고 마음의 상처 받게 해 겸손은 인간의 선천적 성품 아닌 배워야 하는 것

은 교만 바이러스에 감염된 리더를 교만의 노예로 만들어 이리저리 끌고 다니다가 결국 파멸에 이르게 만든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본질적으로 교만한 존재이며 리더를 교만하게 만들고 결국엔 리더를 쓰러뜨리려는 것이 그의 임무이다.

역사를 바꾸는 진정한 리더십은 겸손

악한 역사의 배후에는 리더의 교만이 있다. 진정한 악의 축은 교만이다. 교만한 리더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들어간다. 교만한 리더는 자신이 악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 예수의 리더십은 겸손의 리더십이다. 예수께서는 자신에게로 와서 배워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것은 설교하는 법이나 기적을 일으키는 법이 아니라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매고 내게 배우라"(마 11:29). 예수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워야 한다. 겸손은 인간의 선천적 성품이 아니고 배워야 하는

것으로 배재해 버리는 것이다.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며 어떠한 가르침도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선의의 충고를 항상 우습게 생각한다.

반면에 겸손한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아서 쉽게 충고를 받아들인다. 그는 자신을 평가하는데 매우 주의 깊으며 자신이 얼마나 빗나가기 쉬운 존재인가를 민감하게 생각한다. 만일 자신이 빗나간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되면 그는 그 문제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연구하며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힘쓴다. 교만한 리더는 속마음과 다른 가식된 표정과 행동을 하지만, 겸손한 리더는 소명에 따라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며 천국을 향해 주님과 동행한다. 나는 이 글을 읽는 당신이 모든 것의 나중이 되려하고, 양보하며, 따르고, 순종하는 영적리더가 되기를 소망한다.

sondongwon@gmail.com

## 사·모·칼·럼



장사라 사모  
(텍사스 빛과소금의교회)

## 존중의 삶

요즘은 왠지 새벽에 더 일찍 눈이 떠져서 아직 아무도 오지 않는 시간에 교회로 향하며 새 하루의 충만한 생명력을 만끽해 본다.

요즘 들어 자주 느끼는 것은 내가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한 일이라도 남에게 폄하 되는 경우가 많다. 나이 들수록 참 삶의 지혜가 필요한 것 같다. 누군가가 카톡으로 보내준 '우동 한 그릇' 이야기 속에서 남루한 한 어머니와 아이들 두 명이 우동가게에 들어와서는 미안한 마음으로 우동을 한 그릇만 시킨다. 그래서 주인은 우동 한 그릇 속에 많은 양을 담아 그들에게 만들어 주는데 그걸 곁에서 본 그의 아내가 '아, 그냥 우동 3그릇을 공짜로 줘시다' 그럴 때 주인은 '모르는 소리! 그러면 이 분들이 다시는 우리 가게에 우동 먹으러 못 와요'라고... 아! 그렇구나. 나라면 분명히 우동 세 그릇을 갖다 주었을 텐데... 그런 지혜가 없는 거다. 어떤 사람은 추운 겨울에 일부러 얇은 옷을 입어 본다... 추위에 떠는 사람의 입장이 되어 보려고... 그렇다. 우리는 스스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지 않고는 남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을 만큼 부유한 자가 될 수 없을 거다.

사람과 사람사이의 관계는 늘 보이지 않는 협상이 오고 간다. 굳이 그걸 말로 쏟아내지 않아도 우린 눈빛이나 몸짓을 통해서도 무언의 협상을 하고 산다. 심지어는 아이들에게도 공부 잘 하면... 심부름 하나 시킬 때도... 운전 중에 누가 먼저 갈 것인가... 등 모든 삶의 복판에서 하루 종일 협상은 이루어지고 있어서 어쩌면 우리 삶이 그렇게도 피곤한 것이 아닐까? 아니 심지어 우린 하나님과도 늘 협상의 기도를 드리지 않는가? 주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말을 조금 길게 발음하면 '마알'이 되고 이것을 다시 풀어 보면 '마음의 알맹이'라는 뜻이 된다. 아마 그 사람이 하는 말 한마디를 들어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지 알 수 있단 말이라. 그렇다. 하나님 나라 법칙은 사랑의 법칙이고 그 법칙을 풀어나는 방법은 바로 서로 섬기고 배려하고 존중해 주는 삶이라.

우린 바쁘고 편할 때는 다른 사람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다가 곤고한 날이 돼야 옆에 있는 이들이 보인다. 그렇다. 남을 존중하는 삶을 살려면 먼저 우리 자신이 존귀한 자가 돼야 한다. 세상 사람들의 존중의 기준은 조건적인 것 같다. 교회에 헌금을 많이 내면... 쇼핑갈 때 명품 백을 들면...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모든 영역에서든 일관되게 존중의 태도를 나타내야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 수 있지 않을까?

우린 어두움을 몰아내기 위해서 분명한 빛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빛과 어두움은 공존할 수 없으니까... 다시 말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육신으로 반응하지 않고 말씀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더 단순하고 더 분명한 방향성을 갖고 살아야 하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시는 언제나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우리는 자신과 마주 앉아 생각을 정리하고 기도 가운데 나가면 게으름과 분노... 이런 것들로 판단 받고 사는 일도 조금씩 줄어들지 않을까. 의에 주리고 목마른 영적 갈급함이 있어야 우린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으로도 매혹되지 않으리라.

성경은 기도가 막히지 않게 아내와 남편이 서로 존중하는 삶을 살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서 존중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가 하는 기도가 효력이 없다는 것이리라. 그렇다. 자신을 한 꺼풀씩 알게 될수록 더 존중의 삶을 살게 되고 그런 삶이 되면 아마도 허리를 풀어 놓은 듯한 혈렁한 평안이 내 속에 충만히 찾아오리라.

changsam1020@gmail.com

#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 학위 취득방법 Study Options

- On Campus 강의 :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 On-Line 방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학점 취득 가능
- Blended 강의 : 소집강의와 On-Line 교육을 병행하면서 학점 취득 가능

미국 주정부 및 연방정부 교육부의 인준 정규대학교  
미국 연방정부 교육부 USDE 인가 및 CHEA 인가.  
ABHE - Midwest University was Granted Accredited Status  
USDE (미국 연방정부 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함.  
www.ope.ed.gov/accreditation

문의 : 전화 (636)327-4645, 이메일 usa@midwest.edu

### 학위 과정 Degree Programs

ESL Program	Certificate Program
Bachelor Degree Programs	BA In Business Administration 경영학 BA In Music 음악 BA In Theology 성학, 기독교교육 Biblical Studies, Christian Education Bachelor of Science in Aviation Management 항공학
Master Degree Programs	MA In Counseling 상담학사 MA In Education 교육학석사 MA In Music 음악석사 MA In TESOL 영어교육석사 MBA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경영학석사 M.Div 신학석사
Doctoral Degree Programs	Doctor of Ministry 목회학박사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Mission Studies, Pastoral Theology Doctor of Music 음악박사 Doctor of Leadership 리더십박사 Ph.D. in Leadership

##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 Fax: (636)327-4715  
E-mail: usa@midwest.edu

Washington DC Campus  
5103-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Tel: (571)730-4750 / Fax: (571)730-4751  
E-mail: wdc@midwest.edu

토요칼럼



김한맥 선교사 (문화동원연구소 대표)

개념(概念)

개념에 대한 설명은 의외로 다양하며 깊다. 하나의 사물을 나타내는 여러 관념 속에서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요소를 추출하고 종합하여 얻은 관념으로 보기도 하며, 분석철학의 중요한 주제로 분석철학자들이 따르던 철학의 주제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개념에 대해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언어의 특징과 관련을 맺고 있다. 따라

서 개념은 정신적 실재가 아니라 논리적 실재이다. 개념사용의 전형적인 본보기는 옥스퍼드 분석학과 길버트 라일의 "정신의 개념 The Concept of Mind"(1949)에 잘 나타나 있다. 이 책은 라일의 목적이 정신 자체에 대한 사실을 경험적으로(심리학의 방법으로)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의 '논리적 지도'를 탐구

하는 것임을 암시해준다. 마찬가지로 쾌락·의무·기억에 관한 담론의 논리적 특징을 탐구하는 일은 쾌락·의무·기억이라는 개념과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언어표현을 사용할 수 있음은 곧 그 개념을 적용하거나 소유하고 있음을 뜻한다고 설명을 한다. 또한 개념(概念)은 우리 주위의 대상에서 공통된 것, 일반적인 것

을 꺼내어 개괄(概括)함으로써 생겨난 관념으로 모두 외계(外界) 대상의 공통된 징표(徵表)를 반영하고 있다. 개념이 취하는 일정한 언어적 표현, 즉 개념의 언어적인 외피(外皮)는 '말(辭)'이다. 개념의 예로는 '동물' '빨강' 등을 들 수 있다. 형식논리학에서는 개념의 중요한 성질로 보편성과 동일성을 든다. 전자는 개념이 그 공통성·일반성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무수히 많은 대상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고, 후자는 각 개념에는 고유한 의미가 있으며, 사고를 함에 있어 자의적으로 그 의미를 바꿔서는 안됨을 말한다. 그러나 사물은 항상 변화함으로 개념이 언제까지나 그 타당성을 주장할 수는 없다. 또 인식의 변화에 따라서 개념의 의미는 변한다. 형식논리학적 사고의 타당성은 변화를 무시해도 좋은 범위 내에 한정된다. 뿐만 아니라 일반개념, 고유개념, 집단개념, 관계개념과 심지어는 모순개념 등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사고와 주장이 객관적이나 주관적이나에 따라 개념은 천차만별로 분류되고 설명될 수 있다. 사실 내가 생각한 개념은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것은 아니었다. 잊지못해 늦게 집에 돌아올 때 머리에 인생의 계급장을 진하게 쓴 분이 빨간불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길을 건너는 모습을 보며 문득 떠오른 것이 개념이었다. '참 개념 없이 산다!'며 투덜거리다가 그 파트 안에서 해찰을 하는 그분을 다시 보며 '저런 바에 왜 신호등을 무시했을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늦음'은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기는 하나 그렇다고 특별할 수는 없다. 법과 규정과 질서를 무시해도 좋은 것이 늦음은 아니기 때문이다. 버거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이 인생의 교훈이라면 '늦음'은 더 많은 모범과 인내, 겸양과 성찰이 연행에서 드러나야만 한다. 권리는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일수록 좋다. 또 권리

가 주어지는 조건이 책임과 의무 수행이라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세상에서 거저 주어지거나 이뤄지는 것은 아무 것도 없음을 아는 것이 늦음이라면 그 경륜만큼 더 본이 되어야 존중될 수 있다. 개념을 떠올린 것은 아주 단순했다. 그런데 본질을 들춰보니 이처럼 복잡하고 어려워졌다. 또한 시비 거리가 될 수도 있을 만큼 날카로워졌다. 이도 상대적 혹은 모순적인 개념 탓일지도 모르겠다. 좋은 것은 언제나 적당한 선에서 끝이 나아만 한다. 개념이 중류격중(中流擊楫)을 타면 공허한 자기 상처나 착각이 되어 개념이 없는 인생으로 추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확대해석에는 언제나 부작용과 불편으로 귀결이 된다. 단순한 것을 초입의 여러 논쟁으로 설명한 것도 무 개념의 소치는 아닐까 조심스러워진다. hanmac@cmi153.org



KAPC 가든노회 2018년 여름수양회 참석자들이 워싱턴DC 성경박물관 앞에서 기념촬영 했다.

가족의 소중함...동역자들과 만남...

KAPC 가든노회 목회자가족 여름수양회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가든노회 2018년 여름수양회가 8월 27일부터 28일까지 버지니아와 메릴랜드에서 열렸다. 첫날인 27일, 노회 모든 목회자와 가족들이 워싱턴DC에 도착해 성경박물관을 견학하는 것으로 일정이 시작됐다. 특별히 이번 수양회는 이민목회의 고단함 가운데 잠시 시간을 내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고, 동역자들과 함께 목회에 관한 건강한 대화를 나누며 기도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첫날 타이슨 슈라톤 호텔에서 드려진 예배는 사도 오렐리아 목사(교육부서, 우리교회), 기도 김재호 목사(시온산교회), 말씀 허상희 목사, 환영사 이준성 목사(교육부장, 양무리교회), 축도 이원호 목사(중부뉴저지장로교회)의 순서로 진행됐다. 노회장 허상희 목사는 왕상 19:1-8 말씀을 본문으로 전한 설교에서 지친 엘리야에게 구운 떡과

물을 먹이시고 편하게 쉬게 하시고 아무만져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온노회와 함께 하시길 믿는다고 선포했다. 이번 수련회의 키워드는 "가족"이었다. 노회에서는 사모들에게 격려와 사랑의 마음을 담아 120불 상당의 고급 화장품세트를 선물로 준비하고 전달하는 깜짝 이벤트가 있었다. 또 목회자의 자녀들을 위해 온노회 목회자들이 안수하며 축복해주는 시간과 함께 갖기도 했다. 목회자들이 목회에 열중하다보면 소홀하기 쉬운 목회자 가족들에게는 위로와 회복 그리고 영적 충전의 시간이었다. 폐회예배는 기도 조성훈 목사(뉴욕제일장로교회), 말씀 이원호 목사 등이 순서로 맡았으며, 종회와 노회 그리고 산하 교회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사제공: KAPC 가든노회)

한국 소방공무원 대상 안전관리체계 세미나

미드웨스트대학...보잉사, 웬즈빌 소방국 방문

미드웨스트대학교(Midwest University, 총장 제임스 박사)는 지난 8월 17일부터 24일까지 한국 산림청 소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항공 안전관리체계(SMS, Safety Management System)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 참석한 한국산림청 공무원들은 소방헬기 조종사, 정비사, 행정직 공무원 등 17명으로, 현재 연구원으로 와 있는 한국 소방청 고위 공무원들도 다수가 참석했다. 세미나는 전문가 특강과 현장체험으로 미국의 소방항공 안전관리체계를 파악하기 쉽도록 진행됐다. 20일과 21일에는 William Hopper 교수와 변순철 박사의 항공 안전관리체계 특강이 있었다. 헬기 비행학교 대표인 William Hopper 교수는 항공 안전관리체계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위험을 인지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안전관리체계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William Hopper 교수는 St. Louis University 항공학과 교수를 역임했으며, Helicopter Flight 관련 저서도 출간한 바 있다. 본교 항공학과 교수인 변순철 박사는 위험식별과 관리, 그리고 새로운 항공기 사고분석 기법인 HFACS(A Human Factors Approach To Accident Analysis and Prevention)에 대해 강의했다. 변 박사는 위험관리 전략들을 소개하면서 "위험한 상황에 돌입하지

않도록 사전에 회피하거나 이를 최소화하여 사고를 방지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라고 말하고 "이러한 전략들은 일상생활에서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변 박사는 공군 및 민항 조종사 출신으로 항공기 사고조사 전문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22일과 23일에는 보잉사와 웬즈빌 소방국 컨퍼런스 센터 방문이 있었다. 보잉사 방문에서 산림청 공무원들은 항공기의 시대적 변천과정과 생산 공정 등을 살펴보고 항공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또한, 웬즈빌 소방국 컨퍼런스 센터 방문을 통해 현재 운용 중인 미국 소방장비들을 직접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더욱이 미주리주 소방청은 소방헬기를 직접 세미나 장소까지 이동시켜 산림청 공무원들이 직접 헬기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날 미국 소방헬기 조종사이자 Wildland Fire Program 감독관인 Ben Wester씨는 미국의 소방조직과 협조체계, 산불진화 방법, 훈련체계 등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산림청 공무원들은 미국의 산불진화체계와 관련하여 소방항공기 운영, 조직간 협조, 안전관리 등에 큰 관심을 보였다. 이번 세미나의 산림청 리더인 김광석 항공사무관은 "한국의 소방장비와 조직체계를 미국과 비교해볼 때 크게 손색이 없지만 미국의 소방 조직간 효과적인 협조체계는 배울 점이 많



미드웨스트대학교가 한국산림청 소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주최한 항공 안전관리체계 세미나 중 참석자들이 교수들과 함께 기념촬영 했다.

다"고 말했다. 모든 일정을 마친 후 진행된 수료증(Certificate) 수여식에는 Peggy McLaugh 미주리주 하원의원, Nick Guccione 웬즈빌 시장, Tim Bean State Fire Marshal, Kevin Zumwalt 미주리대학교 교수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참석했다. 미드웨스트대학교와 웬즈빌 소방국은 각기 준비한 수료증을 산림청 공무원들에게 수여했으며, 변순철 교수와 이번 세미나를 주선한 김중복 교수는 Nick Guccione 시장으로부터 명예시민증을 받았다.

산림청 공무원들은 "이번 세미나가 강의와 현장실습이 함께 진행돼 미국의 항공 안전관리체계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입을 모았다. 제임스 박사는 "세미나 준비에 많은 노력이 필요했지만 세미나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만족하시는 것 같아 보람을 느낀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미드웨스트대학교를 방문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기사제공: 미드웨스트대학교)

OC제일장로교회 새 담임에 김종규 목사

8월 26일 청빙투표 결과 205표 획득

OC제일장로교회는 지난 8월 26일 주일예배 후 실시된 담임목사 청빙투표에서 김종규 목사를 담임목사로 선출했다. 총 득표수는 205표(성도 198표, 시무장로 7표). 이번 청빙투표는 김종규 목사 외에 정성준 목사(24%)

와 국윤권 목사(20%)가 후보에 올랐다. 김종규 목사는 7일(금) 새벽예배와 9일(주) 1부와 2부 예배에서 설교한다. (정리: 박준호 기자)

Large advertisement for '해외교회' (Overseas Churches) featuring a banner with the text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교회' and a grid of 24 church listings. Each listing includes the church name, pastor's name and photo, and contact information. Churches listed include Kumran, Dundeon, Roman, Saein, Seungmun, Seungsil, Seungil, Sujeong, Seungdo, Siwon, Singil, Shinchon, Shinchun, Anam, Yangok, Wangseong, Jangwi, Juang, Chuang, and Cheongju.

# 동부교계 기사판



## 제 4차 세계전문인선교대회 및 선교사집중훈련

제 4차 세계전문인선교대회가 2018년 10월 10일(수)일부터 12일(금)까지 필라 안다교육교회(담임 호성기 목사)에서 열린다. 참가대상은 지역교회 선교리더 및 관심자, 목회자, 신학생, 해외 및 Here & Now 선교사 등. 9월 20일 마감이며 등록비는 300달러, 지역참가는 100달러다.

한편 PGM선교사로 파송하기 위한 선교사집중훈련이 10월 10일(수)부터 14일(주)까지 필라 안다교육교회에서 열린다. 마감은 9월 22일이며 등록비는 300달러(부부 500달러), 지역참가는 100달러다. 추가서류가 필요하다.

▲문의: (610)397-0484, admin@pgmusa.org

## 퀸즈성인대학 개강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 부설 퀸즈성인대학 가을학기가 9월 18일(화) 오전 10시 30분 개강한다.

▲문의: (718)886-4040

## 뿌리깊은교회 이전

뉴저지 뿌리깊은교회(담임 조항석 목사)가 이전했다. 9월 2일 주일부터 새 예배장소에서 예배를 드렸다. 새 예배 장소는 팰리세이즈 팍 아이프라인 힐튼 강의실로 주소는 40 Broad Ave., Palisades Park, NJ 07650. 예배 시간은 주일오전 10시 30분, 수요일 오후 8시(D2 Plus 사무실), 금요일정년모임 오후 7시 30분으로 동일하다.

▲문의: (201)446-4466

## 뉴욕교협 제45회기 입후보 등록접수 공고 회장, 부회장, 감사... 마감 9월7일 오후4시

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회장 이만호 목사)는 지난 9월 1일, 제 45회기 회장, 부회장 및 감사 입후보 등록접수를 공고했다. 후보 등록은 9월 4일(화) 시작돼 7일(금) 오후 4시까지 마감된다.

회칙 11조에 의한 자격은 ①본회 가입 5년 이상된 자로 회비체납이 없어야 하며 ②목사안수 10년 이상 ③뉴욕 담임목회 5년 이상 ④교협 임신행위원 역임 ⑤인격과 품행에 결격사유 없는 자 ⑥회장, 부회장 출마는 3회 이내 제한 ⑦연회장과 동일교단은 3년 이내 입후보 불가 ⑧감사후보는 1, 4, 5항 준수 ⑨평신도부회장은 이사회 이사장 역임자 ⑩영주권 이상 소지자 ⑪공헌도 있는 자.

등록서류는 ①등록원서 1통 ②

소속 교단추천서 1통(독립교회는 증명회장단 2인이상 추천서) ③10개 회원교회 추천서 ④증명회장 2인이상 추천서 ⑤이력서 1통 ⑥소견서 1부 ⑦목사안수증명서 ⑧여권과 운전면허증 ⑨교회현황서(최근 3주보 4매) 등이 필요하며 ⑩감사 후보는 3, 4, 6, 10항을 면제한다. 이외에 이력서 및 모든 서류의 허위 또는 문서위조 발견시 선관위의 청원으로 총회에서 제명을 결정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직전 총회에서 3분 이내의 소견발표를 할 수 있으며, 선거운동은 선관위가 주관하는 정견발표, 공고 및 홍보행위와 선관위가 정한 규정 외에는 일체를 금하는 것으로 돼있다.

(유원정 기자)

# “갑절의 영감으로 더 아름다운 사역되길”

##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장 이취임식 예배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장 이취임식 예배가 지난 2일 저녁 5시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에서 열렸다. [관련기사 16면]

부이사장 허경화 장로 사회로 열린 이취임식 예배는 글로리아싱어즈의 서창으로 시작됐으며 기도 문중은 목사(KAPC 뉴욕노회장), 찬양 퀸즈장로교회 연합찬양대, 설교 김재열 목사(KAPC 총회장), 영상, 동문찬양, 이만호 목사, 장영준 목사, 공로패 및 감사패 증정, 취임사 김성국 목사, 축사 김인환 목사(전 총신대 총장, 현 스와질랜드크리스천대학 총장), 이만호와 취임자를 위한 기도 이만호 목사(뉴욕교협회장), 축하연주 주빌리앙상블, 축도 이규복 목사(교수)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재열 목사(뉴욕센트럴교회 담임)는 “갑절의 영감으로”(왕하2:7-11)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예수 믿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장 이취임식 예배를 마치고 학교관계자들과 순서자들 등이 기념촬영 했다.

고 신앙생활하면서 25년간 짝사랑했던 대상이 장영준 강도사(당시)였다”며, “고등학생으로 교사로 봉사하면서 참석했던 주일학교 강습회에서 강사로 말씀을 전한 장 목사를 만났는데, 25년 후 캐나다 목회 당시 집회에서 만났을 때는 모

습이 변해 짝사랑이 끝났다(?)”고 간증해 청중들의 웃음을 샀다.

김 목사는 “시간은 속절없이 지나가지만 각자의 길을 가면서 맡겨 주신 사명에 얼마나 충성했는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장영준 이 임학장의 50년 사역을 정리해보니 크게 3가지로 첫째 퀸즈장로교회를 보수 개혁주의 바탕위에 미주 최대의 모범적인 교회로 세우고, 둘째 동부개혁장로를 31년간 철저한 성경중심 하나님중심의 진리로 목회자를 양성해왔으며, 셋째 미주크리

## “조유산과 동방번개의 실제” 영문판 출판감사예배

###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 주최 뉴욕이단사이비대체협 주관

“조유산과 동방번개의 실제” 영문판 출판감사예배가 지난 28일 저녁 플라싱 금강산 연회장에서 열렸다. 중국 조유산이 교주인 전능신교(동방번개)는 중국정부로부터 제방당하자 미국과 한국으로 흩어져 포교활동을 하고 있으며 현재 본부를 한국에 두고 난민신청을 한 상태다.

이종명 목사는 “이단대체를 위해서는 이단의 실체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며 “동방번개의 이단성과 그 폐해를 알리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대표 진용식 목사)가 주최하고 뉴욕교협 이단사이비대체협의회(회장 이종명 목사)가 주관했다.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는 이번엔 영문판 책자를 발간하면서 뉴욕에서 출판기념회를 갖게 됐으며 번역본 5천부를 미국 5000교회에 발송했다.

이종명 목사 인도로 열린 감사예배는 대표기도 유상열 목사(전 뉴욕교협 이단사이비대체협의회 회장), 성경봉독 박진하 목사(남침례교한인교회 뉴욕지부회장), 축가 랜디 브룩, 설교 진용식 목사, 광고 노지훈 교수(대한신학대학교), 축도 진용식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진용식 목사는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마24:3-5)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한 감람산에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의 징조 중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하셨다”며 “말세의 현상으로 한국 내에 성공(?)한 재림주가 40명이고 2백만명이 이단에 빠져있다”고 말했다.

진 목사는 “그중에 동방번개(전 능신교)는 전도특공대라 불리는 자들이 기성교인들을 빼내고 있다”며 “이들이 10년전 중국에서 추방된 후 한국과 미국으로 왔는데 뉴욕에 400명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모든 이단들의 특징은 영육합일교리와 비유폴이 삼시대(구약, 신약, 재림주)를 주장한다. 이단들은 성경공부를 시켜 빠져들게 하기 때문에 교회밖 성경공부를 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부 출판기념식은 축가 변윤섭 장로/김옥랑 전도사, 서평 박희명 교수(서울대학교), 축사 황동식 목사(뉴욕교협 증경회장), 최창섭 목사(뉴욕교협 증경회장), 황원진 목사(카이로스대학 총장) 순서로 진행됐다.

번역자 박희명 교수는 “이 책이 조선족이 사용하는 한국어로 돼 있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오래 걸렸다”며 “하나님의 은혜로 번역하게 된 것을 감사한다”고 말했다.

노지훈 교수는 “저자 조바울은 조선족으로, 10여년간 준비하고 1년전 책을 출판해서 대한신학대학교에서 출판기념회를 했다”며 “LA에서도 출판기념회를 계획 중에 있다”고 말했다.

(유원정 기자)



퀸즈장로교회 2018 마지막 선교가 할렘에서 열려 지역주민들에게 숯키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 퀸즈장로교회 2018 마지막 선교 할렘 브니엘선교회 숯키친 서비스 협력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 2018 단기선교 마지막 프로젝트인 할렘 인나-시티 미션이 지난 28일 맨해튼 Soul Saving Station Church에서 열렸다. 이 선교는 브니엘선교(대표 김명희 선교사)의 숯키친(Soup Kitchen) 서비스를 협력한 것.

이날 80여명의 노숙인 및 주민들이 참석했다. 이날 말씀은 차평화 전도사가 “Jesus, The Only Way”(요14:1-7)라는 제목으로 전했다. 특별순서로 선교무용단의 한국전통무용 공연과 어린이 찬양팀 G2G의 찬양이 있었다. 주향 팀의 부채춤, 그레이스팀의

한국무용, 두드림 팀의 난타공연이 있었으며, G2G는 ‘주는 나의 행복’, ‘Deep down in my heart’, ‘주와 같이 갈 길 가는 것’ 등의 찬양을 불렀다.

또 말씀을 마친 후에 폴링의 시간이 있었는데, 참석자 중 10여 명이 앞으로 나와 주님을 영접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석한 선교팀원들은 특별히 무더운 날씨로 인해 힘들었지만 준비한 음식을 대접하며 복음을 전하는 즐거움은 그 어느 때보다 컸다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유원정 기자)



“조유산과 동방번개의 실제” 영문판 출판감사예배를 마치고 주최측과 순서맡은 이들이 함께 기념촬영 했다.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 동부(NY, NJ) 교회

<b>뉴욕부르클린제일교회</b> 담임목사: 이윤석 주일예배: 오전 11:00 영일예배: 오전 02:00 수요일예배: 오후 08:45 새벽기도: 오후 08:45 금요기도회: 오전 05:30 성령훈련: 오전 10:00 화, 토 Tel: (718)265-2584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 www.kcb.org	<b>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재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양) 수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516)883-1977, Fax: (516)883-1961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 www.kcb.org	<b>뉴욕새벽별장로교회</b> 담임목사: 정기태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30 주일찬양예배: 오후 1:15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세무기도회: 오전 6:00 (화-토) Tel: (917)733-7387 45-16 162 St, #204, Flushing NY 11358 chungkitaeyahyo.com	<b>뉴욕새생명장로교회</b> 담임목사: 허준준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수 목 예 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718)637-1470 45-50 162 St, #2FI, Flushing, NY 11358	<b>뉴욕새사람교회</b> 담임목사: 이종원 주일예배: 오전 10:30 영일예배: 오전 10:45 수요일예배: 오후 8:00 수 목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금요기도회: 오전 10:30 Tel: (718)461-2810(Fax 겸용), (91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	<b>뉴욕센트럴교회</b> 담임목사: 김재열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http://www.cpcofny.org Tel: (516)387-9940, 9942(EM) 154 Old Westbury Road Old Westbury, NY 11568	<b>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b> 담임목사: 이만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30 수목예배: 오후 8:30 금요(은사)예배: 오후 8: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 (718)406-7577, Fax: (718)338-1777 188-12 73 Ave, Fresh Meadows, NY 11366 www.nyanitch.com	
<b>뉴저지성도교회</b>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기도회: 오후 8:30 (매주 1주, 3주) Tel: (201)342-9194, Fax: (201)943-5204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http://sungdochurch.org/	<b>리빙스톤교회</b>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찬양예배: 오전 11:00 청년성경공부: 오후 1:30 주일학교: 오후 12:30 주일학교강좌: 오후 1:30 수 목예배: 오후 8:30 수 목예배: 오후 8:30 Tel: (718)961-2171, Fax: (718)961-3631 215-29 42 Ave, Bayside, NY 11361	<b>빛과소금교회</b> 담임목사: 정순원 주일1부 오전 7:30분 주일2부 오전 10:50 주일학교 오후 1:50분 청년예배 오후 3:20분 새벽기도 매일 오전 6시 목요일 오후 8시 목요일 오후 7시 30분 Tel: (347)513-1351, cheongsunwon@yahoo.com 45-11 149 St, Flushing, NY 11355	<b>주비대교회</b> 담임목사: 이규본 주일예배: 오후 12:30 주일학교: 오전 6:00 영일예배: 오후 5:00 목요일예배: 오후 1:00 Tel: (718)787-8999, bonrhee@hotmail.com 70 Plandora Rd, Manhasset, NY 11030	<b>퀸즈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12:15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수목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 Tel: (718)886-4040, Fax: (718)358-7789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b>퀸즈한인교회</b>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찬양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1:30 NCF영어: 오후 1:30 Tel: (718)672-1150 Fax: (718)672-1151 89-00 23rd Ave, East Elmhurst, NY 11369 www.kcny.org	<b>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b>브라질 새소망교회</b> 담임목사: 박재호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5:00 주일6부예배: 오후 7:00 Tel: (5511)6693-9754, 6692-1165 RUA SANTA RITA, 215-PARI-SAO PAULO-SP-BRASIL	<b>아르헨티나 제일교회</b> 담임목사: 최광연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4부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 Tel: (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FED., B.S., A.S., ARGENTINA	<b>칠레 한인연합교회</b>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일기도회: 저녁 9:00 7:14(주)기도회: 아침 7:40 수, 목, 금, 고등부예배: 금요일예배: 오전 9:30(주일) Tel & Fax: (562)556-78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	<b>토론토 가든교회</b> 담임목사: 김성민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저녁 9:00(영양) 수요일예배: 오후 7:00 수목예배: 오전 5:30 새벽예배: 오전 7: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Tel: (416)490-9060 http://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	<b>하와이 행복한교회</b>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 (808)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	<b>하와이 행복한교회</b> 담임목사: 김성훈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 목 영경강좌: 오후 7:00 목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일예배: 평일 새벽, 셋째, 다섯째 금요일 오후 7:30 목요일예배: 오후 7:30 Tel: (808)584-5780, Fax: (808)584-5717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	<b>브라질 서울교회</b> 담임목사: 허경남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 Tel: 3277-1489, Fax: 3209-9343 Rua Joaquim Piza, 281 Cambuci S, Paulo Cep 01528-010	<b>브라질 한인교회</b> 담임목사: 한봉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 Tel: 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reir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505-010
<b>하와이 행복한교회</b>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 (808)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	<b>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b> 담임목사: 조일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12:30(영양)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7:00 Tel: (808)947-5252, Fax: (808)947-5151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	<b>멕시코 선교 본부 교회</b> 선교사: 임한근 목사 멕시코 번식 신학교 교수 주일1부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후 3:00 주일3부예배: 오후 6:00 (1, 2, 3부 예배 뒤 설교) Tel: (52)323-3507-4111 E-mail: hanjkr@hanmail.net Goya 530 Manuel, Acuna, Guadaluajara MEX(멕시코)					

# UMC, 동성애 전면적 허용 예고

## The One Church plan 실시... 각 교회 입장은 존중

연합감리교회(UMC)가 결국 동성애에 대하여 미국장로교회(PCUSA)의 뒤를 이어 전면적 허용을 하게 된다.

UMC한국인목회협의회(회장 김낙인 목사)는 그랜트 하기야 감독(캘리포니아퍼시픽 연회)과 함께 지난 8월 28일 오전 10시30분 남가주주님의교회(담임 김낙인 목사)에서 만남을 갖고 향후 연합감리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그랜트 하기야 감독은 "UMC의 비전은 UMC의 존재감을 극대화하며, 상황별 차별화 허용, 그리고 하나됨"이라 설명했다. 하기야 감독은 "이를 위해 UMC는 The One Church Plan을 시행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랜트 하기야 감독(캘리포니아퍼시픽 연회)이 UMC에서 마련한 The One Church Plan의 동성애 허용방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The One Church Plan은 UMC교회와 장에서 LGBTQ의 배타적인 언어가 삭제되며 결혼의 정의를 '남자와 여자' 아니면 '두 사람'의 결합으로 선택할지를 각 교회가 결정할 수 있으며, 동성 결혼식 집전도 목사 각자가 결정할 문제로 문

을 열어 놓게 된다.

또한 동성애자에 대한 목사 안수도 지역별 연회가 알아서 가부를 결의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허락했다.

하기야 감독은 "교단 내에서 동성애에 대해 허용하게 됐지만 한인 교회를 비롯한 보수적인 입장을 가진 반동성애 교회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신학을 지켜나가는 것에 대해서 존중할 것이며 어떠한 불이익도

가하지 않을 것"이라 설명했다.

류재덕 목사(KUMC회장)는 "KUMC내에서는 지난 5년간 이 이슈를 놓고 다루왔으며 성경체성 이슈를 위해 작년에 테스크 포스(Task Force, TF)가 구성됐으며 올해 2기 TF팀이 조직됐다"며 "이 이슈는 교단내 중요 이슈지만 우리의 하나됨을 해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류 목사는 "KUMC는 동성애 이슈를 인정하게 될 것이다. 다만 동성애 커플이 찾아올 때 그들의 주례를 거부하더라도 교리와 장정에 의해 보호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UMC의 진동성에 정책은 내년에 열리는 UMC총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는데 신영각 목사(일서연합감리교회)는 "이 이슈는 목회자들만의 이슈가 아닌 UMC내 모든 교인들의 이슈"라 말하고 "PCUSA의 선한목자교회 사례를 보더라도 동성애 이슈는 매우 민감하다. 선한목자교회의 경우 95% 교인이 떠났다. UMC 역시 이러한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 말했다.

(박준호 기자)

# 서부교계 게시판



## 월드미션대학교 상담교실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임성진 박사)는 상담사역에 관심이 있는 평신도 및 사역자들을 위해 상담교실을 개최한다. '그리스도인의 인격성장과 관계회복'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상담교실 일정은 9월 10일부터 11월 26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30분까지다. 강사는 월드미션대학교 상담학과 교수이자 ANC 온누리교회 가정사역 담당자인 김현경 교수가 강사로 나선다. 강의 주제는 "결혼-부부됨과 부모됨", "원가족-가족 시스템", "전인적 성장-영적 공동체" 등이며 등록비는 100달러다.

▲문의: (213)388-1000, admissions@wmu.edu

## 남가주주님의교회 설립35주년 축하감사예배

남가주주님의교회(담임 김낙인 목사) 설립 35주년 축하감사예배가 9일(주) 오후 4시에 열린다.

▲문의: (626)965-9191

## UGN복음방송, 블록체인 암호화폐 등 행사

UGN복음방송(대표 여운혁 목사)은 블록체인 암호화폐 및 ICO 밋업 행사를 11일(화) 오후 6시 2975 Wilshire Blvd #415, LA에서 갖는다. 이번 특강은 투자자로서 꼭 알아야 하는 내용과 기업이나 개인이 ICO를 통해서 자본을 모아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게 되며 블록체인 토큰경제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갖는다. 참가비는 20달러이며 간식과 커피 등 다과가 제공된다. 제한된 좌석으로 사전등록이 필요하다.

▲문의: (213)700-2891

## LA사랑의교회 사랑올림픽센터 입당감사예배

LA사랑의교회(담임 김기섭 목사)는 사랑올림픽센터 입당감사예배를 15일(토) 오전 6시20분에 갖는다. 장소는 올림픽과 엘튼 코너(2610 W. Olympic Blvd, LA, CA).

▲문의: (213)386-2233

## 러빙하트 자선음악회

홀리스 청소년들을 돕기 위한 러빙하트 주최 자선음악회가 15일(토) 오후 6시 뉴홀한인교회(담임 송인철 목사, 23857 The Old Rd)에서 개최된다. 티켓은 10달러이며 러빙하트 웹사이트(www.lovinghearts4u.org)에서 구입하거나 러빙하트 문화센터(23310 Cinema Dr, #105, Valencia) 및 엔저스정육점(23310 Cinema Dr, #102, Valencia)에서 구입할 수 있다.

▲문의: (661)373-9647

## 밸리UMC 가정세미나

밸리연합감리교회(담임 류재덕 목사)는 '경건한 크리스천 자녀 키우기'라는 주제로 이문영 목사 초청, 가정세미나를 14일(금) 오후 7시30분 본 교회 친교실에서 갖는다.

▲문의: (818)366-0089

## 두나미스장로교회 교회이전

도나미스장로교회가 어버니 지역(18004 Sky Park Circle #260, Irvine)으로 이전했다. 교회위치는 사우스코스트 플라자와 존웨이 공방 인근이다. 예배는 수요일 저녁 7시30분, 주일 영어예배 오전 9시30분, 한어예배 오전 11시에 진행되며 한국어 예배는 영어통역이 제공된다.

▲문의: (714)595-6636

아주사퍼시픽신학교 코리언프로그램 2018 가을학기 개강예배에서 김성환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 2018 가을학기 신입생 12명 입학

## 아주사퍼시픽신학교 코리언프로그램 개강예배

아주사퍼시픽신학교 코리언프로그램(디렉터 변명해 박사) 2018 가을학기 개강예배 및 신입생환영회가 8월28일(화) 오후 4시30분 아주사퍼시픽대학교(총장 존월레스 박사) LA리저널사이트(디렉터 도널드 브라운 박사)에서 열렸다. 학생회장 김세현 전도사 사회로 열린 개강예배는 임영미 전도사(전 학생회장)가 기도했으며 김성환 목사(가나공방)가 요한복음 2:1-11을 설교했다. 김성환 목사는 "예수님의 사역에서 가나의 혼인잔치는 특별하다. 오병이어를 비롯한 예수님의 사역에서 나타난 이적과 기적은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차원이었지만 가나의 혼인잔치는 포도주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었다"고 말하며 "이는 마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천지창조와 같은 차원"이라 설명했다. 김 목사는 "가나의 혼인잔치의 포도주 사건은 망가질 수 있는 축제를 회복하신 것이며 이는 예수님의 부활

로 죽음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장차 맞이할 궁극적 잔치를 하게 되는 그림자"라 말했다. 김 목사는 "항아리에 담긴 물은 단지 고여있던 물이었다. 그물은 아직 포도주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항아리의 물이 결혼식장으로 옮겨졌을 때 포도주가 되었다. 이는 교회가 우리들만의 천국이 되어서는 안 되며 삶의 자리인 일상의 자리로 옮겨질 때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포도주에 취하게 되듯 성령에 취하게 될 것"이라 말했다.

설교에 이어 변명해 교수가 축하의 인사와 교직원 소개를 했으며 김세현 전도사가 임원 소개했다. 그리고 다니엘뉴먼 박사(본교 목회학박사 프로그램 디렉터) 축사로 예배를 마쳤으며 신입생 소개 및 환영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학기 아주사퍼시픽 신학교는 강영순 전도사 등 12명이 입학했다.

(박준호 기자)



남가주교회음악협회는 푸른초장의 집 등 3개단체에 후원금을 전달했다. 사진은 본협회 임원들이 푸른초장의 집에 성금을 전달하고 기념촬영하는 모습

# 제37회 찬양합창제서 모금...총 2천달러

## 남가주교회음악협, 푸른초장의집 등에 후원금 전달

남가주한인교회음악협회(회장 전현미)는 부에나팍에 위치한 아리아 식당에서 푸른초장의집에 1000달러 상당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전현미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주님의 시선이 머문 그 자리 II'라는 주제로 열린 제 37회 남가주 찬양합창제에서 결한 후원금으로 전달하게 된 것"이라 밝히고 "푸른초장의집 등 3개 단체에 후원금을 전달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 회장은 "처음에는 많은 단체를 선정해 후원금을 전달하려고 했다. 그러나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한두 단체라도 엄선해 후원금을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전달하게 된 것"이라 배경설명을 했다.

이번 후원금전달식에 참석한 빅토리아 흥 푸른초장의집 디렉터는 "물가상승과 후원금 감소로 사역에 대한 걱정이 있었는데 생각지도 않은 후원의 손길이 생겨 너무

감사하다"며 "남가주교회음악협회 행사에 정성스럽게 모인 후원금이 저희사역에 많은 힘이 될 것"이라 말했다.

이번 후원금을 받은 푸른초장의집은 가정폭력 등 정신적, 육체적으로 지쳐있는 여성들과 그 자녀들이 새로운 삶과 미래를 꿈꾸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란 정해 있어 교회음악협회에서 푸른초장의집에 후원금을 전달하게 됐다.

푸른초장의집이 선정된 이유는 수많은 여성보호단체들의 경우 후원금과 함께 정부지원금으로 운영이 되지만 이곳은 정부지원 없이 운영이 되는 곳기에 타 기관에 비해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한 정해 있어 교회음악협회에서 푸른초장의집에 후원금을 전달하게 됐다.

이외에 USC Power of Praise Church(담임 신승호 목사)와 시온성교회(담임 송영중 목사)에 각각 500달러의 후원금이 전달됐다.

(박준호 기자)



제 5회 학생찬양경연대회 수상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 했다.

# 대상 에린 최, 최우수상 김유진

## 제 5회 남가주 학생찬양 경연대회

남가주한인교회음악협회(회장 전현미)가 주최한 제 5회 남가주 학생찬양 경연대회가 1일 오전 11시 중현선교회(담임 민종기 목사)에서 열려 7학년 Erin Choi(Harp) 학생이 대상을, 6학년 김유진(Voice)학생이 최우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이번 대회는 노래는 물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모든 악기를 연주하는 축제와 같은 대회로 진행돼 참석한 이들에게 기쁨을 선

사했다. 이날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대상 최에린 △최우수상 김유진 △2학년 1등 이현, 2등 하진솔 △3학년 1등 Aiden Lim, 2등 Claire Kim, 3등 Lowen Kim △4학년 1등 현예담, 2등 박하나, 3등 Aidan Lee, Irene Oh △5학년 1등 박운하, 2등 이재휘 △6학년 2등 정인지, 3등 임재민 △7학년 2등 유은채, 3등 Clare Hong.

(이성자 기자)

# 본사 방문

김덕수 목사 (생터성경사역원 LA지부장/하늘소망교회 담임)

# 2011년 시작된 남가주 사역, LA지부 세워 7가지 성경적 정신으로 전문강사스쿨 운영

"어? 성경이 읽어지네!" 생터성경사역원(대표 이애실 사모) LA지부장 김덕수 목사가 본지를 방문했다. "지난 8월 19일 LA사랑의교회(담임 김기섭 목사) 올림픽센터에서 생터성경사역원 LA지부를 설립감사예배를 드리고 새롭게 사역을 시작했다"고 소식을 전하는 김덕수 목사에게 생터성경사역원의 사역이야기를 들어본다.

"생터성경사역원은 '생장점이 터지는 성경사역원의 졸업말'로 이 사역원의 대표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이애실 사모(어? 성경이 읽어지네!) 저자다.

이 사역은 2004년 불티모어에서 이애실 사모의 첫 강의로 시작돼 한국으로, 다시 미국으로 사역이 확대돼 지금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생터성경사역원의 사역이 이어지고 있다.

이곳 남가주에서 본격적으로 이 사역이 시작된 건 2011년. 남가주 사랑의교회와 은혜한인교회를 중심으로 이 사역이 시작돼 이미 100여명의 전문 강사를 배출했고 지난해 하늘소망교회에서 제 4기 전문강사 스쿨을 오픈함으로 LA지역에 사역이 진행되고 있던 중, 정식으로 LA지부 설립감사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다.

김덕수 목사는 생터성경사역원의 정신은 온전히 성경적이라고 말하며 다음과 같이 7가지의 정신을 소개했다.

△신구약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온 세상에 전파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 한다(딤후



LA지부를 설립감사예배를 드리고 기념촬영



본지를 방문한 LA지부장 김덕수 목사

3:16).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모든 족속에게 성경을 읽도록 가르친다(마28:19-20).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진리전달 방법임을 믿는다(고전1:21).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진정된 교사로 믿는다. 따라서 성경을 읽도록 가르칠 때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요14:26). △생터성

으로 강의하고 '어떻게 강의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되고 강의안과 교재 등이 제공된다. 또한 김소연 사모의 사모방이 진행되고 있으며 목회자성경반도 마련된다.

현재 LA지역에서 열리고 있는 성경방은 LA사랑의교회(이종길 목사 213-344-9078), 성림감리교회(신광섭 목사 213-422-0811), His Church(이정아 사모 626-660-6555)이다.

김덕수 목사는 2016년 제 3기 전문강사스쿨에서 말씀을 배우게 됐다고 말한다. 그 당시 목회자만이 따로 준비되지 않아 평신도들과 공부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조금 어려움도 없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러나 공부를 할수록 성경이 너무 재미있었고 성경의 퍼즐이 맞춰질 때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고 한다. 그러다보니 성경을 읽다 새벽기도를 가는 날이 종종 있었다고 한다.

이렇게 감사과정을 마친 김 목사는 "목회자들을 섬기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게 돼 사역을 시작했고 목회자들과 또한 평신도들과 함께 말씀을 배우고 있다며 "함께 이 일을 이어갈 많은 분들이 생겨났으면 좋겠다"는 바램도 잊지 않았다.

새롭게 설립된 LA지부는 김덕수 목사(하늘소망교회)가 지부장으로, 정재현 안수집사(LA사랑의교회)가 총무로, 이정아 사모(His Church)가 서기/회계로 섬기게 된다.

지부장 김덕수 목사는 미주성결교단(총회장 최경환 목사) 소속 목사로 한남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서울 신대 M.Div, 탈북 D.Min과정을 수료했다.

성경방과 사역에 관한 문의는 (213\_500-2948로 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 “불공정 시비 총회재판국 대신 화해조정위 설치”

### 예장통합 제103회 총회 ‘회의안 및 보고서’ 확정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은 10월 10-13일 전북 익산 이리신광교회서 열리는 제103회 총회를 앞두고 1272쪽 분량의 ‘회의안 및 보고서’를 확정해 29일 배포를 시작했다. 명성교회 목회 대물림(세습) 논란의 중심에 있는 재판국 폐지와 총회 기구 개편, 동성에 이슈 등이 주요 안건으로 포함됐다.

예장통합 총회장이 최기학 목사는 활동 보고서를 통해 “뜻을 함께 해 주신 67개 노회, 9096개 교회, 273만여 성도들께 감사드립니다”고 인사했다. 최 목사는 지난 회기의 성과로 교단의 마을목회 세미나, 경북 포항 대지진 구호, 종교인소득세 시행 준비, 동성에 관련 교단 입장 발표 등을 꼽았다. 그는 이번 총회에서 립형석 부총회장에게 총회장직을 인계한다.

제103회 총회와 관련, 총회 대의원(총대) 확정부터 여의치 않았다. 명성교회를 둘러싼 갈등으로 서울 동남노회가 총회에 파송할 총대를 결국 확정하지 못했다. 이들을 뺀 총대 수는 최종 1464명으로 집계됐다.

각 노회가 총회 안건으로 다뤄 달라고 제청하는 ‘현의안’에서도 명성교회 관련 이슈가 두드러졌다. 경남노회 진주남노회 등에서 총회 재판국의 폐지를 다루는 현의안을 올렸다. 진주남노회는 제안 설명에서 “불공정 재판 시비로 재판국원이 교체됐음에도 상식을 벗어난 재판으로 세상 언론에 가십거리가 되고 말았다”며 “총회 재판국 대신 화해조정위원회를 설치하자”고 밝혔다. 총회 재판국은 지난 7일 명성교회 관련 재판에서 최종 결정을 표결에 부쳐 8대 7로 명성교회가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를 청빙한 게 유효하다고 결정했다.

총회가 다시 태어나기 위해 ‘총회 혁신위원회’를 태스크포스(TF)팀 형태로 신설하자는 제안도 있었다. 서울강북노회 대전서노회 경서노회가 이를 요구했다. 전북동노회와 광주노회는 총회 본부를 5개 부처로 축소할 때 ‘늘어촌’ 명칭을 부서 이름에 넣어 노동상생을 모색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서울 강남노회는 “목회자 인식년 때 성도들이 담임 목사 신임을 묻는 사례가 없도록 총

회에서 결의해 달라”는 제안도 했다.

동성에 관련 이슈도 언제나 불붙을 수 있다. 총회가 ‘동성애는 죄악이고 명백히 반대하나, 동성애자 역시 구원 대상이어서 혐오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확정했음에도 포함노회 경안노회 등은 “미흡하다”며 강경 대응을 요구했다.

한편 장로회신학대 학생 736명은 재판국의 명성교회 목회 대물림 유효 판결에 항의하는 동맹휴업에 돌입했다. 이들은 총회가 열리는 다음달 10일까지 오후 수업을 거부한다. 안인웅 장신대 총학생회장은 “학내 민주화를 요구했던 1989년 이후 29년 만에 동맹휴업을 결의할 만큼 절박하고 참담하다”고 말했다.

다음 달 3일엔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명성교회 세습철폐를 위한 목회자대회’가 예고돼 있다. 기념관을 관리하는 유지재단이 장소 이용을 불허한 것을 규탄하는 기자회견도 30일 열린다. 이근복 대회 준비위원장은 “총대들을 포함해 1000명 넘는 목회자가 대회에 모일 것”이라며 “명성교회 판결 무효와 2013년 총회가 통과시킨 ‘교회세습금지법’의 취지를 재확인하는 결의를 총대들에게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총신대 정상화’ 3년째 최대현안

### 예장합동 103회 총회 핵심안건... 이단성 조사, 선거방식 변경

전북 익산 기쁨의교회에서 지난해 9월 열린 예장합동 제102회 총회 현장. 예장합동은 오는 10일부터 4박5일간 대구 반야월교회에서 제103회 총회를 진행한다.

총신대 정상화, 이단성 조사, 선거 방식 변경.

103회째를 맞는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총회장 전계현 목사) 총회가 다룰 핵심 안건들이다. 대구 반야월교회(이승희 목사)에서 오는 10일부터 4박5일간 진행되는 예장합동 총회에선 총신대(총장 김영우) 정상화가 3년째 최대 현안으로 올라와 있다. 예장합동은 총신대 재단이사회 구성을 놓고 힘겨루기만 하다 실마리 찾기에 실패한 채 101회기를 보냈다. 102회기엔 총장 퇴진을 촉구하며 시작된 절거농성과 교육부 실태조사, 재단이사 전원해임, 임시이사 선정 등이 숨가쁘게 이어졌다.

사태 해결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보여주듯 이번 총회에서 논의될 현

안의 360여개 중 총신대 관련 안건만 30개가 넘는다. 주제도 다양하다. 우선 ‘총신대 사태로 피해 입은 학생에 대한 보호’ ‘총신대 정관 원상회복’ 등 학교 정상화를 위한 선결과제가 눈에 띈다. 뿐만 아니라 ‘김영우 총장과 재단이사, 그에 협조한 보직 교수 조사처리’ ‘용역 동원 진상 조사처리’ 등 책임 추궁 및 징벌을 요하는 현의안도 다수 상정됐다. 검찰이 지난달 31일 배임증재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총장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하고 다음 달 5일 선고공판이 예정돼있어 관련자 징계에 대한 총대들의 요구가 강하게 제기될 전망이다.

여느 때와 달리 이단 사상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현의안이 신학적 해석을 요청하는 안건의 2배에 달하는 점도 눈에 띈다. 이번 총회에 올라온 이단성 조사 연구 요청은 12건이다. 현재 활동 중인 목회자, 선교사, 출판 관계자 등의 신학 사상에 대한 검증이 요청됐다. 평

강제일교회 창립자의 구속사 세미나 참석 및 교재 사용 금지 청원도 올라왔다.

‘총회입원 직선제에 따른 금권선거 방지’ 등 선거법 개정 및 보완에 대한 현의도 주목받고 있다. 교단 내에서 지난해 총회에서 직선제로 입원을 선출기로 결의하면서 “금권선거 문제가 쓰나미처럼 물려올 것”이란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6개 노회가 총회입원 선출시 ‘맛디아 선출방식’을 도입하자는 현의를 올렸다. 해당 노회 측은 “다수 후보가 출마했을 경우 직선선거로 다득표자 2인을 가리고 제비뽑기로 최종 1인을 선출해 과도한 선거운동을 사전 방지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내 최대교단’이란 수식어에 걸맞지 않게 한국교회와 대사회적 이슈를 아우르는 현의안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종교인 과세’ ‘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 ‘병역 대체복무 반대’에 관한 안건이 1건씩 올라와 있을 뿐 현의안 대부분은 교단이 당면한 구조적 문제 해결에 집중돼 있다.

## “명성교회...이제라도 세습 철회하라”

### 통합 서울노회 성명서 발표...남대문 새문안 연동 영락교회 등 참여

명성교회의 담임목사 대물림과 관련,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서울노회(노회장 서정오 동승교회 목사)가 세습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노회는 남대문교회, 무학교회, 새문안교회, 연동교회, 영락교회 등 교단 내 오랜 전통과 대표성을 지닌 교회들이 모여 있는 노회다.

서울노회는 지난 31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담임목사직 세습을 금지한 2013년 제98회 총회 결의는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한다는 사명감의 발로였다”며 “870대 81의 압도적 표차로 결의되고 헌법에 명시된 담임목사직 세습 금지가 명성교회가 보란 듯이 비웃으며 부자 세습을 불법적 방법으로 강행한 것은 총회와 본 교단 소속 교회 전체와 한국교회를 일시에 능멸한 폭거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그들의 행태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도발이며 만행이라고 규정한다”며 “그들의 세습 강행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오만과 불순종과 불신앙의 극치를 드러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우리의 무력함을 자복하며 참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용서의 은혜를 간구한다”며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명성교회는) 부디 속히 세습을 철회하고 본 교단과 한국교회 앞에 사죄하며 모든 문제의 해결을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또 “제103회 총회는 마땅히 이들의 판결을 단호하게 거부할 뿐 아니라 그들에게 응분의 책임을 엄히 물어야 할 것”이라며 “이제 총회는

총회가 갖고 있는 모든 권리와 방법으로 명성교회가 세습을 철회하고 총회의 권위에 순복할 것을 명령하며, 그 명령에 순복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그 교회와 담임목사를 비롯한 당회원 전원을 출교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노회에 앞서 순천노회 광주노회 전남노회 등이 반대 입장을 천명했고, 신학생과 선교사들의 반대 성명도 잇따라 나왔다. 또 명성교회 세습반대 공동서명 프로젝트에는 2일 오후 4시 7분 현재 9055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이런 가운데 3일로 예정된 ‘명성교회 세습철폐를 위한 목회자대회’와 관련, 총회 유지재단이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대강당 사용을 불허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근복 대회준비위원장은 2일 “총회 유지재단이 사과하고 대강당을 열지 않는 한 기념관 앞에서 행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출산은 하나님 명령... 결혼·육아 프로그램 속속 도입

한국교회가 저출산 문제에 앞장서야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출산이 하나님의 ‘첫 명령’이자 ‘최초의 복’이기 때문이다(창1:28). 따라서 저출산 극복 캠페인은 교회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다. 더구나 한국 개신교는 교인이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국내 1대 종교로서 사회 분위기를 쇄신해야 할 선도적 위치에 있다.

### 국내 1대 종교의 저출산 극복 대안은

기독교 관점에서 출산을 하라는 종교나 도덕의 가르침에서 벗어나 물질주의적·현세적 가치를 중시하는 세속주의(secularism)와 관련돼 있다. 세속주의의 확산은 내세에 대한 신앙을 약화시켰고 현세에 대한 강한 집착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경제적 부담을 크게 인식하게 만들었다. 덩달아 가족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까지 일었다.

신평식 한국교회총연합 사무총장은 “세속주의 확산에 따라 결혼 기피, 출산 연기 풍조가 자리 잡고 핵가족과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심지어 자녀 양육을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비용편의 분석에 따른 선택사항으로 여기는 시대가 돼 버렸다”고 개탄했다.

기독교 세계관 잡지 ‘월드뷰’의 발행인인 김승욱 중앙대 교수는 “기독교적 관점에서 저출산 문제의 밑바닥엔 가족 파괴와 해체는 리 등이 뒤섞인 세속주의의 확산이 깔려 있다”면서 “기독교가 하나님의 절대 명령을 받았음에도 자녀를 낳아 잘 키우는 것을 강조하는 유포스터도 그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한국교회는 저출산 시대 대안으로 가정과 교회공동체의 역할을 강조해야 한다”면서

“특히 건강간 사회를 회복하기 위해 시대적으로 종교의 힘이 더욱 필요했음을 한국사회에 설득하고 알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 저출산 흐름 끊기 위한 교회의 노력

그렇다고 교회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저출산과 반생명 문화의 위기 속에서도 출산을 장려하는 교육과 캠페인은 교회 현장에서 계속되고 있다.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 온누리교회 사랑의교회 복아현성결교회, 부산 호산나교회, 인천순복음교회 행복으로가는교회, 경기도 안양감리교회, 충남 남산교회, 원주 대장교회 등이 출산장려금 지원제도, 출산 후 스쿨, 결혼예비학교, 육아교실, 어린이집, 양육품앗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대안 찾기에 분주하다.

전남 광양대광교회(신정 목사)의 지역이 대표적이다. 교회는 임산부학교, 엄마랑아기학교, 대광어린이집 등으로 10년 넘게 영유아 사역을 펼치고 있다. 최근엔 지역 젊은 엄마들의 요청에 따라 ‘엄마꿈에 학교’ ‘아장아장학교’ ‘엄마랑아기학교’ 등 교회에 올 수 있는 영아의 개월 수를 낮춰 세부 프로그램을 짜다.

이 교회 안신애 교육전도사는 “교회가 위치한 광양 지역엔 국내 최대 철강회사 포스코 등의 영향

으로 타지에서 온 사람들이 많다”면서 “바쁜 남편의 도움 없이 타지에서 외롭게 ‘독박육아’를 하는 엄마들은 교회에 소통의 장이 생겼다면 이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된다고 한다”고 귀띔했다.

### 지역 엄마들의 필요 보듬는 교회

경기도 하남 성안교회(정학봉 목사)는 육아 스트레스를 받는 여성들을 위해 ‘해피맘’ 프로그램을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매년 봄가을 두 차례 매주 화요일 150여명의 지역 여성들이 모여 가정과 자녀문제를 주제로 공부한다. 이 중 50여명은 지역의 비신자다.

경기도 부천 역곡교회(김경서 목사)도 2007년부터 매년 두 차례 생후 6-36개월의 아기와 보호자를 위한 육아기학교를 운영한다. 유종숙 전도사는 “평소 육아 때문에 식사도 제대로 못하는 여성들이 교회 도우미들의 섬김을 받으며 마음의 치료를 받고 있다”면서 “아이뿐 아니라 엄마도 출산과 육아과정에서 겪은 어려움과 신앙적 공백기를 회복하고 비슷한 또래엄마들과 마음을 나누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처럼 교회는 주일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돕기 위한 조직과 구조에 머물지 말고 주중에도 지역사회의 다음세대를 양육하는 공간이 돼야 한다. 박상진 기독교학 교교육연구소장은 “저출산 시대 교회는 맞벌이 부부가 아이를 맡기고 출근할 수 있는 탁아, 아기학교, 보육, 공동육아 프로그램 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했다”면서 “그래서 자녀를 낳으면 교회가 책임진다는 인식으로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종교단체 시설 종사자에게 종교행위 강제 금지”

###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등 11인 법안 발의해 논란

교회를 비롯한 종교단체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자 등의 종교행위를 강제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11인은 지난달 6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시설의 종사자가 거주자 및 이용자에게 종교행위를 강요하지 말라는 것인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는 것이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상희 의원은 시설 관계자는 “최근 특정종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해 종교의 식이나 행사 참여를 강제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징직·해고, 사직을 권고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부족한 점이 있다면 법안을 계속 수정해 나갈 예정이다. 하지만 반대하는 이들이 많아 관련 세미나, 공청회 등은 열기 힘들 것 같다”고 전했다.

기독교계와 시민단체들은 “종교 시설 직원의 종교색을 지우려는 건 종교탄압”이라며 반대사를 밝혔다. 종교시설의 설립 목적을 침해하고 종교탄압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는 논평에서 “굳이 기독교 복지 시설이 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이런 법안을 개정하려는 의도가 매우 고약해 보인다”며 즉각 법안철회를 촉구했다.

심만석 교회언론회 사무총장은 “신앙을 갖지 않는 종사자는 자신의 종교와 맞는 시설을 찾아가면 된다”며 “법은 만든다고 능사가 아니고 분명한 취지와 목적, 결과까지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기존 체계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살피는 것이 기본이고 혼란도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능신교에 빠진 딸 뒤편치(24·여)씨를 찾아 한국에 온 무어침매이(47·여)씨는 “딸이 대학에 합격했는데, 전능신교에 빠진 뒤 2014년 잠적해 버렸다”면서 “출입국 기

록을 통해 한국에 있다는 사실을 겨우 확인했다”고 눈물을 글썽였다.

무어씨는 “4년째 딸과 통화 한번 못해 봤다. 사이버 종교에 빠진 딸이 난민이라는 것은 절대 인정할 수 없다”면서 “중국 내 전능신교 신도에 대한 탄압도 없는 마당에 무슨 난민이라는 말이냐”고 성토했다.

여동생을 찾기 위해 방한한 모어수원(44)씨도 “동생이 집에서 잘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면서 “가족들이 엄청 걱정하고 있다. 하루속히 집으로 돌아와 달라”고 애원했다.

지난해 11월에 이어 한국을 다시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원장 장현일)도 성명을 통해 “한국교회는 지난 130여년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소외이웃을 위한 사회복사에 힘을 쏟았다”며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법안이다. 기독교 사회복지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종교별 사회복지법인 현황에 따르면 전체 507개 중 기독교가 251개로 절반을 차지한다. 이어 불교 125개, 천주교 105개, 원불교 16개, 기타 10개 순이다.

국회 입법에도 해당 페이지엔 2500개가 넘는 의견이 달렸다. 대부분 법안을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종교 사회복지시설이냐 만큼 시설의 종교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정일웅 전 총신대 총장은 “종교단체라도 정부 등의 보조금을 받는 한 간섭을 피하기 어렵다”면서도 “하지만 이런 법안도 국민 의사를 무시할 수 없다. 한국교회가 무척여한다. 정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전능신교 가짜 난민을 가족 품으로”

### 중국 피해 가족, 청와대 앞에서 호소

“취안닝성자오 신투 부스 난민”(전능신교 신도들은 난민이 아닙니다).

중국 전능신교(동방번개) 피해자들의 외침이 3일 청와대 앞에 울려 퍼졌다. 전능신교에 빠져 종적을 감춘 가족을 둔 중국인 15명은 이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정부가 앞장서 전능신교 소속 가짜 난민을 중국 가족의 품으로 하루빨리 송환해 달라”고 촉구했다.

전능신교에 빠진 딸 뒤편치(24·여)씨를 찾아 한국에 온 무어침매이(47·여)씨는 “딸이 대학에 합격했는데, 전능신교에 빠진 뒤 2014년 잠적해 버렸다”면서 “출입국 기

찾은 리원제(33)씨는 “어린 딸을 두고 가출한 아내를 찾기 위해 또다시 한국에 왔다”면서 “아내와 어렵게 통화를 하는데, 그때마다 누군가 옆에서 작은 목소리로 지시를 하더라”고 말했다.

들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전능신교 신도들이 한국의 난민법을 악용해 장기체류를 하고 있고 가짜 난민 소송을 제기해 가족관계를 단절시키고 있다”면서 “전능신교가 난민팀까지 운영하며 가출하게 한 뒤 기획 입국을 시키고 있다. 신도들을 속히 가정으로 돌려보내라”고 촉구했다.

이날 중국인 피해자들을 환영하던 전능신교 관계자는 “신도들은 가출하지 않았다. 가짜 난민이라는 비판에 대해선 말할 필요도 없다”고 했다. 피해자들은 4일 총복 보은군 전능신교 집단합숙소 앞에서 시위를 벌인다.

# 선교의 창 (108)



송종록 목사 (대학선교, Ph.D)

##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에 대한 선교적 시각

기독교의 핵심은 구원이다. 구원은 헬라어로 소테리아(σωτηρια)이다. '소테리아'는 영혼 구원을 넘어선 전인 구원을 뜻하고, 개인 구원을 넘어서 사회 구원에도 사용된다. 우리는 헬라적인 이원론에 익숙하여 이 둘을 분리하려고 한다. 그래서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을 별개의 문제로 보려는 경향이 있다. 동전의 양면성과 같은 개인구원과 사회 구원을 위해 보수와 진보의 시각차가 크다.

복음주의 계통에서는 교회선교를 말씀의 선포와 개인의 영혼구원에 집중시켜왔다. 그러나 선교에 대한 전통적인 이 개념은 사회참여(Social action)를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반발과 도전을 받아왔다. 사회구원에 관한 쟁점은 20세기 후반기에 에큐메니칼운동에 의해서 급부상하였다. 그러나 다행히도 양 극단의 노선은 로잔대회에서 통합적으로 잘 정리되었다. 아무튼 우리는 흑백논리로 다른 진영을 판단하기보다 말씀과 교회의 선교역사 속에서 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순진한 발상이라고 비판한다. 사회 구조 약은 개인의 합보다 더 큰 힘을 갖기에 영적 행보만으로는 한계적이라는 것이다. 결국 진보주의 노선은 사회 참여로 영향력을 드러냈지만 정작 복음의 순수성과 교회의 "거룩"을 훼손하는 일반 사회단체로 전락하는 경향이 있어왔다.

2. 구원 사역에 대한 역사적 이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 주님은 정치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으셨다. 정당을 형성하거나 정치인으로서의 생애를 거절했

3. 칼빈의 사상

"칼빈의 정치사상은 16세기 유럽의 정치상황과 무관치 않은데, 국가가 종교에 예속된 중세와 이원론적 세계관의 재세례파에 반대하여 나왔다. 한 마디로 교회와 국가의 유기적 관계, 즉 국가와 교회의 통치영역을 구분했다. 그는 "기독교 강요"를 통해 국가는 교회의 예배를 보장하고, 교회는 국가가 바른 길로 가도록 충고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리고 독재자에 대한 무조건적 순응을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복음을 우선시하는 친정부적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칼빈의 정치사상이 후대에 가장 모범적으로 구현된 사례는 아무래도 네덜란드의 아브라함 카이퍼 때라 할 수 있다. 칼빈주의는 화란의 소시민과 상인들에 의해 주로 수용돼 독립전쟁에도 깊이 관여했고, 이로 인해 네덜란드는 사실상 칼빈주의 국가가 됐다. 여기서 카이퍼는 '영역구분 사상'을 통해 정치와 교육 등을 개혁했고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강조했다.

한 현실문제만을 강조함으로써 뜨거운 영적 힘과 신앙을 잃어버린 진보적인 교회를 향해 다 같이 던진 개혁의 선언이었다. 참 기독교는 그의 주장대로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즉, 기독교는 종교이면서 종교만은 아니며, 윤리이면서 윤리만도 아니라는 사실이다.

기독교는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즉 영원과 시간, 절대와 상대, 무한과 유한, 완전과 불완전의 만남이다.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로만 생각할 때 이웃에 대한 봉사나 현실참여가 무시 된다. 또 기독교를 하나의 윤리로운 생각하면 모든 가치기준을 인간에게만 두기 때문에 인간외의 어떤 권위도 인정할 수 없게 된다. 여기에는 신의 권위도 영적계도 존재할 수 없으며 다만 물질적인 현실세계 만을 문제 삼게 된다.

맺음 말

하나님은 교회의 하나님과 동시에 세상의 하나님도 되신다. 이로서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은 사회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 그리스도인의 사회참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화적이고 민주적이며 점진적이어야 한다.

순봉호 교수는 "그리스도인의 사회참여는 선지자적 비판주의에 입각해서 이뤄져야 한다. 이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시도하는 것

하나님은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주권자이시다.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은 뗄 수 없는 상관관계 속에 있다.  
교회는 개인 구원을 우선하되 사회를 위해 파수꾼의 역할도 감당해야 한다.

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18세기의 웨슬리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부흥운동도 복음을 전파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개혁운동을 활발하게 일으키는 계기가 됐다. 19세기 미국에서도 복음전도와 사회 참여를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았다.

선교는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세계복음화 국제회의를 기점으로 새로운 물줄기를 타게 되었다. 로잔언약의 핵심은 "사람과 화해가 곧 하나님과의 화해가 아니며, 사회행동이 곧 전도는 아니며, 정치적 행방이 곧 구원이 아닐지라도 전도와 사회-정치적 참여는 그리스도인의 의무임을 인정한다고 발표했다." 그리스도인의 사회활동은 복음전파의 결과인 동시에 복음전파에 이르게 하는 다리로 봐야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로잔대회에서는 양극화된 두개의 극단적인 견해를 통합적으로 정리해주었다. 존 스토틀 목사에 의해 주도 된 로잔언약은 개인 구원을 우선하되 그리스도인의 사회참여를 무겁게 거론함으로써 교회의 나아갈 방향을 명료하게 제시해 주었다.

4. 라인홀드 니이버(R. Niebuhr) 교수의 생각

미국의 저명한 사상가요 신학자인 라인홀드 니이버(R. Niebuhr, 1892. 6.21-1971. 6.1) 교수는 그의 저서 윤리학에서 참된 기독교는 두 가지 차원의 건전한 조화에서만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인 차원이며, 둘째는 이웃을 향한 수평적인 차원이다. 전자는 종교와 신앙, 후자는 윤리와 사회생활을 강조한 것이다. 참 기독교는 종교와 윤리, 신앙과 행위, 정신과 물질의 건전한 조화 속에서 성립된다고 강조했다.

### 4. 라인홀드 니이버(R. Niebuhr) 교수의 생각

40여 년 전에 니이버 교수의 이런 주장은 그 당시에 미국사회 안에 영적인 신앙만 강조하고 현실을 외면했던 정통의존 사회와 또 이웃에 대

이 아니라 시도하는 것 그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임무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인간의 노력은 성공할 수 없고, 성공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한다.

아무튼 우리가 유념할 것은 크리스천은 단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몸부림치는 개혁자나 사회봉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적 통치가 이 세상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실천하는 사람들이다. 세상은 불행하게도 창의적 접근 지역 등 복음이 들어가기 어려운 아담과 폐쇄된 곳이 너무나 많다. 후일의 권세 아래 신음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문제의식 없이 마치 소가 닭보듯이 세상을 무감각하게 사는 것은 문제가 크다.

우리는 개인구원을 통해 사회변혁을 시도하지만 동시에 불의한 사회를 위해서 파수꾼의 역할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우리가 과감하게 교회 담을 넘어 주님의 상한 마음이 있는 땅 끝까지 함께 가는 것이다..

jsong007@hanmail.net

## 선교지 소식

### 은퇴 후 제 2차 멕시코 선교를 다녀와서

2017년 3월 정기노회에서 공로목사로 추대 받으셨던 은퇴목사로써의 행보를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가운데 계속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에게 주신 큰 은혜요 축복인줄 믿습니다.

이번에 22회째 멕시코를 다녀왔습니다. 매년 멕시코를 다녀올 때마다 느끼는 것은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목감기가 와서 다소 컨디션이 좋지 못하였는데 현지에서는 오히려 더 큰 소리로 기쁨으로 할렐루야를 외치며 복음을 증거 할 수 있어 얼마나 힘이 나고 기쁨이 가득했는지 모릅니다.

저들의 까만 손을 일일이 잡아주면서 따뜻한 타코 음식을 접대하고 예수님을 소개하였습니다. 그동안 몇 번을 보았지 못했던 80대 할매를 만났습니다. 손자와 함께 3대가 쓰레기 매립장에서 일을 하는데 역시나 오늘도 '할렐루야' 하면서 기쁨의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선교지에서 이용덕 목사(뒷줄 오른쪽 첫번째)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귀한 분들입니다 청년으로부터 노인 에 이르기까지 연령대는 다양하지만 저들에게는 하나같이 얼굴에는 만족함이 있고 행복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들은 거의 다 집이 없습니다. 조금 여유가 있으면 고물 자동차라도 차 안에서 생활하고 그것마저도 없으면 비닐이나 박스로 천막을 치고서 그곳에서 생활을 합니다.

어떤 이는 거동이 좀 불편한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도 얼굴에는 웃음이 가시지 않고 모두 다 손에 쥔 타코로 감사하고 식사를 합니다. 우리가 저희들에게 해결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라도 그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음식을 접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은 너무나도 작은 것이지만 주님은 저들에게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쓰레기 매립장에 갈 때마다 미화 200불이면 약 250명에게 점심 한 끼를 대접해 드릴 수 있습니다. 매년 이일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분들은 알베르 목사님 교회의 성도님들입니다.

아침부터 일찍 나와서 타코를 만듭니다. 그 준비와 정성은 대단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일일이 서빙을 합니다. 이렇듯 없이 빛도 없이 섬기고 봉사하는 그들의 손길이 더 아름답습니다.

오늘 저는 이런 감사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갈 때마다 제가 소유하고 있는 미니밴을 운전해서 갑니다. 금년까지 은퇴 후 22번이나 간 멕시코 선교이지만 매년 제가 운전해서 해서 갑니다. 왕복 350마일(560km)의 길이지만 언제나 감사로 봉사합니다.

갈 때마다 일행들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저는 주님이 쓰셨던 나귀와 같이 쓰임 받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제 자동차로 운전해서 팀들을 모시고 가는 것이 참 편하고 기쁘고 감사합니다. 좋은 건강을 주시는 것 계속해서 이 일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주는 차는 아닐지라도 고삐 나지 않게 선교하는 일에 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팀들의 기도 제목은 선교 전용 자동차를 구입하는 일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 자동차는 16만 마일과 타고 있어서 혹시나 멕시코에서 고장이라도 나면 어쩌나하고 위급한 상황이 오지 않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은퇴 후에 함께하시는 우리 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을 위한 기도도 잊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지면을 통해 언제나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후원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는 분들을 향해 깊이 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용덕 목사 드림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 서부(CA)교회안내

<p><b>감사한인교회</b> 담임목사 : 구봉주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E.M. Youth 예배: 오전 11:00 주 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 기도회: 오전 5:40(월-금) www.thanksavingchurch.com Tel: (714)521-0991, Fax: (714)521-4638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2620</p>	<p><b>나성순복음교회</b> 담임목사 :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아찬양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lafgusa@yahoo.com / www.lafgusa.com Tel: (323)913-4499, Fax: (323)913-4494 1750 W. Edgemont St., L.A., CA 90027</p>	<p><b>나성영락교회</b> 담임목사 : 박은성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1:30 (청년) 새벽기도회: 5:30(월-금), 6:30(토)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 Fax: (323)227-0718 www.youngnak.com</p>	<p><b>나성제일교회</b> 담임목사 : 김문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주 일 학교: 오전 11:00 새벽 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Tel: (213)388-7101, (F) (213)388-656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p>	<p><b>나침반교회</b> 담임목사 : 민경협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영아) 주 일 학교: 오전 11:00 영아찬양예배: 오전 5:30 토요영아찬양예배: 오전 9:00 토요한국학교: 오전 9:00 Tel: (562)691-0691, (F) (562)691-0698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amp; Puente) / www.nachimban.org</p>		
<p><b>남가주든든교회</b> 담임목사 :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 예배: 오전 11:00 주 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 기도회: 오전 5:40(월-금) Tel: (213)481-2779 / Fax: (213)481-3761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facebook.com/srcca</p>	<p><b>남가주사랑의교회</b> 담임목사 : 노창수 주일 1부 예배: 오전 7:20 주일 2부 예배: 오전 9:2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20 청년 이 예배: 오후 1:20 영아찬 (영소:KDC, 킹덤드림센터)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 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www.bic.org</p>	<p><b>대중장로교회</b> 담임목사 :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아예배: 오전 9:30 새벽 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 요 예배: 저녁 7:30 Tel: (714)719-2244, Fax: (714)719-2229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www.dkc.org</p>	<p><b>디아스포라교회</b>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품어지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신교회" 주일예배: 오후 2:30 Tel: (213)559-7728 (전혀 팩스 없음), Tel: (213)210-6890 2333 Beverly Blvd., L.A., CA 90057</p>	<p><b>미주양곡교회</b> 담임목사 :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매일) 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p>	<p><b>미주평안교회</b> 담임목사 :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주일 2부: 오전 9:45 주일 3부: 오전 11:00 (청년4부예배: 오후 1:45)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수요성령기도회: 오후 7:30 www.mpcia.org Tel: (213)388-2202, Fax: (213)381-2535 170 Bimlin Pl., Los Angeles, CA 90004</p>	<p><b>빛과 소금의 교회</b> 담임목사 :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아) 금요예배: 오후 8:00 주 일 학교: 오전 5:45(월-금) 새벽 기도회: 오전 6:00(토) Tel: (310)749-4756 21519 S. Menlo Ave. Torrance CA 90502</p>
<p><b>베델인교회</b> 담임목사 : 김한요 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15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주일학교: 오후 2:30 성인영양예배: 오전 9:15, 11:30 영아예배: 오전 1:30 수요일: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Tel: (949)854-4010 / E-mail: beltheb@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www.bkc.org</p>	<p><b>LA 복음연합감리교회</b> 담임목사 : 김효용 주일 1부 예배: 오전 9: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아동부/청소년부 오전 11:00 청년부 성경부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성령강화(목요일) 오전 10:00 새벽예배: 오전 6:00 Tel: (323)641-0691 / ys2104@hotmail.com / www.lagumc.org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p>	<p><b>복음장로교회</b> 담임목사 : 김상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2:00(대학부) 수요일예배: 오후 7:30 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p>	<p><b>세계소망교회</b> 담임목사 :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 (213)745-9191(CEH), 사택(818)893-88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p>	<p><b>웨스턴교회</b> 담임목사 : 정상호 주 일 예배: 오전 11:00 수 요 예배: 저녁 7:30 금 요 예배: 저녁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매일) Tel: (213)245-4090 (F), Tel: (310)365-1670 1400 Alvarado Terrace L.A., CA 90006</p>	<p><b>얼바인침례교회</b>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후 2:00(EM) 새벽 기도회: 오후 5:30(월-금) 오전 6:00(토) 수요성령기도회: 오후 7:30 www.irvinechurch.com Tel: (949)857-9425 / Fax: (949)857-9472 5101 Walnut St., Irvine, CA 92604</p>	<p><b>월서크리스천교회</b> 담임목사 : 엄규서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아)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영아) 주일학교: 오후 2:00(토요일)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주 일 학교: 오전 11:00 토요일영아예배: 오후 6:00 Tel: (213)384-7274, Fax: (213)384-8638 3435 Wilshire Blvd., #11 L.A., CA 90010</p>
<p><b>은혜안인교회</b> 담임목사 :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후 2:30 금요성령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6:00(토) 온라인세계기도회: 365일 24시간 www.gracemc.com Tel: (714)446-6260, Fax: (714)446-6207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p>	<p><b>주님세운교회</b> 담임목사 : 박성규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30(영아) 주 일 학교: 오전 11:00 새벽 기도회: 오전 5:30(월-토) 성령대명회: 오후 7:20(금) Tel: (310)325-4020, Fax: (310)325-4025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www.junimchurch.com</p>	<p><b>주님의영광교회</b> 담임목사 : 신승훈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00 수요/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 Tel: (213)749-4500, Fax: (213)749-6700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www.gccj.org</p>	<p><b>중은마음교회</b> 담임목사 :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전 11:00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www.socalsamsungchurch.org / e-mail: pastor@laccornestone.com Tel: (714)646-9299 Fax: (714)646-9264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p>	<p><b>코너스톤 교회</b> 담임목사 :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 요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www.cornestonecv.com / e-mail: pastor@laccornestone.com Tel: 310-370-5500, Fax: 310-370-2009 18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p>	<p><b>토렌스노은교회</b> 담임목사 : 김우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아)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EM) 주일 5부예배: 오후 2:00(청년) 침례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www.torranceccc.org Tel: 310-370-5500, Fax: 310-370-2009 18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p>	<p><b>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들을 찾습니다</b>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www.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 신앙과 삶



하형록 목사  
(갈보리비전교회 담임, TimHaahs 회장)

## “세상의 고속도로에서 하나님의 고속도로로!” (5)

스물아홉 나이에 중역의 자리에 오르고 성공가도를 달리던 서른셋의 어느 날 그에게 예고 없이 찾아온 불행. '심실빈맥'이란 판정을 받고 생사를 오가야 했던 그는 절박한 위기의 순간들을 필사적으로 넘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났다.

심장이식 수술을 마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그는 잠언 31장에서 얻은 지혜로 하나님의 기업 '딤하스(TimHaahs)'을 시작했고 잠언 31장에서 뽑은 주옥같은 성경의 원리들을 그대로 실천하며 비즈니스계의 하나님의 모델로 쓰임 받고 있으며 현재 갈보리비전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본 글은 '성경대로 비즈니스하기 P31'에 수록된 간증을 발췌 정리했다.

죽음 앞에서 만난 하나님 기업의 비밀

내가 성경 말씀을 본격적으로 읽기 시작한 것은 이식수술을 위해 병원에 입원했을 때부터다.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며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보았다. 병원은 내게 광야와 같은 곳이었다. 나는 의식이 있는 거의 모든 시간에 성경을 읽었다. 그때는 하나님과 나, 둘밖에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전에는 무심히 넘겼던 말씀이 마음에 들어왔다. 그것은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마22:39)는 말씀이었다. 건강했을 때 그 말씀은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었다. 목사, 자선단체, 선교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한테나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말씀이 나와 상관있는 말씀으로 다가왔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이기적인 나를 계속해서 깨워가셨다.

그때까지 나의 신앙은 수직적이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이상이 없다고 확신했고 그 사랑 안에서 나의 능력을 확인하고 오직 나만 바라보았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은 그

일을 위해 부름을 받은 목사나 선교사들이 하면 되므로 나는 내게 주어진 일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한가지였다. 일단 구원을 받은 저에게는 할 일이 있다는 것이다. 구원은 선물로 주시지만 받은 사람은 그 선물을 수평적으로 사람들에게 나누어야 한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됐다.

지금까지 나는 내 가족을 포함한 나만을 위해서 살았다.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고 부모님을 위해 좋은 대학을 갔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 나 자신을 위한 일이었다. 구원을 받고도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섬기고 있었던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세상과 죄를 향해 달려가는 나를 붙들어 세우사 참 성도된 자의 길로 돌이키시려고 심장병동까지 오게 하셨던 것이다. 그것을 확인하면서 나는 내 삶의 중심을 내가 아닌 남에게 두기로 결심했다.

그 즈음 아내가 내게 신문을 보여 주었다. "여보, 광고가 났네요." 어려운 사람을 돕는 미국 자선단

체인 '스프랜키친'이 기금이 없어서 문을 닫는다는 소식이였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뉴스를 보고도 아무런 감흥이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설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소식은 내 마음을 내내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 광고를 보았을 때 나는 병원에 있었고 심장이식수술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아내와 나는 "만일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면 이런 단체를 돕겠다"고 기도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다리셨다는 듯이 길을 활짝 열어 주셨다. 그것도 내가 상상도 못한 방법으로 말이다.

사실 월급쟁이들은 아무리 보통 사람들보다 몇 배로 월급을 받아도 집 렌트비며 카드 값이며 세금이며 지불하고 나면 저금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미국은 세금이 많아서 저축은 그야말로 꿈이다. 그런 형편에 남을 돕겠다니, 고작해야 한 달에 몇십 달러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좀 더 많은 사람을 도우려면 비즈니스를 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1993년 1월에 심장이식 수술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다. 수술 직후라서 또 몇 개월을 집에서 쉬어야 했다. 그렇다 보니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다. 집을 팔려고 내놓았지만 팔리지도 않았다. 약값이 없어서 동료 환자에게 남은 약을 구하러 다닌 적도 있었다. 그런 중에도 나는 내 삶의 방향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이전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강했다. 사업을 하기로 마음먹은 것이 그 무렵이었다.

아내는 1년을 말했다. 대수술을 받은 탓에 얼굴은 부어 있고 먹는 약만 해도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그날 이후로 오늘날까지 하루에 한 움큼씩 약을 먹는다는. 그렇게 약을 먹으면서 무슨 사업을 하냐는 거였다. 틀린 말은 아니었다.

다니던 직장에서는 나를 배려해 설계 프로젝트만 따오라고 했지만 나는 더 이상 회사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물론 내가 자리를 비운 사이 다른 사람을 고용한 상태였다. 나는 무엇보다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싶었다. 그러려면 회사로 돌아가선 안 되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조직이 필요했다.

하지만 그 무렵 우리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직장 다니며 번 돈으로 집을 몇 채 사두긴 했지만 엄청난 금액의 병원비를 대느라 다 팔아치우고 남은 것이라곤 가족들이 살고 있는 집 한 채가 전부였다. 더구나 장인이어서 하던 사업마저 부도가 나서 우리는 그야말로 어느 쪽에도 손을 벌일 형편이 못했다.

1994년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나는 빚더미 위에 올라앉은 상태였다. 의료보험비를 낼 돈조차 없었다. 그러다 1995년, 하나님의 은혜로 템플대학에서 큰 프로젝트를 따낸 것을 시작으로 기적 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났다. 창업을 한지 불과 1년 만에 우리는 창고를 벗어나 사무실다운 사무실을 갖게 되었고 첫 파트너로 온 놀리 알라콘 부사장을 비롯해 15명의 직구가 생겼다. 하나님은 사업을 통해 재정적인 회복을 주셨을 뿐 아니라 육체적인 회복과 가족관계의 회복도 허락해 주셨다.

그러나 1998년 2차 이식수술을 받기 위해 6개월가량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정말 재미있었다. 약을 맞기 위해 줄을 주렁주렁 단 채로 환자와 성경공부반을 만들어서 말씀을 보는 가 하면 비즈니스 미팅도 했다. 내가 입원하고 있으니 회사로서는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께 맡긴 회사이기에 별로 걱정하지 않았다. 죽음의 위기에서 나를 살리신 하나님이 당신의 기업을 이끌어 가실 것이라 믿었다.

(정리: 이성자 기자)

### 건강 길라잡이



이영직 내과전문의

## 과민성 대장 증후군

복통, 설사, 변비 나타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irritable bowel syndrome)은 글자 그대로 장(소장과 대장)이 너무 민감해서 비정상적으로 수축하기 때문에 복통을 호소하거나 설사나 변비를 유발하는 질환이다. 이 병은 미국에서 가장 흔히 진단받는 위장관계 질환이고 감기 다음으로 흔한 병의 원인이다. 통계를 보면 전체 미국 인구의 약 10~20%가 이 병을 앓고 있으며 약 15%가 병원을 찾는다고 한다.

-연관계에 종사하는 30대 후반의 여성 임씨는 지난 3개월간 복통으로 고생해왔다. 과거에도 장이 약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왔는데 지난 3개월 동안은 심한 복통과 변비 때문에 거의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기 어려웠다. 특히 업무로 인해서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한 경우에는 왼쪽 아래쪽 복부의 통증이 더 심했다. 통증의 양상은 마치 쥐어짜는 듯했고 음식을 먹으면 더 심했다. 변비가 심하다기도 가끔 설사가 나기도 하는데 이때는 소량의 묽은 변이 자주 나오곤 했다. 또 화장실에 가고 싶은 생각이 급해서 화장실에 가면 변이 잘 나오지 않고 대변을 보고 나서도 시원한 생각이 별로 들지 않았다.

임 씨는 늘 복부에 가스가 차 있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잠을 자는 동안은 복부 증상이 사라졌다. 임씨는 과거의 특별한 질병을 앓은 병력은 없었지만 항상 장이 약하다고 생각했고 중요한 시험이나 발표를 앞둔 때마다 장에 탈이 나곤 했다. 이때 항상 설사와 변비가 번갈아서 나타났다. 또 월경을 할 때 통증이 몹시 심해서 피임약을 복용하고 있었다. 담배와 술은 마시지 않고 연관계에서 일하는 특성상 일로 인한 스트레스가 항상 많은 편이었다.

임씨를 진찰했다. 혈압이나 맥박은 모두 정상이었고 촉진할 때 복부 아래쪽에 통증이 있었다. 혈액검사와 대변 검사도 정상이었다. 임씨는 병력을 바탕으로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했다.

이 병의 원인은 음식 알레르기나 감염 등으로 설명하기도 하지만 정확한 원인이 규명된 바는 없다.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과민성 대장 증상을 악화시키는 하지만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다. 진단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 병력이지만 염증성 장 질환 등도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혈액검사나 대변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고 드물게 장 내시경을 해야 하는 수도 있다.

치료는 먼저 증상을 유발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평소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먹는 것이 좋다. 변비가 주된 증상으로 나타나면 장 운동을 증가시켜주는 세로토닌길항제를 쓸 수 있고 설사가 주된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장 운동을 감소시켜주는 항콜린성 약물을 사용한다. 다만 이 약물들을 과잉 사용하는 경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서 한다.

## ‘남미에 성령의 불 다시 타오르게...’

8월29일-9월4일 소강석 목사 등 아르헨, 파라과이, 브라질 3개국 한인교회서 부흥성회

남미는 가톨릭이 강세로 복음화율이 10% 내외다. 하지만 최근 기독교, 특히 하나님의 성회가 크게 부흥하고 있다. 브라질은 전체 인구 2억명 중 기독교인이 4000만명인데 이중 하나님의 성회가 절반 이상이다. 여기에는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의 1997년 특별 대성회가 큰

역할을 했다. 상파울루의 한 경비행장에서 열린 성회에는 150만명이 운집했다. 브라질 최고의 성회로 불렸다. 그러나 최근 현지교회와 달리 한인교회 성장은 주춤하고 있다. 문을 닫거나 작은 교회끼리 합치는 경우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성령세계2020(대회장 소강석 목

사)·세계성령중앙협의회(대표회장 이수형 목사)가 지난달 29일부터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브라질 등 3개국 한인교회를 방문해 성령의 불을 다시 지피는 '성령 라틴아메리카 2018' 성회를 열고 있는 이유다.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성회다. 교회가 다시 부흥하려면 결국 성령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브라질에선 지난 2일 브라질한국인교회목회자협의회 주최로 순복음쌍파울로교회(윤성호 목사)에서 성회가 진행됐다. 성회에는 상파울루에 있는 한인교회 성도 400여명이 참석했다.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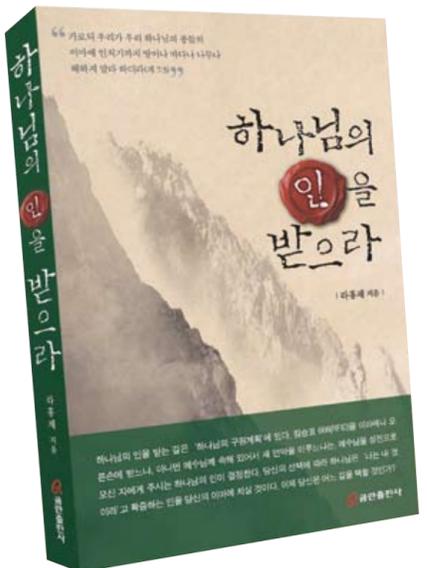
민사회라는 것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인원이다.

주 강사인 소강석 목사는 성회에서 자신의 간증을 바탕으로 한 사람이 은혜 받고 성령을 받으면 세상이 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회 다니는 친구들을 괴롭히던 아이였으나 고2때 동생을 따라 교회에 처음 나갔고 수련회에 갔다가 성령을 체험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쓰겠다든 음성을 듣고 목회자가 됐다. 지금은 교회 다니고 집 밖으로 쫓아냈던 아버지를 비롯해 모든 일가 친척이 모두 예수를 믿는다고 했다.

#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타 GPS CENTER

## 도서안내

- 하나님의구원계획 10권
- 성경도표
- 다니엘, 계시록(상,하)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책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책
- 구약, 신약, 사도행전 DVD
- 다니엘계시록 DVD
- 70이레, 최고의 복, 계 1:7 DVD
- (영어책)구약, 신약, 70이레
- (중국어책)하나님의구원계획 4권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POWER POINT)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POWER POINT)
- 하나님의 구원계획(POWER POINT)



하나님의 구원계획 성경공부를 인도하실 사역자들은 소정의 교육(7시간)후 POWER POINT와 모든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뉴욕제자들교회:(917)588-2934 / (917)968-1024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27-23 Bayside Ln, #1FL, Flushing NY 11358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 323-665-0009(LA)(판매)

Food in Bible(4)

생명의 떡, 곡류 & 두류 (상)  
(Bread, Grains, & Legumes)



최성은  
(Ph.D, RD, 퀸즈칼리지 교수)

“사람이 떡(bread)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4:4,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되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눅4:4라는 구절에도 불구하고 이 떡(bread)은 오랫동안 생존에 필수적인 음식의 대명사처럼 여겨져 왔다.

이 생명의 ‘떡’에 해당하는 헬라어 (ἄρτος)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많은 무교병인 것이다. 성경에는 사람들이 종종 무교병을 먹은 일들이 등장하고 있다. 룻이 낫신 사람을 대접할 때 급히 무교병을 구워 대접했으며(창19:3), 기드온이 천사를 대접할 때에도 무교병을 대접했고(삿6:19-22), 엔돌의 신접한 여인이 사울 왕에게 차려준 빵도(삼상28:24) 누룩 없는 빵이었다. 이러한 기록을 보면 유대인들은 뜻하지 않게 손님이 없었기 때문에, 누룩을 넣지 않고 밀가루를 반죽하여 그대로 구워서 대접했던 것 같

이후 애굽의 누룩 넣은 빵은 헬라시대를 거쳐 로마시대에 들어오면서 제빵 기술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고 밀종으로 만든 체를 이용하여 고운 밀가루를 구하고 당분과 이스트의 작용으로 발효를 일으켜 부드럽고 질 좋은 빵을 만들 수 있었다. 또한 기독교가 유럽 전체로 빠르게 전파됨에 따라 제빵 기술도 유럽 각지로 퍼져, 빵은 없어서는 안 되는 주식이 되었다.

따라서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시므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요6:35, 41)에 비유하고 부활 후 제자들에게 조반으로 떡(bread)을 주신 것을 보면(요21:9), bread가 성경 시대에 가장 주된 주식의 형태였음에는 틀림없었던 것 같다.

또한 히브리어에서 베들레헴은 집이란 뜻의 “벧트”와 떡이란 뜻의 “레헴”이 합쳐져 “떡집”(House of Bread)이란 뜻을 갖고 있다. 이곳은 룻기에서 룻의 시부모와 남편 보아스의 고향이기도 하려나와(룻1, 2장), 보아스의 자손이며 이스라엘 2대 왕인 다윗과 예수의 출생지였다(삼상16장; 마1장). 무엇보다 예수는 생명의 떡(bread)으로 여겨졌

수렵목축생활서 농경생활로 넘어가며 곡식 반죽해 돌에 구워  
BC 2000년 이집트인들이 이스트 넣은 본격 발효 빵 만들어

한결같이 bread, 즉 빵으로 번역하고 있지만 한글 성경에서는 bread가 늘 ‘떡’으로 번역이 된다. 서양에서 주식으로 이용되는 bread와 같은 개념이라면 ‘떡’이 아니라 ‘밥’으로 번역이 되었어야 하지 않을까 가끔 생각해보지만 인류 역사상 bread가 여러 형태로서 종교적 의미를 전달함을 생각해볼 때 우리 문화에서도 ‘밥’보다 종교적 의미가 강한 ‘떡’이 더 나은 단어 선택이었을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빵의 역사는 약 6000년 전 인류생활이 수렵목축생활에서 농경생활로 넘어가면서 곡식을 반죽하여 돌에 구운 것이 그 기원으로서 처음에는 무발효 빵(무교병, unleavened bread)이었으나 기원전 2000년에 이집트인들이 처음으로 이스트를 넣은 본격적인 발효 빵의 시조인 것으로 보인다.

성경에 보면 이러한 빵의 발달 과정이 잘 나타나 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향해 가던 천사 일행을 알아보고 영접하는데, 사라는 저들에게 고운가루로 반죽하여 죽색에서 떡을 만들어 대접했다고 기록되어 있다(창18:6). 따라서 이는 발효시키지

다. 역시 출애굽 할 때의 장면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워낙 급히 하는 바람에 빵을 발효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에 발효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이 기록으로 추측해보면 이 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적 여유가 있었을 때는 누룩 넣은 빵을 만들어 먹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오늘날 유대인들은 출애굽의 긴박함을 기념하기 위해 누룩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는다. 그러나 유월절에 무교병을 먹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한다.

누룩은 음식에 발효를 일으키는데 유대인들은 이러한 누룩의 발효작용을 물질이 썩는 것으로 이해하여 누룩을 영적인 의미에서 ‘부패’와 ‘타락’의 상징으로 여기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간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소제, 레2:1-16)에 꿀과 누룩을 넣는 일이 금지되었다. 그러므로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해방을 기억하면서 종교적 도덕적 타락을 의미하는 ‘누룩’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돌아본다는 것이다.

기에 이 지명은 적절한 것이 아니었을까.

기드온이 들은 꿈 이야기에 등장하는 보리떡이나(삿7:13) 신약의 오병이어 구절들(마14:17; 막 6:38; 눅9:13; 요 6:9, 11)에 등장하는 떡(bread)은 유대인들의 주식으로서 보통 밀가루와 보리가루로 만들었는데 보리가루는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사용하였다고 한다. 모양은 대개 지름이 40cm 정도로 납작하고 둥근 접시 모양이었다는데, 오늘날의 샌드위치처럼 빵과 물고기를 함께 먹었다는 얘기도 있는 걸 보면 아마도 요즘도 중동 사람들이 먹는 pita bread가 아니었을까 추측된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오병이어 사건이 출애굽 사건과 연관되어 나타나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매추라기를 주셨듯이(출16:13-15) 예수님께서서는 무리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주셨다. 만나와 떡은 그리스도를 예표 한다. 예수께서는 스스로를 ‘생명의 떡’(요6:35), 하늘로서 내려온 떡(요6:58)이라고 하심으로써 인류의 영적 생명의 원천이 되심을 밝히셨다.

cse1001@gmail.com

매일가정예배

전화령 목사(캠보디아선교사)

whiteyou11@yahoo.com

월 마음을 넓히라(고후6:11-13)찬88장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라던 교회는 우리를 기르시는 어머니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바른 성장을 위해 바른 교회생활이 중요하합니다. 어떻게 교회생활을 바로 할까요? 첫째, 교회를 향한 사도의 넓은 마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사도의 마음이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새 역사가 일어납니다. 둘째, 사도를 향한 좁혀진 마음을 경

계해야 합니다. 고린도교회의 타락은 사도 곧, 성경의 가르침을 겸손히 받지 못하면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교회는 짐승처럼 우둔하여 자기 탐욕을 채우기 위해 교회를 이용하는 자리로 떨어집니다. 셋째, 넓은 마음으로 용납해야 합니다. 세상에 대해 좁은 마음을 갖지만 말씀을 순종으로 겸손히 받을 때 주의 은혜를 누리며 당면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화 하나님의 성전(고후6:14-18)찬498장

옛 언약의 성막과 성전은 새 언약의 실제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 곧, 교회로 완성되기 때문에 그 기능은 여전히 계속됨을 사도는 강조합니다. 첫째, 성전된 그리스도인은 항상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14-15). 의와 불법, 어둠과 빛, 그리스도와 벨리엘(마귀), 그리고 성전과 우상이 서로 연합할 수 없듯이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거룩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둘째, 하나님이 일하시는 언

약의 절정을 누리야 합니다(16).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연합상태가 우리가 거할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죄로부터의 분리과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기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거룩중심, 하나님임재중심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산 교제를 중시할 때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전의 거룩함을 지킵니다.

수 새언약 백성의 삶(고후7:1)찬412장

새 언약 백성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 두려움은 공포가 아닌 사랑의 경건에서 나온 두려움입니다. 새 언약백성은 거듭남으로 자연히 가진 반응입니다. 이 두려움이 살아 있는 증거이기 때문 하나님을 경외함이 모든 생활의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모든 일에 거룩함을 구해야 합니다. 그 두려움은 거룩이 자라나는 토양입니다. 경건생활에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사

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거룩하심의 표준에 이르기 위해 온전한 거룩을 추구해야 합니다. 셋째, 자기를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앞선 모든 것에 이르기 위한 구체적인 일은 자기를 정결케 하는 일에 힘쓰는 일입니다. 이것은 기도와 말씀 그리고 고난을 통해 생겨지는 열매입니다.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합니다.

목 위로의 하나님(고후7:2-5)찬559장

사도와 고린도 교인 간의 교제를 통해 사도는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위로입니까? 첫째, 담력을 가진 위로입니다(2-4). 마게도나에서 당한 불편한 육체와 사방에서 우겨싸는 난관도 다뚫고 두려움이 일어날 때 우리는 함께하시는 주님으로 이길 수 있었습니다.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볼 때 담력을 가집니다. 둘째, 거룩한 자랑으로 오는 위로입니다(4). 그런 과정 속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

볼므로 참 위로를 받습니다. 그 위로는 우리로 찬양과 감사와 간증하게 합니다. 셋째, 모든 환난에서 위로부터 오는 기쁨입니다(5). 사방으로 우겨 싸인 고난은 위로 오는 위로를 받는 기회입니다. 사도는 그 일로 교회를 가슴에 품고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갖기까지 참된 수고를 함으로 하늘의 위로를 누렸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주 안에 거함을 힘쓰므로 나아갑니다.

금 경건에 이르는 근심(고후7:6-9)찬474장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경건에 이르는 근심이 일어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 그런가요? 첫째, 이것이 우리로 사모하게 하기 때문입니다(7).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내 것을 가질 때 하늘보좌를 보는 눈이 뜨여지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것이 우리를 애용의 자리로 이끌기 때문입니다(7).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자기의 비참함을 보았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기의 부족 때문에 벗어나려고 애씁니다. 셋째, 이것이 회개에 이끌기 때문입니다(8-9). 참된 회개는 생명을 반드시 경험하게 하기 때문에 신자가 항상 추구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는 반드시 믿음을 동반하기 때문에 온전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타락에 이르는 안일함보다 경건에 이르는 근심을 구하십시오.

토 회개에 이르는 근심(고후7:10-11)찬206장

사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일어나는 두 가지 근심을 지적하며 그들로 곤고한 날에 따라야 할 길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첫째, 생명의 근심이 있습니다. 그 근심은 후회함이 없는 근심으로 나타납니다. 그 열매는 7가지로 보여 지기를 간절하게 하며, 변증하게 하며, 분하게 하며, 두렵게 하며, 사모하게 하며, 열심 있게 하며 벌하게 합니다. 이것이 거룩에 이르는 증거

들입니다. 둘째, 사망에 이르는 세상 근심은 마침내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그것은 부패성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자기 뜻을 세우려는 열심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넓은 길의 마지막은 반드시 사망이기 때문에 자아를 부인하는 일로 이끕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근심을 기록해지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 기타지역 교회

<p><b>갈보리장로교회</b></p> <p>담임목사: 조용철</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오후예배: 오후 7:00 세례기도회: 오후 7:30 (월-금) 오전 6:00(토)</p> <p>Tel. (206)579-7576, Fax. (206)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p>	<p><b>몽고메리교회</b></p> <p>담임목사: 최해근</p> <p>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세례기도회: 오전 6:00</p> <p>Tel. (610)222-0691, 267-471-7777 Fax. (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p>	<p><b>벅스카운티장로교회</b></p> <p>담임목사: 김종운</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아 열 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p> <p>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p>	<p><b>벨렝교회</b></p> <p>담임목사: 백신중</p> <p>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영양):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410)461-1235, Fax. (410)461-6823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http://www.bethelchurch.org/</p>	<p><b>보스턴장로교회</b></p> <p>담임목사: 장성철</p> <p>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토요세례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오전 11:00, (금) 오후 8:00</p> <p>Tel. (508)435-4579, Fax. (704)529-0900 2 Main St., Hpkinton, MA 01748</p>	<p><b>샬럿장로교회</b></p> <p>담임목사: 나성균</p> <p>주일 1부예배: 오전 10:45 토요세례기도: 새벽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대학청년부: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8:00 영, 권, 원예배: 오전 10:45 중, 고등부예배: 오전 10:45</p> <p>Tel. (704)877-6642, Fax. (704)529-0900 701 Scaleybark Road, Charlotte, NC 28209</p>	<p><b>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p> <p>■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b>시애틀평강장로교회</b></p> <p>담임목사: 박은일</p> <p>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오후예배: 오후 7:30 세례기도회: 오전 5:30(월-금) 토요일: 오전 6:30</p> <p>Tel. (206)527-0981, Fax. (206)524-1746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www.kpcsoattle.org</p>	<p><b>안다옥교회</b></p> <p>담임목사: 강준수</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세례예배: 오전 6:00(월-토)</p> <p>Tel. (702)749-9929, Fax. (702)778-6876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www.omvchurch.org</p>	<p><b>알칸사 제자들교회</b></p> <p>담임목사: 전남수</p> <p>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 오후 8:00 세례예배: 오전 8:00(월-토)</p> <p>Tel. (501)920-9049, 사해, (501)425-5178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www.jebs.org</p>	<p><b>앵커리지벨리문교회</b></p> <p>담임목사: 유재일</p> <p>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p> <p>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http://www.bethelchurch.org/</p>	<p><b>엘파소열린문교회</b></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아)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7:30</p> <p>Tel. 교회(915)755-1490, 사해(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p>	<p><b>영성장로교회</b></p> <p>담임목사: 백운영</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부흥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전 6:00(월-토) 세례기도: 오전 6:00(월-토)</p> <p>Tel. (215)542-0288, Fax. (215)542-9037 706 Wilmer Rd., Horsham, PA 19044</p>	<p><b>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p> <p>■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b>킬린온누리교회</b></p> <p>담임목사: 김성현</p> <p>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토요청년모임: 오후 3:00 세례예배: 오전 5:30(월-금)</p> <p>Tel. (254)535-1842(H), (254)501-4933(C) 1000 E. Valetre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p>	<p><b>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b></p> <p>담임목사: 한세영</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세례예배: 오전 5:30(월-토)</p> <p>www.mpcow.org Tel. (703)941-4447, Fax. (703)941-4448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p>	<p><b>주예수교회</b></p> <p>담임목사: 배현찬</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 오후 8:00 세례예배: 오전 6:00(토)</p> <p>www.jkc.org Tel. (804)560-7500, Fax. (804)560-7514 10201 Robius Rd., Richmond, VA 23225</p>	<p><b>타코마 한인장로교회</b></p> <p>담임목사: 박장호</p> <p>주일 영아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예배: 오전 11시 영아예배: 오전 11시 수요예배: 오후 7시 세례기도회: 오전 5시 30분 (화-토)</p> <p>Tel. (253)536-8675, (253)888-9249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www.tacomakc.org</p>	<p><b>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b></p> <p>담임목사: 조진모</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원년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45 세례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215)927-0630, Fax. (215)927-0643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www.kcujo.org</p>	<p><b>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p> <p>■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b>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p> <p>■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장 이취임사

## 이임 장영춘 박사 뉴욕의 개혁주의신학 전당으로 기억되길

## 취임 김성국 박사 “프린키피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붙잡고..



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제는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로부터 본 신학교 이사님들과 교수님들, 그리고 동문들이 동부개혁장로회 신학교를 위하여 더욱 합심하여 기도하고, 후원하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에 하나가 되어 신실한 개혁주의 목회자들을 배출시키는 일에 전념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뉴욕의 개혁주의 신학의 정당! 하면 동부개혁장로회 신학교가 제일 먼저 기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임사에 대신 합니다.

주후 2018년 9월 2일  
초대학장 장영춘 목사

오늘 동부개혁장로회 신학교 학장 이·취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 예배에 참석하시어 축하하여 주시는 목사님들과 신학교 동문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40여 년 전 이 뉴욕 지구는 자유주의 신학이 만연하여 개혁주의 신학을 고수하며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부족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뜻과 섭리 가운데 부족한 저를 세워주셔서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의 권유로 1987년 9월 동부 뉴욕에 동부개혁장로회 신학교를 설립하게 하셨습니다.

본 신학교는 디모테후서 2장 15절을 교훈으로 하고 31년 동안 훌륭한 교수님들의 가르침으로 개혁주의 신학을 지향하는 479명의 신학도들을 졸업시켰습니다. 졸업생들을 세계 각처에서 목회자로, 선교사로, 교역자로 사역하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족한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역사의 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보다 보이는 것은 옛적 길 선한 길이 보입니다. 인본주의 사상과 자유주의 신학이 난무한 뉴욕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과 개혁주의 신학의 가치를 높이 들고 동부개혁장로회 신학교를 세우신 장영춘 목사님이 걸었던 믿음의 길을 보게 됩니다. 힘 들으셨을 것이고 외로우셨을 것인데 힘 있게 달려오신 그 길이 제가 또 달려가야 하는 길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 길에 신실하게 동참하셨던 믿음의 선진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학감으로 수고하시고 축도해 주실 이규본 목사님을 비롯 전임 학감님이셨던 김혜천 목사님 지금은 하늘에 계신 문경환 목사님 그리고 보직 교수님들 모든 교수님들 사무 전도사님 모든 분들이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수고하시던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다가 이제는 저도 동참케 되었습니다.

오늘 오셔서 귀한 말씀으로 위로와 힘을 주신 본 교단 총회장 김재열 목사님, 순서를 맡아 주신 노회장 문종은 목사님, 은사이신 김인환 총장님, 교협회장 이만호 목사님, 모든 노회 목사님, 예배에 참석해 주시고 멀리서 따뜻한 축하를 보내 주신 모든 선배 동역자 목사님들, 이사회와 동문 재학생들, 캐나다 분교 정관일 목사님과 교수님, 오늘 예배순서들을 담당해 주시고, 지금도 여러 곳에서 수고하시고 늘 기도해 주시는 퀸즈장로교회 당회와 교역자, 직원, 교우들, 모든 언론 기관과 저의 가족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학장의 직분을 두 단어를 붙잡고 감당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프린키피움(principium)입니다.

프린키피움은 원천, 시작이라는 뜻의 라틴어입니다. 이것은 개혁신학자 헤르만 바빙크가 신학의 원리로 삼았던 단어입니다. 충축하고 무오한 말씀만을 원천 삼고 끝까지 말씀으로만 신학교를 섬기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바람이 불어도 인간의 경험과 사상이 아닌 말씀으로만 신학의 터전으로 삼겠습니다.

또 하나의 단어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입니다.

시편 73편의 말씀으로서 어느 날 새벽, 학장의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앞도려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때, 교직원들이 맞이할 온갖 난제를 풀 지혜가 있고, 신학생들이 맞서 싸울 세상에 대한 담력이 있고, 우리 동부개혁장로회 신학교의 미래가 있다고 믿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Sola Scriptura!(오직 성경!)  
Solis Christus!(오직 그리스도!)  
Sola Gratia!(오직 은총!)  
Sola Fide!(오직 믿음!)  
Soli Deo Gloria!(오직 하나님께 영광!)

2018년 9월 2일  
김성국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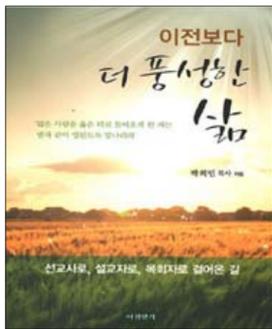


이취임식을 마치고 기념촬영했다. 왼쪽부터 김성국 목사, 김명자 사모, 장미은 사모, 장영춘 목사.

### 새책소개

## “이전보다 더 풍성한 삶”

저자 박희민 목사



박희민 목사(새생명선교회·KCMUSA 이사장)의 저서 ‘이전보다 더 풍성한 삶’이 최근 출간됐다. “이민교회 영적 리더십의 귀감”이라고 불리는 박희민 목사가 “선교사로, 설교자로, 목회자로 걸어온 길”을 회고하고, 후배 목회자들이나 신앙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은 결코 은퇴가 없음을 보여

주는” 책이다.

박 목사는 “조금이라도 사랑의 빛을 갠으려는 생각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은퇴 후에도 멋진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간증을 하기 위해서 이 책을 내게 됐다”고 발간 동기를 밝히며, 또 “은퇴하시는 여러분들이 은퇴 후 무료하게 인생을 허비하며 살지 말고 아직 가장 좋은

바람을 전하기도 했다.

제 1부 “어떻게 살 것인가”는 미주국민일보에 기고했던 칼럼들을 모은 것이며, 제 2부 “창의적 선교”는 선교컨퍼런스에서 강의한 내용들, 그리고 제 3부는 박희민 목사가 이끌고 있는 새생명선교회의 사역들을 정리한 것과 제 4부 “박희민 목사 프로젝트”는 박 목사가 걸어온 발자취를 되새겨 본 것으로, 특히

이야기들이 간략하게 서술돼 있다.

또 제 1부를 시작하기 전 “내가 김삼환 목사(명성교회 원로 목사), 송정명 목사(전 월드미선대학교 총장) 강준민 목사(LA 새생명비전교회 담임), 임윤택 목사(월리암캐리 국제대학교 교수), 진재혁 목사(지구촌교회 담임)의 추천사가 수록됐다.

회로 성장시킨 후 나성영락교회 제 2대 담임목사로 청빙 받아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교회로 성장시켰다.

저서로는 “사람을 품으라”(두란노서원), “21세기 영적 리더십”, “평신도를 위한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등 35권이 있으며, 국방장관상, 아세아인상(Cal-State), 추앙목회대상(송실대학교), 대한민국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은 바 있다.

나성영락교회 은퇴 후 새생명선교회를 설립해 대표로 섬기면서 KCMUSA(미주한인선교재단) 이사장, 성시화운동 국제 명예총재로 활동하고 있다.

(박준호 기자)

### 은퇴 후 더 멋진 삶 알리기 위해 저술

그의 어린 시절, 목회자로의 소명, 한국 최초의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선교사로 활동했으며, 분쟁으로 많은 상처가 있던 토론토 한인장으로 교회를 캐나다의 대표적인 한인교

회를 이끌었다. 그는 “은퇴 후에도 멋진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간증을 하기 위해서 이 책을 내게 됐다”고 발간 동기를 밝히며, 또 “은퇴하시는 여러분들이 은퇴 후 무료하게 인생을 허비하며 살지 말고 아직 가장 좋은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Best time you to come)는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믿음과 생각을 가지고 소망 속에 인생을 도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출판하게 됐다”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Best time you to come)는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믿음과 생각을 가지고 소망 속에 인생을 도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출판하게 됐다”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Best time you to come)는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믿음과 생각을 가지고 소망 속에 인생을 도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출판하게 됐다”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Best time you to come)는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믿음과 생각을 가지고 소망 속에 인생을 도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출판하게 됐다”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Best time you to come)는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믿음과 생각을 가지고 소망 속에 인생을 도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출판하게 됐다”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Best time you to come)는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믿음과 생각을 가지고 소망 속에 인생을 도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출판하게 됐다”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Best time you to come)는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믿음과 생각을 가지고 소망 속에 인생을 도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출판하게 됐다”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Best time you to come)는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믿음과 생각을 가지고 소망 속에 인생을 도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출판하게 됐다”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Best time you to come)는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믿음과 생각을 가지고 소망 속에 인생을 도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출판하게 됐다”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Best time you to come)는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믿음과 생각을 가지고 소망 속에 인생을 도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출판하게 됐다”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Best time you to come)는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믿음과 생각을 가지고 소망 속에 인생을 도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출판하게 됐다”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Best time you to come)는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믿음과 생각을 가지고 소망 속에 인생을 도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출판하게 됐다”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Best time you to come)는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믿음과 생각을 가지고 소망 속에 인생을 도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출판하게 됐다”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Best time you to come)는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믿음과 생각을 가지고 소망 속에 인생을 도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출판하게 됐다”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Best time you to come)는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믿음과 생각을 가지고 소망 속에 인생을 도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출판하게 됐다”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Best time you to come)는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믿음과 생각을 가지고 소망 속에 인생을 도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출판하게 됐다”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Best time you to come)는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믿음과 생각을 가지고 소망 속에 인생을 도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출판하게 됐다”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Best time you to come)는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믿음과 생각을 가지고 소망 속에 인생을 도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출판하게 됐다”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Best time you to come)는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믿음과 생각을 가지고 소망 속에 인생을 도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출판하게 됐다”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Best time you to come)는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믿음과 생각을 가지고 소망 속에 인생을 도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출판하게 됐다”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Best time you to come)는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믿음과 생각을 가지고 소망 속에 인생을 도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출판하게 됐다”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Best time you to come)는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믿음과 생각을 가지고 소망 속에 인생을 도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출판하게 됐다”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Best time you to come)는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믿음과 생각을 가지고 소망 속에 인생을 도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출판하게 됐다”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Best time you to come)는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믿음과 생각을 가지고 소망 속에 인생을 도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출판하게 됐다”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Best time you to come)는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믿음과 생각을 가지고 소망 속에 인생을 도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출판하게 됐다”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Best time you to come)는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믿음과 생각을 가지고 소망 속에 인생을 도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출판하게 됐다”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Best time you to come)는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믿음과 생각을 가지고 소망 속에 인생을 도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출판하게 됐다”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Best time you to come)는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믿음과 생각을 가지고 소망 속에 인생을 도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출판하게 됐다”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Best time you to come)는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믿음과 생각을 가지고 소망 속에 인생을 도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출판하게 됐다”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Best time you to come)는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믿음과 생각을 가지고 소망 속에 인생을 도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출판하게 됐다”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Best time you to come)는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믿음과 생각을 가지고 소망 속에 인생을 도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출판하게 됐다”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Best time you to come)는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믿음과 생각을 가지고 소망 속에 인생을 도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출판하게 됐다”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Best time you to come)는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믿음과 생각을 가지고 소망 속에 인생을 도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출판하게 됐다”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Best time you to come)는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믿음과 생각을 가지고 소망 속에 인생을 도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출판하게 됐다”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Best time you to come)는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믿음과 생각을 가지고 소망 속에 인생을 도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출판하게 됐다”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Best time you to come)는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믿음과 생각을 가지고 소망 속에 인생을 도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출판하게 됐다”는



# 교회 이동 디스플레이 및 디자인 전문

카라반캐노피는 대형프린팅 분야에서 18년의 전문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안 수정, 로고 제작, 한글 캘리그래피 디자인 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며 고성능 프린트 작업으로 최고의 만족도를 약속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모든 디스플레이 제작, 맞춤형 서비스

- ✓ 현수막 | 천막
- ✓ 접이식 배너 | 디스플레이
- ✓ 프로모션 상품
- ✓ 디자인서비스

### VINYL BANNERS

2' X 5' with grommets : \$25 Plus tax if applicable

4' X 5' with grommets : \$50 Plus tax if applicable

### MESH/POLY FABRIC BANN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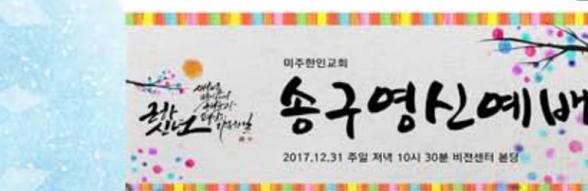
2' X 5' with grommets : \$35 Plus tax if applicable

4' X 5' with grommets : \$70 Plus tax if applicable



미디어벽

현수막



플래그

롤업배너

X 배너 거치대

벽걸이 포스터

